

01

경기문화재단  
커뮤니티와 아트  
출판 시리즈

#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커뮤니티 아트 글로벌 네트워크 리서치 자료집

2013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경기문화재단







01

경기문화재단  
커뮤니티와 아트  
출판 시리즈

#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커뮤니티 아트 글로벌 네트워크 리서치 자료집

2013

경기문화재단 커뮤니티와 아트 출판 시리즈 1  
2013 커뮤니티 아트 글로벌 네트워크 자료집

업무총괄 | 양원모

수석학예사 | 백기영

학예사 | 이 헌

업무지원 | 박정호 윤소영 임은옥 이진실 고유라 현수정

행정지원 | 권신 유상호 김지혜

홍보 | 이학성 김태용 김경민

디자인, 인쇄 | ERA Book

표지 그림 | 박경록

원고저작권 | 각 필자

사진저작권 | 각 필자와 사진 저작권자

자유 리서치 참가자

캄보디아 | 자우녕

중국 황룡강성 | 조전환, 손민아, 이윤기

마카오, 홍콩, 중국 광저우, 심천지역 | 김나영

네팔 | 김월식

우즈베키스탄 | 정재민, 한지혜

**기관협력 프로그램**

방글라데시 포라파라 아티스트 트러스트 | 위창완, 백용성, 오소영

협력큐레이터 | 아브 로비 나사르 (포라파라 아트스페이스 디렉터)

일본 3331 아츠 치요다 | 참여 작가 없음

협력큐레이터 | 마사토 니카무라 (3331 아츠 치요다 디렉터)

주최·주관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인 |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엄기영

발행처 | 경기문화재단



**© 경기문화재단**

본 자료집은 2013년 커뮤니티 아트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리서치 리포트를 모아

경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본권에 수록된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문화재단 /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T. 031-231-7231-9 / F. 031-236-0283

홈페이지 [www.ggcf.kr](http://www.ggcf.kr)

트위터 [twitter.com/ggcf\\_kr](https://twitter.com/ggcf_kr)

페이스북 [facebook.com/ggcforkr](https://facebook.com/ggcforkr)

## 차례

대표이사 인사말	p.6
기획의 글	p.9

### RESEARCH 리서치

- 캄보디아	p.23
- 방글라데시	p.41
- 네팔	p.71
- 우즈베키스탄	p.95
- 흑룡강성	p.119
- 마카오, 홍콩, 중국 심천&광저우	p.135

### INFORMATION 기타정보

- 2013년 프로젝트 소개	p.149
플로팅 피어스 프로젝트 / 트랜스 아츠 도쿄 프로젝트	
- 협력기관 소개	p.157
방글라데시 포라파라 스페이스 / 일본 3331 아츠 치요다	
- 참여자 소개	p.163



## 사회를 돌보는 예술

오늘날 문화와 예술은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갈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창조경제의 토대를 문화융성에서 찾고 있고, 예술가들은 국가 정책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경기지역의 문화융성을 위해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라는 그야말로 다양한 환경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쪽은 분단이라는 냉전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수도권의 산업시설과 공단의 상당수가 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부 일대와 남서부에 위치한 평야지역에는 수천 년 이어온 농경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서부에는 바다와 섬을 중심으로 해양문화까지 포괄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립되는 문화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러한 이유때문에, 창립초기부터 도시중심의 문화 활동 뿐 아니라, 공단이나 농·어촌 등지의 문화 소외 지역의 문화를 발굴 양성하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을 확대해왔습니다. 장소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활기를 찾는 많은 공동체 사업들은 이제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이고 지역적인 문화예술 활동은 비단 경기도에서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예술은 문화예술이 일부 계층이나 공간에 머물러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전 세계 각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문화재단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서 대안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예술가들을 교류하는 ‘커뮤니티아트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7명의 작가(팀)가 참여 하였는데, 그동안 지역에 국한된 공동체 활동을 전개하던 작가들이, 아시아 지역의 커뮤니티 아트 활동을 연결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존의 활동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자료집은 ‘커뮤니티 아트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더 많은 예술가들을 위해서,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각 지역에서 짧지만 값진 시간, 충실히 리서치를 실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신 작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경기문화재단은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과 본 자료집을 통해서 각 현장에서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애쓰고 있는 예술가, 기획자,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새로운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2014 제 4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모두가 예술을 사용합니다> 워크숍 / 그라즈 데일 아츠, 도판제공 APAP



## 유동적 공동체를 위한 흐르는 예술

### 1. 공동체 기반의 예술

최근 ‘공동체 기반의 예술’로 불리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2006년 ‘열 개의 이웃’ 커뮤니티 아트 지원 사업에서 ‘커뮤니티 아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경기문화재단도 최근 많은 수의 ‘공동체 기반의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발효된 이후로 문화예술교육 혹은 문화 복지 사업 영역에서도 ‘커뮤니티 아트’ 유형의 작업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어서 그야말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수행하는 대부분의 문화 사업은 ‘커뮤니티 아트’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이렇게 많은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들에 간여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서 지역주민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우선되는 ‘커뮤니티’와 창조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아트’가 어떤 관계에 놓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관계는 얼마나 어떤 상태로 지속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은 2011년 ‘커뮤니티 와 아트’라는 콜로키움을 통해서 ‘커뮤니티 아트’라는 일반명사 사이에 ‘와’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커뮤니티’와 ‘아트’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 콜로키움에서 우리는 최근 변화하는 ‘커뮤니티’의 속성을 밝히고 이 ‘커뮤니티’와 관계하는 ‘아트’의 다양한 형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료집의 서문에서 양원모 팀장은 “새 장르 공공미술”, “관계미학”으로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는 최근 커뮤니티 아트에 대해서 “커뮤니티 관련 예술이 세계적인 흐름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한국사회에서 발화하고 전개되는 양태에는 우리만의 역사성과 특수성이 있는 듯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한편으로는 범세계적이면서 보편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우리식의 미적, 사회적 잣대도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의 제안에서처럼, 커뮤니티 아트에 있어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명명할 것인지, ‘공동체’란 개념의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예술가는 내부자로 존재할 것인지? 외부자로 존재하며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

## 2. 장소 특정적 미술

공동체가 유동적이고 일시적이라면 그러한 불안정적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기반의 예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프로젝트들은 지역적,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따라 그 성격이 경직되었다고 할 정도로 고착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삶의 다양성을 예찬하고 제도화된 예술에 저항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공동체 기반의 예술’이 어쩌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일까? 재미 미술사학자 권미원은 그의 책 『장소 특정적 미술(One Place After Another)』<sup>1)</sup>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권미원은 그의 책에서 70년대 공공미술에서 “장소 특정적 미술(Site Specific Art)”이 커뮤니티아트로 전환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에서 장소 특정적 예술작업은 1960년대 중반 미 행정관리청(GSA)이 추진한 “건축 속의 미술프로그램”과 1967년 국립예술기금(NEA)이 추진한 “공공장소 속의 미술프로그램”에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sup>2)</sup> 이러한 모더니즘의 한계를 넘어선 예술가들은 작품이 위치하게 되는 장소의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 문맥을 활용한 “장소 특정적 미술”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술이 관계 맷게 되는 ‘장소’에 대한 전형화, 고착화와 같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들은 점점 더 균등해지고 도시의 정체성이 점점 희박해 지면서 도시의 차별적 특징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전문가들은 ‘매력적인 장소’, ‘도시의 구별적인 정체성’, ‘지역적 정체성’을 위해서 “장소 특정적 미술”을 동원하였다.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해 내는 ‘창조도시’ 전략에 예술은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이다. “장소 특정적 미술”은 도시를 관광으로 특화하는 장소 마케팅, 내지는 홍보에 동원되는 시기에 생겨났기 때문이다.<sup>3)</sup>

12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미 연방청 광장에 설치되었다가 철거된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의 <기울어진 호(A Tilted Arc)>는 ‘장소 특정적인 미술’이 제도비판적인 쟁점으로 옮겨 가게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세라의 <기울어진 호>는 장소 특정적 조각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소에 따라 조정하거나 재배치 될 수 있는’ 모더니즘 조각과는 달랐다. 그의 작품은 광장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커다란 철판으로 이루어진 작품 자체도 흉물스럽게 보였다. 때문에 그의 작업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철거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세라는 작업을 설치할 때부터 이 상황을 예견했다. 그의 작품은 장소의 일부가 되어 그 장소를 개념적으로도 지각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시민들과 논쟁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그의 작업은 단지 물리적 공간에 설치된 작품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과정예술’로서, 제도비판적인 ‘장소기반의 예술’에서 ‘쟁점기반의 예술’로 넘어간다. 시카고의 미 연방청 광장은 이 사건 이후로 그 흔적과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미술작업과 장소 사이의 특정적인 관계는 세라의 경우에서처럼 그 관계의 물리적 영구성에 근거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 수 없는 순간적인 상황으로 경험되는, 고정되지 않는 비영구적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4)</sup>

결국 ‘장소 특정성의 계보’에서 ‘장소’란 고정된 작품의 위치, 즉 현상학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으로부터 미술에 의미를 부여하는 제도의 영역이자,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담론의 장으로 확대 되었다. 세라는 유동적인 장소를 상정하는 장소 특정성의 원칙을 ‘유목적’이라고 정의했다.<sup>5)</sup>



리차드 세라 (Richard Serra), 기울어진 호 (Tilted Arc), 1981

### 3. 공동체의 장소

권미원은 세라의 사례에서 출발해서 매리 제인 제이콥(Mary Jane Jacob)이 1993년 시카고에서 기획한 ‘행동하는 문화: 시카고에서의 새로운 공공미술’과 연관해서 어떻게 공공미술이 장소로부터 공동체로 이동하게 됐는지 설명한다. 제이콥은 수동적인 관객을 적극적인 미술 제작자로, 관람자의 역할을 변화시키고자 했고, 작품을 물질적 오브제가 아니라 지역의 참여자와 미술가 사이의 일시적 상호작용 과정으로 끌어 들였다. 수잔 레이시에 의해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로 명명된 “공동체 기반의 미술” 활동들은 정치권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곤경을 드러내고 그들을 변호하며 그들 즉 미술가들이 인도주의적 가치라고 간주하는 것들을 실현하려는 열망을 갖는다.”<sup>6)</sup>

권미원은 “장소 특정적 미술”에서 물리적 공간조차 유동적인 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상상력이 “공동체기반의 미술”로 넘어가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공동체 기반의 미술”내에서 다시 본질화 과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공동체 기반의 미술” 활동들이 ”공동체를 규정하기 위해, 발생적 속성이건 일련의 사회적 관심이건 혹은 지리적인 영토이건, 하나의 공통성의 항목으로 고립시킨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고립화는 이 공통성의 항목을 공유하도록 가정되는 미술가들과의 동반 관계를 조직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또한 그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 관료주의에 의존하는 미술작업(말하자면, 공동체 기반 미술을 포함한, 제도적으로 승인된 공공미술)은 너무 잘 길들여져 있어 어떤 논쟁적인 힘도 갖지 못한다. 결국 작업들은 오직 위계와 합리적 질서를 재확인하는 굴종의 행위가 된다. 즉, 지역의 관심사와 지역민을 끌어들이는 참여적인 미술 작업 모델의 시도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자본의 힘과 국가에 대한 복종으로 전환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14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흥미로운 것은 뉴욕과 시카고에서 있었던 1990년대 중반의 “공동체 기반의 미술”활동이 마주쳤던 모순을 최근 국내 ‘커뮤니티 아트’활동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커뮤니티 아트’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커뮤니티가 속한 물리적이고 지역적인 공간에 한정되는



작품이 철거된 이후의 미 연방정부 광장



하하 그룹 (HaHa Group) – 행동하는 문화 시카고 (Culture in Action Chicago), 1993

15

communi ty  
art  
global  
network

경우가 많다. 이 프로젝트들은 공공기관에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예술가들이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아가 이 프로젝트들은 ‘착한예술’이나 ‘재능기부 활동’으로까지 확대되다 보니 예술가의 자발적인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형식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공동체 기반의 프로젝트가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접근 또한 매우 상투적인 경우가 허다한데, “공동체 기반의 예술작업”에서 만나는 공동체들은 ‘사회취약계층’,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공장노동자’, ‘재래시장 상인’, ‘노숙자’ 등으로 이름 지워진 공동체들인 경우가 많다.

과연 이 프로젝트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에 속하기를 기꺼이 원하는 개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최근 한 ‘결혼이민자’들의 워크숍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여하기를 수치스러워 한다고 폭로하는 한 결혼이주 여성의 절규를 들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그들을 ‘다문화 가정’으로 대상화하고 차별화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처럼 공동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늘 따라 다닐 수밖에 없는 지역적, 사회적, 정치적 특수성의 ‘팔호 치기’를 통해 부여된 ‘정체성의 정치’는 혼들리고 유동하는 공동체의 불안정한 토대 안에서 끝없이 해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4. 유동하는 공동체

예술은 이러한 공간과 공동체의 전형화에 저항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유동성의 생성과 관련되어 있다.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동주의자 이와사부로 코소(Iwasaburo Kohso)는 그의 책 『유체도시를 구축하라!』에서 어떻게 60년대 후반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행동주의자들이 도시공간을 유동적으로 탈 영토화 하였는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소개한다. 탐욕으로 가득 찬 도시 공간들은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끝없이 전형화 시키고 파괴한다. 코소는 그의 책에서 건축노동자 출신이었던 고든 마타 클락의 <건물 자르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소개했다. 클락은 도시의 건축들이 쓸모없이 버려지는 현장에서 삶을 영위하던 건축 노동자였고 ‘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그가 선택한 것은 <건물 자르기>와 같은 방식의 전위적인 작업이었다.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의 정치적 논리에 지배되지 않는 저항적인 행동주의가 생산해 내는 예술은 도시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다. 클락의 작업이 브롱크스의 배제된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다면, 할렘의 벽면에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라이팅(Writing)’ 혹은 ‘에어로졸 아트(Aerosol Art)’는 철도노동자의 자녀들인 아프로 아메리칸 청소년들이 자율성을 쟁취하기 위하여 도시 내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는 일종의 ‘서명 행위’로서 발생한 현상이었다. 이렇듯 도시와 공동체는 끝없이 동요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이 유동하는 공간과 접속하는 유동적 상상력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코소는 “중요한 것은 ‘공간형식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 틈 사이로 엿보이는 ‘사회과정의 유토피아’이며, 그것을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실천들이다.”고 말하고 있다.

16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니꼴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는 그의 책 『래디컨트』에서 뿌리와 줄기를 동시에 가진 예술가의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탐험의 미학에 기초를 둔 이와 같은 정체성은 여행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그는 “미술가는 현대의 여행자, 호모 비아토르(Homo Viator)의 원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sup>7)</sup> 이 방랑자는 불안정한 세계를 방황하고 통제하는 정치 질서를 물컹거리게 만든다.

#### 5. 기관 협력 프로젝트

“커뮤니티 아트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적이고 한국적인 상황의 ‘커뮤니티 아트’ 현장에서 ‘거리두기’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예술가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1차년도 사업을 기획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예술가와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하면 ‘거리두기’가 가능할까?’하는 질문이었다. 그 해답은 “품 청소년 공동체”가 네팔에서 진행했던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에서 찾아 볼 수 있었는데, 2000년대 중반 북한 새터민과 남한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품”은 새터민 청소년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남한 청소년들과의 대립적 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네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북한의 대립 구조는 네팔 산악지대의 가난한 청소년들이 등장하면서 깨지게 됐다고 한다. 제 3의 지대에서 나타난 네팔

청소년들은 새터민 청소년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새터민 청소년들은 끝없는 열등의식의 대립적 관계에 놓였던 남한사회를 밖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통해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청소년 공동체가 경험했던 방식의 인식의 전환은 동시대 예술가들에게도 역시 필요하다. 이미 우리시대의 예술은 인식의 한 부분에서 탈주하지 않고 새로운 영토에 도달하기 어렵게 되었다. 예술가라면 누구나 자신의 시대에 당면한 ‘끝없는 강박관념’과 싸우는 자일 수밖에 없고 이 ‘강박관념’들은 시대를 통해 제도화하고 제도화된 예술은 정치적인 권력으로 자율적인 예술가의 상상력을 제약하기 마련이다.

“커뮤니티 아트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은 당초 국제워크캠프(IWO)와 국내 협력 사업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청소년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이나 대외원조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 자원봉사기관과 경기문화재단의 공동체 작업을 주로 해왔던 예술가들이 함께 협력 사업을 하면 어떨까 했던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국제워크캠프 해외 사업들이 대부분 기업이나 단체들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고,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커뮤니티아트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 단체들과 연결했다.

그러던 중 도쿄 시내 중심가에 도심 공동화 현상에 개입하는 일본의 “3331 아츠 치요다”的 <트랜스 아츠 도쿄>프로젝트와 방글라데시 포라파라 아티스트 트러스트가 시행하는 <떠도는 친구들(Floating Peers)>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일본의 3331 아츠 치요다(3331 Arts Chiyoda)협력 사업은 한국에 강연초대를 받았던 마사토 나카무라(中村政人)상이 직접 재단을 찾아 제안한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일본 사회에 예술가들이 나서서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으려는 계획들과 만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지원자들이 일본 쪽에 많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작가들을 선정할 수 없었다. 또 다른 협력기관으로는 방글라데시 포라파라 아티스트 트러스트(Porapara Artist Trust)의 아브 나사르 로비(Abu Naser Robii)가 기획한 <떠도는 친구들(Floating Peers)>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포라파라 아트스페이스와 핀란드 MUU가 공동으로 기획했는데, 다양한 나라의 작가와 기획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티 프로젝트, 워크숍 등을 진행했다. 여기에 지원한 3명의 작가와 기획자(오소영, 위창완, 백용성)들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에 참여하였고 현지의 열악한 식수시설이나 위생 상황들에 작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프로젝트는 완수되었다.

## 6. 자유 리서치

자유 리서치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는 공모를 통해 5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는데, 프로젝트마다 리서치 지역이나 방식이 달랐다. 그중 첫 번째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경기창작센터에서 결성된

‘대부도 오래된 집 프로젝트’ 팀이다. 조전환, 손민아, 이윤기 작가가 협력 프로젝트로 진행해 온 이 프로젝트는 섬에서 사라져 가는 민가 건축물을 답사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전통가옥을 제작하고 연구하고 있는 조전환 목수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일상 속의 사소한 변화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손민아의 분석적인 해석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하고 그림으로 그려내는 이윤기 작가가 의기투합한 결과다. 하지만, 국내에서 함께 했던 조합이 해외 리서치 프로젝트에서도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못했던 프로젝트 팀은 현지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충돌하게 되었는데, 이 팀의 사례에서 나타난 리서치 사업의 문제점은 손민아 작가가 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에 점검해 보기로 하자.

다음으로 정재민과 한지혜 작가는 안산의 고려인 마을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고려인들과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였고 이 프로그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리서치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1937년 강제 이주 후에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 8~9 세대까지 이어지면서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의 현장으로 간 두 사람은 한국에서 말로만 들었던 고려인들의 삶을 목도하게 된다. 남과 북으로 나눠진 모국을 외부자의 위치에서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민족적 뿌리는 뽑혀져 러시아의 언어와 문화로 구조화되고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이 앞서 조선족 흑룡강성 리서치에서와 같이 우리 민족의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확인하는 작업과 서로 연동된다. 민족이라는 고정된 정체성은 시공간의 교차적 역사 속에서 유동하고 부유하는 먼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

---

18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다음으로는 캄보디아 프놈펜과 씨엠립으로 떠난 자우녕 작가의 리서치다. 영상예술가로서 작가는 S-21 교도소에서 혹독하게 고문을 받다가 죽은 젊은 여성을 추모하며 만든 영화 ‘보나파, 비극의 캄보디아 여인(1996)’과의 만남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 영화는 몬테카를로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게 된다. 이때 받은 기금으로 보나파 센터를 설립하게 되는데, 총 3층짜리 건물인 이 센터는 크메르 루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현재 캄보디아 사회문제를 다룬 영화들을 다양 소장하고 있다. 최근 이곳은 캄보디아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예술가들과 시민단체 운동가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네팔지역으로 리서치를 떠난 김월식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네팔에서의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 다른 리서치 여행하고는 차별화된다. 다만, 김월식은 이 리서치 여행에서 네팔 내의 문화예술관련 기관을 종합적으로 네트워크 하는 것에 집중했는데, 대안적인 예술기관에서부터 네팔 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 예술대학 등을 연결하는 방대한 리서치 여행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 혹은 유학생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현지에 대안적인 문화예술 공간을 설립하고 이들과 국제적인 연대를 발전시키고 있는 김월식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대안공간 엠 큐브 M Cube>, <대안공간 빈두 스페이스 Bindu Space>는 아시아 지역의 다른 대안공간 네트워크와도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 네팔의 독자적인 현대적인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나영과 그레고리 마스는 최근 대안공간 영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영리적 대안공간” 모델을 고민해왔다. “김김 갤러리 Kim Kim Gallery”를 통해서 국제 아트페어에도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최근 아트바젤의 홍콩 진출과 맞물려 홍콩과 광저우 지역의 영리적 대안공간들을 연결하고자 했다. 홍콩의 <파라사이트Para-site>나 마카오의 <옥스 웨어 하우스(OX Ware house)>같은 공간들은 한국, 일본,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대미술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기획전을 연다든지 동아시아 국가들의 현대미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7. 국제 리서치 사업의 한계와 가능성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 문제점은 중국 흑룡강 리서치에 동참했던 손민아 작가의 문제제기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손 작가의 문제제기는 비단 자기가 속한 리서치 그룹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전체 그룹에게 공히 해당되는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손민아 작가는 이번 리서치 작업에서 해외 커뮤니티를 여행자적 입장에서 짧은 기간에 방문하는 방식이 가지는 한계는 지적했는데,

첫째, 커뮤니티를 도구화 할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손 작가가 만났던 사람들이 지역 신문사 관계자들이거나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정부 정책을 이행해야 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 공동체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과 관계 맺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했다. 따라서 국제 리서치 사업에 있어서 예술가들이 관심 갖고 있는 콘텍스트에 대한 현지 파트너 입장을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의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예술 현장 자체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손 작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문화’를 이용한 식민주의적 태도가 우려되며 자기반성 없는 문화교류를 위한 수단만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셋째, 리서치 작업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아시아권만 하더라도 영어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 예술가들은 더더욱 전무한 것이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 중국의 경우는 조선족이나 해외 체류하고 있는 교포들을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와 같은 현지인들이 제공하고 있는 편협한 정보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 그러다 보니 진지한 대화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기보다는 술자리와 같은 사적인 형식으로 교류방식이 한정되면서 음주문화 내에서 발생하는 해당 국가의 권위주의적인 질서 내에 종속되고 마는 한계를 들어 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지역의 경우,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인 국가들이 있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집회결사의 자유가 공안에 의해서 심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워크숍이나



메리 제인 제이콥(Mary Jane Jacob)이 기획한 Never the Same 행사에 참석한 마크 디온(Mark Dion)

## 8. 결론

『2013년 커뮤니티 와 아트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을 마치고 왜 ‘커뮤니티 아트’에서 ‘국제네트워크’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 해명을 하려니 글이 길어졌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불안정 할 뿐 아니라, 유동적이다. 2010년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APAP)의 예술 감독을 맡았던 박경 감독은 안양시의 도시 유동성이 얼마나 높은지 통계치를 들어서 설명했다. 1년에 도시 전체 인구의 25%가 바뀌는 도시에서 공동체의 지속성을 상상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체 기반의 예술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던 이 프로젝트에 “새 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의 주창자 수잔 레이시(Suzanne Lacy)를 포함해서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했지만, 이 프로젝트가 도달하고자 했던 유동성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적었다고 본다. 오히려 지자체 축제행사로 시민들을 동원하는 상투적인 행사로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APAP무용론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고 밀았다. 이처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활동의

현장에서 고독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예술가들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나 지역문화재단 혹은 지원 단체들의 화석화된 공동체적 사고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 아마도 이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서 예술가들은 지역의 환경미화를 돋는 일꾼으로 전락하며 지자체들은 자기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예술가들을 활용하고 만다. 이러한 제도들은 관례화되어 공동체들과 접촉하여 새로운 지역사회와 예술을 실험하려는 예술가들을 좌절에 빠뜨리고 안양의 사례에서처럼 예술행사 무용론으로 몰고 갈 우려도 적지 않다. 서구사회가 수십 년에 걸쳐서 경험해온 것들을 압축해서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공동체 기반의 예술’에서 조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축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차분한 조망이며 변화무쌍한 공동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예술가들의 열정과 감각을 보살펴야 하는 일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예술가들의 유동적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술가의 이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밖으로부터 공동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거리’가 유지되는 한 예술은 아직도 공동체 안으로 흘러들어 새로운 쟁점을 생산하고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백기영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수석학예사)

- 1) 프랑크 스텔라의 작업 제작 과정을 두고 도널드 저드(Donald Judd)가 붙여서 불렀던 “하나 다음에 또 하나(One Thing after another)”라는 용어를 연상시키는 이 책 제목은 일반적으로 장소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 다음에 또 한 장소’와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일정하게 반복된 체계의 산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2) 이른바 ‘플롭 아트(Plop art)’로 불리는 거대한 모더니즘 예술작품에 대한 반감에서부터 생겨났다고 한다. ‘물에 풍덩하고 떨어지듯(plopped)’ 공공장소에 떨어졌다는 의미로 이런 작품들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사용된 이 용어는 예술작품이 주변의 물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전혀 맞지 않고 오로지 작품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 3) 권미원, 장소 특정적 미술, 김인규, 우정아, 이영욱 역, 현실문화, 2013, 8쪽
- 4) 같은 책 39쪽
- 5) 같은 책 옮긴이의 해제 중에서 274쪽
- 6) 같은 책 171쪽
- 7) 니꼴라 부리오, 래디컨트. 박정애 역, 미진사, 2013, 155쪽



# Research

리서치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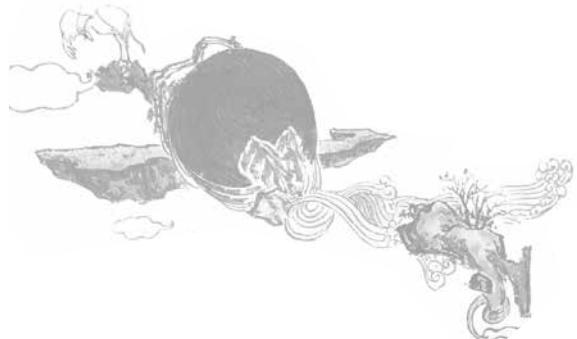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Research

캄보디아 Cambodia



25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프로젝트 명:

<예술적 사회통합을 위한 캄보디아 문화단체 리서치 프로젝트>

장소: 캄보디아 프놈펜, 씨엠립

기간: 사전준비/ 2013.10.30. – 2013.11.11.

현지진행/ 2013.11.12. – 2013. 12.6.

정리 및 보고/ 2013.12.7. – 2013. 12.31.

리서처: 자우녕



## 등 뒤의 악몽

똑똑이

숙소에서 도심지에 위치한 프랑스 문화원까지 똑똑이를 타고 가기로 하였다. 프랑스 문화원은 캄보디아에서 리서치 해야 할 문화단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험한 공기와 길바닥의 진동을 피하려면 택시가 좋겠지만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호객행위를 하는 기사를 보면 마음은 벌써 똑똑이를 타고 있었다. 8달러부터 흥정을 시작하여 3달러에 가기로 한다. 일회용 마스크를 두 개 얹쳐서 양 귀에 걸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옆으면 출발준비는 제대로 된 것이다.

시작부터 덜컹거리는 삼륜 오토바이는 헬멧을 쓴 운전사의 뒷모습 사이로 들어오는 풍경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는다. 이내 흙먼지와 섞인 쇠과 한 매연이 코를 자극하기 시작한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러시아워를 피해 길을 나섰지만 여느 도시 못지않게 교통이 혼잡하였다. 거리로 쏟아져 들어온 온갖 오토바이와 똑똑이는 신호등과 차선을 무시한 채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달리고 있다. 연인 사이인 듯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남녀가 보인다. 남자의 머리를 꼭 껴안은 여자의 긴 생머리가 바람에 휘날린다. 세계 최빈국답게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은 남루한 사람들과 점포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똑똑이 기사는 30분 정도 달려서 나를 내려 주었다.

27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 프랑스 문화원

비교적 조용하고 쾌적한 동네에 위치한 프랑스 문화원은 불어학원인 알리앙스 프랑세즈와 서로 마주하고 있다. 왼쪽엔 서점이 있고 오른쪽엔 도서관으로 나뉘어 있다. 전면유리창으로 빛이 가득 들어와 1,2층 전부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다른 건물에 비해 크고 세련된 이곳은 인도차이나를 식민지로 삼았던 제국의 위용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하다.

먼저 서점부터 들르기로 한다. 비교적 아담한 공간에 놓인 작은 스탠드가 마음을 편하게 한다. 중앙에 놓인 거취대에는 캄보디아와 주변국들의 자연, 지리, 역사, 음식, 종교 등을 다룬 서적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다. 대부분 불어판이고 적은 수의 영문판도 눈에 띈다. 그 중에 “크메르 루즈”에 관련된 책들이 특히 많아 보인다.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단연 눈에 띄는 문고판 「보파나 (Bophana)」를 집어 들었다. 책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얼굴이 S-21교도소에 전시된 사진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S-21교도소는 프놈펜에 와서 제일 처음 방문한 곳으로 크메르 루즈 세력의 정적들을 고문하는 장소로 쓰인 곳이다. 반가운 마음에 이 책을 사들고 도서관으로 건너갔다.

이곳은 단아하게 자리 잡은 책장과 적당히 배색이 된 파랑색 의자들이 놓여 있다. 주로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프랑스인이 뛰엄띄엄 앉아서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다. 한 여고생의 맨발에 당은 햇살이 눈부시다.

이곳에 있으니 이 나라는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평화롭게만 느껴진다. 창문을 정면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곳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거리엔 여전히 햇빛이 쏟아지고 있다. 할 일 없는 똑똑이 기사들이 무료하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한참을 바라본 때문인지 눈이 따끔거려 고개를 돌렸다. 동공이 실내의 조도에 적응하는 동안 잠시 어두움 속에 있었다.

### 완나(Vanna)

어느 정도 익숙해져 어린이 도서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작지 않은 공간에 여기 저기 쌓아놓은 책 더미 사이로 한 캠보디아 남자가 보인다. 그는 먼지가 잔뜩 묻은 동화책을 마른 걸레로 닦고 있었다. 아마도 화장실 공사로 인한 듯하다. 언뜻 보기에도 키가 작고 말라서 보통의 캠보디아인처럼 보였다.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고 있던 그는 좁은 어깨 때문에 왜소해 보였고 이마엔 주름이 깊게 패어있다.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공사 중이라고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그와의 짧은 대화가 시작되었다. 완나(Vanna)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는 작고 살짝 떨렸다. 그 때문에 온순한 성품이 느껴진다. 처음엔 청소부로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어린이 도서관 관리인이 되어 업무용 책상이 따로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동화책을 닦는 그의 손길은 안정적이고 능숙했다.

28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완나는 내 팔에 끼여져 있는 「보파나」를 보며 보파나 센터가 이 건물 근처에 있다고 귀띔해준다. 나는 책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흑백사진의 캠보디아 여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갑자기 진지해져서 미간에 인상을 잔뜩 쓰는 못생긴 얼굴이 되어 벼렸다. 그리고 갑자기 한 숨을 크게 쉬며 오히려 내게 폴 포트를 아느냐고 묻는다.

폴 포트, 그는 누구인가, 히틀러, 스탈린과 함께 20세기 3대 악인 중 하나 라는 사람 아닌가? 그리고 얼마 전에 S-21에 다녀왔던 터라 킬링필드의 주범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포심이 드는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이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으로 보파나의 사진을 안경너머로 응시하고 있다.

동화책을 닦다 말고 내 책을 손에 들고 있는 이 사람,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것처럼 은근히 그녀를 바라보는 이 사람이 나는 궁금해졌다. 그리고 자문해본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길은 이처럼 송고한 것일까?’ 그이는 보파나에게 다가가고 난 그이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스스로 빠져든 어린이 도서관 관리인은 나를 보파나 센터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얼떨결에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우리는 문화원을 빠져나왔다. 해는 어느덧 기울고 길가의 똑똑이 기사는 고객을 만났는지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어진 뒷골목으로 들어서니 가로수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은 간판을 보라고 완나가 손짓한다.

“저것 보세요, 보파나 센터라고 적혀 있지요? 어서 들어가 보세요.”

그의 표정은 어느새 밝아져 있다.

## 보파나 센터

보파나 센터는 3층으로 되어있는 작은 건물이다. S-21 교도소에서 혹독하게 고문을 반다가 죽은 젊은 여성 보파나를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크메르 루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현재 캄보디아의 사회문제를 다룬 영화들을 다양 소장하고 있는 영상센터이다. 한 직원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고 말해 주었다. 맨발문화의 공간답게 현관엔 벗어놓은 신발들로 가득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층계참에 서니 보파나의 초상이 눈에 띈다. 나는 완나의 충고를 받아들여 그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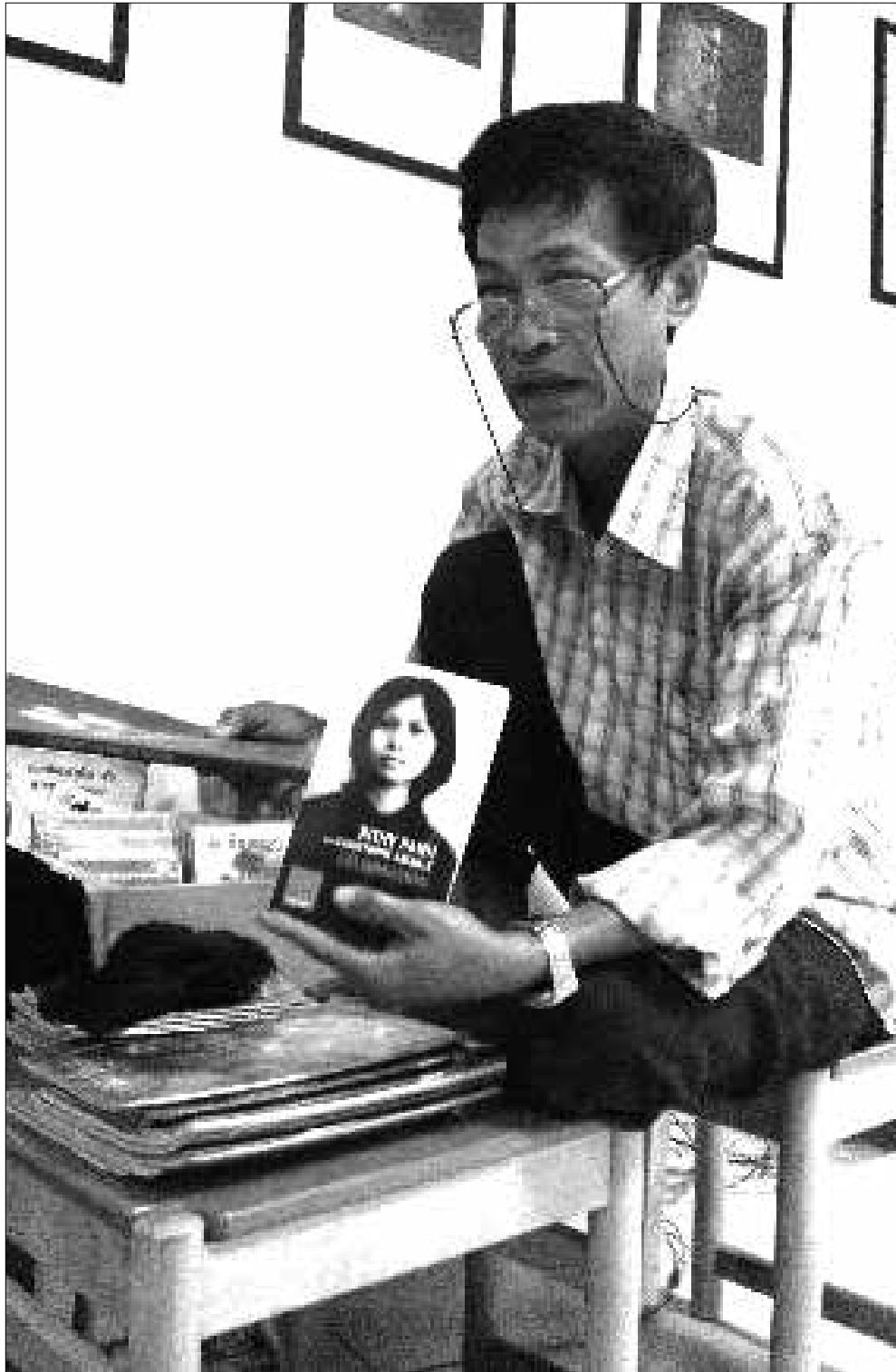
영화는 1950년,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90년 만에 독립한 시기부터 다룬다. 이후 30년간 계속되는 내전은 캄보디아 국민과 국토를 황폐화시켰다. 독립하면서 수장자리에 오른 시하누크 왕은 군 총사령관이었던 론 놀에 의해 축출되고, 크메르 루즈라 불리는 공산세력이 미국의 후원을 받는 론 놀 정권을 파멸시키면서 프놈펜에 입성한다. 이때가 1975년이었다. 크메르 루즈의 ‘제1형제’라 불리었던 폴 포트는 5년 동안 집권하면서 꼼찍한 만행을 저지른다. 이렇게 대량학살이 이루어진 곳 중의 하나가 S-21 교도소이고 보파나는 여기에서 참혹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1만2000명 중의 하나였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척결하게 써내려간 주인공 보파나의 편지글에 완나의 주름살이 겹쳐 보였다. 그가 이렇게 어두운 시절을 보냈단 말인가? 그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의 가족은? 그의 부모님은? 생각에 고리를 물린 탓인지 속초로 돌아오는 길은 더 심하게 흔들렸다.

## 두 번째 만남

다음 날 오후 늦게 다시 그를 찾았다. 5시가 완나의 퇴근시간이다. 그는 책장 사이에 서서 책들을 꾸욱 넣고 있었다. 11월의 캄보디아는 이 시간에 해가 기울어짐으로 어린이 도서관의 공간도 반쯤은 어두움에 잠겨있었다. 짙은 갈색 피부의 완나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나를 반겼다. 그에게 다가가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다. 그는 약간의 난색을 표했다. 당신의 인생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말에 더더욱 망설인다.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태도에 약간 당황스러웠다. 뭔가 있다는 생각에 호기심이 더 깊어졌지만 약간 물러서는 척 되물었다. “아니면 차 한 잔이라도...” 한참을 뜬들인 후에 그가 말했다. “그럼 내가 아는 한국식당이 있는데 한 번 가볼래요? 한국음식 먹고 싶죠?”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고



그를 끌어내다시피 하며 밖으로 나왔다.

내가 그에게 호기심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비슷한 세대라는 것을 눈치 챘기 때문이다. 내가 종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그는 프놈펜에서 가족과 함께 혹독한 시련을 겪었을 것이었다. 크메르 루즈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프놈펜 시민들을 모두 도시 밖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완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혹독한 집단노동을 당한 것일까? 이 때문에 프놈펜의 모든 집과 건물은 텅 비었다고 하는데.... 그는 30년도 넘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때 시하누크 왕은 씨엠립의 별궁에 갑금되어 있었고 대량학살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학교는 혁명군으로 채워졌다. 의료진과 환자가 없는 병원, 승려가 없는 절, 장보는 이 없는 시장, 산책자 없는 공원, 사람 없는 집, 음식 없는 식당, 아이들 없는 골목, 골목들.....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이 도시의 풍경을 기억하는 완나의 인생이야기가 지금 너무나 궁금하다.

## 식사

모또(오토바이)로 출퇴근 하는 완나는 능숙하게 시동을 걸며 뒤에 올라타라고 신호를 보낸다. 10여 년간이나 매일 출퇴근하며 보아왔다던 한국식당에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이다. 양상하게 마른 이방인의 머리를 잡고 올라타는 순간 모또는 쟁하게 앞으로 달려 나갔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전신을 휩싼다. 골목의 똑똑이들이 모두 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지 저녁의 러시아워는 장관을 이뤘다.

완나는 가이드나 된 듯, 여기가 영국 대사관이고 저기가 가장 오래된 다리이며, 지금은 러시아 마켓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번 가보았느냐고 묻는다. 여기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쏟아져 나오는 매연에 적응하지 못해 숨을 참다 쉬다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빈국에서의 쇼핑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이기도 했다.

모또는 어디론가 계속 달린다. 생각보다 먼 곳까지 가는 것 같아서 실망이 된다. 숙소로부터 반대방향으로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또는 조용한 골목길로 들어서면서 멈추었다. 화려하고 고상한 한국식 간판이 눈에 띈다. 정원수가 우아하게 조명을 받고 있고 그 옆에 경비원이 서 있다. 생각보다 비싸 보이는 식당이다. 완나는 10년 동안 봐놓았던 식당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흰 테이블보마다 빨간 천의 냅킨이 잘 접혀져 있다. 아직 이른 시간인지 식사하는 손님은 별로 없다. 우리는 한 구석의 식탁에 자리 잡았다. 캠보디아 여성으로 보이는 직원이 메뉴판을 들고 왔다. 완나는 잘 모르겠다며 선택을 내게 맡긴다. 맵지 않은 불고기 백반을 주문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다. 그는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두리번거린다. 자꾸 나의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난다. 하여 시간을 다투는 기자인 듯 첫 질문을 던졌다.

“언제 태어났어요?”

“1963년...”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프놈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요.”

“결혼은?”

“물론 했지요. 1987년에. 나는 아이가 모두 여섯인데 네 명은 출가해서 멀리 살고 지금은 두 아이와 살고 있어요.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막내는 이제 7살이에요.”

“부인은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녀도 직장에 다니나요?”

“아니요,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데요.... 같은 동네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요. 집사람은 돈 벌줄 몰라요.”

“당신은 학교를 다닌 적이 있나요?”

32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네, 그럼요. 1973년부터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75년에는 모든 학교가 폐쇄되었지요. 선생님들은 모두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크메르 루즈는 권력을 획득한 후, 미군의 공중 폭격을 피하기 위해 2,3일 만에 수도에서 퇴거하게끔 도시 거주자를 지방에 있는 집단농장으로 이주시켰다.

이 때문에 완나의 부모님도 자녀들과 함께 깜봉 스쁘(Kampong Speu)로 가게 된 것이다. 깜봉 스婢는 남서쪽에 위치한 지방 도시로 캄보디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다.

한 생존자에 의하면 집단이동 중에 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 노약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상에서 홀로 출산하는 임산부가 종종 있었고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집에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거주자는 문에 쇠사슬을 묶어놓아 죽을 때까지 방치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노역...

이 시절에 대한 완나의 증언이 궁금하다. 어떻게 물을까? 생각하는 중에 불고기 백반이 나왔다. 우리에게도 매우 상징적인 음식인 ‘고기와 흰 쌀밥’이 그의 앞에 놓여 있다. 먹고 산다는 것, 평화롭게 먹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생각하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식사량이 적은 그는 대부분의 반찬을 남겼다. 그리고 후식으로 수정과가 나왔다. 흰 자기에 투명하게 담겨져 있는 자줏빛 음료는 완나를 한껏 매료시킨다. 한 모금 조심스레 마시더니 아주 맛있다며 좋아한다.



교도소는 현재 크메르 루즈의 대량학살을 추모하기 위한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박물관의 주요 전시물은 희생자들의 사진이다.

“맙봉 스쁘에서는 어떻게 지냈나요?”

미소 짓고 있던 완나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지면서 주름도 같이 움직였다.

“우리 부모님과 나는 매일 노동을 하였지요. 아침부터 밤늦도록 땅을 파고 또 파고...우린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생각하기도 싫네요.”

고된 노동과 배고픔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다는 그의 묘사는 짧고 침묵은 길었다. 하여 나는 재차 물을까 어쩔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가 입을 뜬다.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제겐 언제나 생생한 기억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인들 그 누구도 이 시절을 잊지 못할 거예요. 처음엔 감자를 먹다가 그나마도 없어서 풀을 뽑아 먹었습니다. 노동보다도

배고픔을 견디는 일이 너무 힘들었지요. 아, 배고프다는 것만큼 가혹한 것이 또 있을까요?  
바나나나나무 알지요? 바나나나나무 밑동이 조금 부드럽거든요, 바나나는 다 혁명군에게 바치고 우리는  
밑동을 잘라 죽처럼 만들어 먹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이상하다, 밭자국을 보면 분명히 사람밭자국인데  
똥은 소똥을 쌉다’고 말이예요.”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폴 포트 말이예요. 그가 죽어버린 것이 정말 한탄스러워요.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왜 그랬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가 왜 자기의 국민을 그렇게 동물 취급 했는지. 그런데 그는 죽고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1998년 4월 15일, 폴 포트는 전범재판을 받기도 전에 죽어버렸다. 이 날 BBC는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집권기간 중 수백만 명의 인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캄보디아의 전직 독재자 폴 포트가  
캄보디아 서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하지만 그의 시신은 검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화장이 됨으로써, 독살되었거나 자살했을 수 있다는 소문이 오랫동안 떠돌았다.

34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다시 진정이 된 듯 완나는 남은 수정과를 한 모금에 마셨다. 그러곤 지나가는 종업원에게 수정과  
레시피를 묻는다.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있는 완나의 얼굴이 다시 환해진다. 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메모지 한 장만 달라고 하고는 크메르어로 ‘계피와 생강’이라고 느리게 적는다. 그림을 그리는 듯  
가벼워 보이지만 그의 손목에는 힘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고개를 든 얼굴이 발그레 상기되어  
있다. 정성스럽게 종이를 접어 한쪽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는 역에 감지되는 마지막 단맛을 보내는  
것이 안타까운 듯 빈 잔을 바라본다. 이 모든 행동이 엄숙한 종교예식과도 같아서 경외의 마음까지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어지는 증언은 어두운 성당에서 고해성사하는 듯 했다.

“악몽이 내 등 뒤에 있어요.”

정적이 흐른다. 그와 나 사이에 손님들의 웅성거림과 식기 부딪치는 소리, 음식 나르는 소리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동시에 그에게 향했던 집중력이 중심을 잃는다. 인터뷰는 이제 시작이며 아직  
물어볼 것이 많은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오히려 어두운 어떤 공간 아니면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하다. 내가 잠시 헤매는 동안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눈높이보다 높아진 그를 올려다봐야 했다. 우리는 이 식당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곤 내가 지내는 곳까지 모포로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택시를 부르면 된다고 했다. 이 모든 대화가 빨리 지나갔다. 찬 물을 맛은 듯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일지 모르는 질문을 했다.

“그래서 당신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돌아가셨지요. 나는 살아서 프놈펜으로 돌아왔지만 부모님은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하면서  
여동지동 걸어 나간다. 다급해진 나도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하였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가 보이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물어보았다. 남자 손님은 급하게 모포를 타고 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다. 잘 모르겠다고 하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식당을  
빠져나왔다. 이쪽 골목 끝에서 저쪽 골목 끝까지 살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완나는 가버린  
것이다. 인사도 없이.

식당주인이 불러준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당황스러운 감정은 불쾌감으로 번졌다. 그가 왜 그랬을까?  
친절하고 입가엔 항상 미소가 있던 그가 왜, 내가 비싼 저녁식사까지 샀는데 왜. 속소로 돌아오는  
길에도 단순한 질문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반복하고 반복했다.

이틀이 지났다. 두 번의 스콜이 지나가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뿐만 먼지가 한 순간에 사라졌다.  
청명해진 하늘엔 구름 한 점 없다. 창공 어딘가를 응시한다. 눈이 시려웠지만 피하지 않는다. 문뜩  
완나가 떠올랐다. 그리고는 한 순간에 이해된다. 아, 깨달음은 이렇게 오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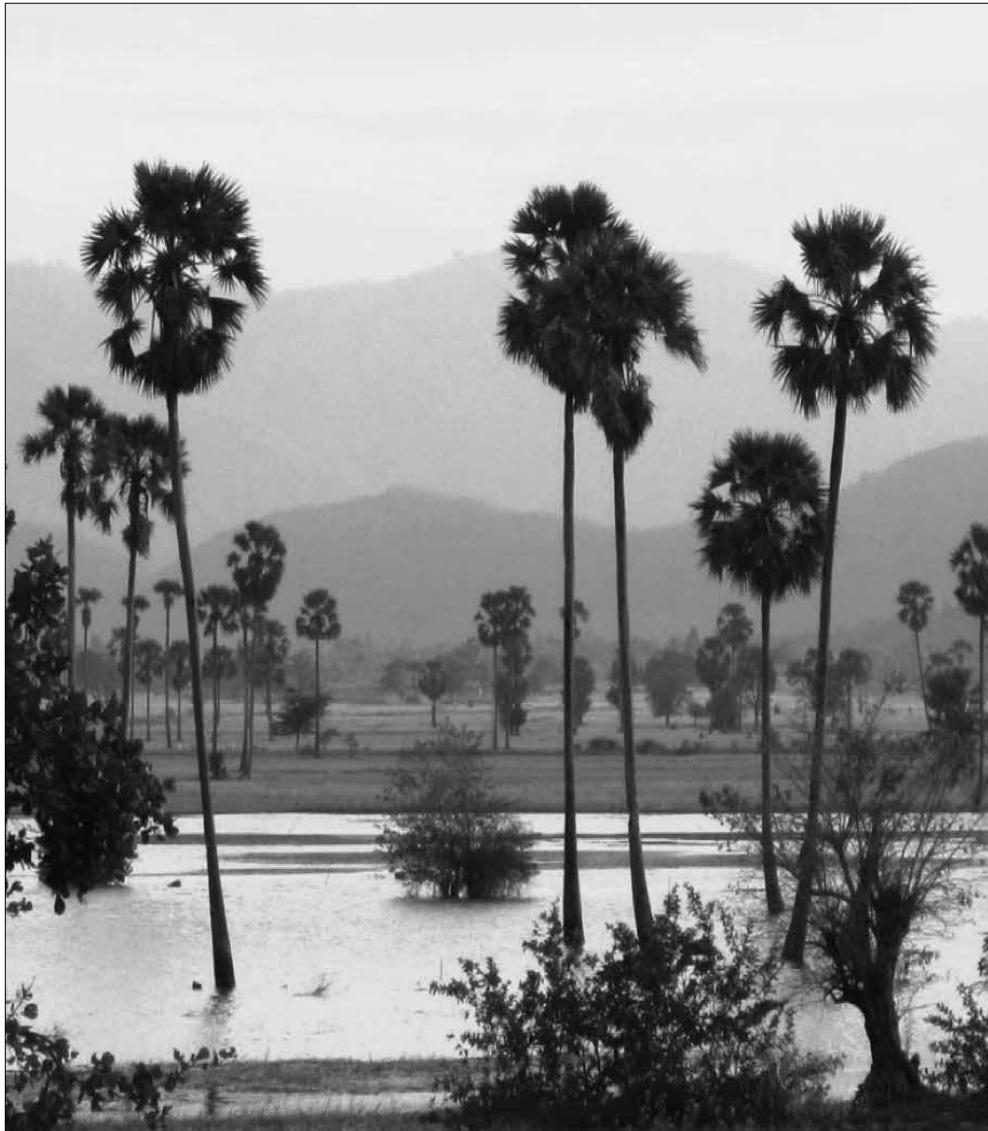
‘어쩌면..... 그의 아픔이 사라진 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인줄 알았구나. 그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아팠던 것인구나.’

필시 완나의 부모님은 대규모 관개공사와 도로 만들기 등 소위 국토 건설을 위해 동원 되었다가  
굶어 죽었을 것이다. 죽은 시신을 코코넛 잎으로 덮어주고 다시 노역장으로 끌려갔을 그를  
상상해본다. 부모가 굶어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쩌면 그는 S-21에서 살해당한 보파나를  
부모님의 죽음과 겹쳐서 기억했을지 모른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니 망연자실해진다. 화려한 식당을 선택함으로써 한국의 부유함을 선망하고  
있음을 눈치챈 나는 그와의 인터뷰가 무난하리라 생각했었다. 후식의 단 맛으로 그의 고통을  
사련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악몽이 되어버린 고통의 기억을 한 끼의 식사대접을 받음으로  
대신하고 싶었을까? 그러나 값비싼 식사와 후식으로 그의 고통이 보상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등  
뒤의 악몽’은 그를 내리 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모포를 타고 가버린 완나, 어두운 길에 혼자 맞았을 바람을 상상해본다.

/ 자우녕 (비디오 아티스트)



스舛(Speu)는 “별모양의 과일”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팜 슈거(palm sugar, 열대 야자수에서 나오는 설탕)가 많다.



### 씨엠립 초등학교 방문

씨엠립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는데 코이카의 원조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엔 전 기시설이 없었다. 어린이들은 어두운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 교사들은 제대로 수업을 하 고 있지 않았다. 이곳의 어린이들은 공책에 현금을 끼워 넣은 후에야 학교 정문을 들어간다. 교사들이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어린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월급이 턱 없이 낮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공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어 씁쓸하다. 또한 초.중. 고 교과정에 예체능 과목이 없다. 학생들은 악기를 다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른 적도 없다고 한다. 미술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미술도구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미술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전혀 없다. 캄보디아 미대생들은 대부분 사찰에서 불화를 그리거나 종교적 조각품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형편이다. 초등학교 전 교실에 아이들이 그림 그림 한 장 볼 수 없다는 점이 문화적으로도 척박한 캄보디아의 현실을 대변해주는 듯 하다.

### Bophana Center - 영상아카이브 (프놈펜)

보파나 센터는 프놈펜의 중심가에 위치한 3층 빌딩이다. 보파나는 S-21 교도소에서 혹독하게 고문을 받다가 죽은 젊은 여성이다. 캄보디아 감독인 리티 판(Rithy PHAN)은 '보파나, 비극의 캄보디아여인'

을 제작하여 1996년, 몬테카를로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때에 받은 기금을 계기로 보파나 센터를 만들었다. 물론 설립 및 유지는 프랑스의 지속적인 원조 덕택이다. 이곳은 크메르 루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현재 캄보디아의 사회문제를 다룬 영화들을 다량 소장하고 있다. 하여 캄보디아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여행객들의 순례지로도 유명하다.



37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나는 보파나 센터를 이틀에 걸쳐 방문하였다. 첫 날에는 프랑스의 중년들로 이루어진 단체여행객들이 견학을 하였다. 이들은 진지하게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각자 다큐멘터리 한 편씩 감상을 하였다. 이튿날도 고등학생들이 영상센타를 가득 메웠는데 이들은 싱가폴 학생들이었다. 다 같이 하나의 영상을 보고 토론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회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한 영화감독의 의지로 만들어진 보파나센터는 캄보디아의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센터의 영상물들과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CHOUR Daroug의 도움을 받아 '보파나, 비극의 캄보디아 여인'을 보았다. 영화는 1950년,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90년 만에 독립한 시기부터 다룬다. 이후 30년간 계속되는 내전으로 캄보디아인들의 육체는 물론 심성이 피폐화 된다. 이 영화로 인하여 캄보디아인들의 저변에 깔린 트라우마와 복수심, 폭력성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



### Mango Tree Books - 동화책 전문 출판사 (프놈펜)

미래로 학교의 교감으로 일하고 있는 차은혜 코이카 활동가와 함께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Mango tree Books를 방문하였다. 오토바이를 개조한 뚝뚝이를 타고 한참을 달리니 한 동네어귀로 들어서면서 멈추었다. 출판사의 사무실은 주택가의 중심에 위치한 한 주택의 2층이었다. 간판도 달지 않은 작은 공간에서 현지인 직원 한 명을 두고 일하고 있는 출판사 사장 이성욱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38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10년 전, Ecumenical Diakonia Center의 한국인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왔던 이성욱은 아이들이 읽을 동화책이 전무함을 알았다. 그나마 몇 권 있는 동화의 내용이 조악하고 폭력적임을 깨닫고 동화책을 만들기 시작한지 5년이 되었다고 한다. 전쟁과 폭력적인 내용의 출판물이 난무한 분위기에서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동화책을 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여 지금까지 모두 10여권의 책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서양의 이야기를 캄보디아어로 번역한 것일 뿐이고 삽화도 원작의 이미지를 복사하여 사용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 캄보디아에는 크메르 루즈의 정권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처형당하거나 태국으로 건너가 삽화를 그릴 수 있는 인적인 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성욱은 삽화를 그릴 수 있는 캄보디아 예술가들을 키워내는 일이 제일 시급하다고 말한다. 지난 해에 영국에서 미술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의 방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 학생은 이런 현지사정을 유심히 살피고 프놈펜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모으고 현지에 맞는 그림도 그려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컨텐츠로 동화책을 만든 것이 유일한 창작동화라고 한다.

여기에서 나의 생각을 발전시켜본다. 한국작가들이 캄보디아의 미대생들을 만나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길러주는 워크숍을 진행하면 일러스트 창작이 가능한 작가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놈펜 주재 프랑스 문화원에서 자국의 동화책을 현지어로 출판하고 있다고 한다. 하여 동시에 캄보디아 프랑스 문화원(Institut Francais du Cambodge)의 문화정책을 리서치 하고자 한다.



또한 이성욱은 이야기 발굴도 시급하다고 말한다. 지금 시중에 있는 어린이 동화책은 힌두교나 불교에서 전래되어 각색된 전통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그것도 10여권 정도에 불과하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부분 남자청년이며 이 주인공은 세상을 속이고 속여 결국 성공하면 현명한 사람인 것이고 나아가 위인이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하여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마음에 보복이나 속임수가 아닌 평화, 협동심, 우정, 배려를 심어줄 수 있는 동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준비가 잘되고 연구된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사회적 예술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 나는 '사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빈곤한

사회에서 이성욱이 만든 5권의 동화책은 비록 외국 동화책을 복사하여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술행위라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망고트리북스의 동화책은 한국선교지의 여러 곳으로 전달되어 아이들에게 읽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였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예술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건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일단 만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캄보디아어 창작동화책 만들기는 한국작가들과 캄보디아 학생들과의 만남, 캄보디아 학생들과 캄보디아 어린이들과의 만남, 어린이들과 어린이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은 타 문화권과 소외계층과의 소통과 다름 없으며 사회적 예술의 적극적 실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캄보디아 주재 프랑스문화원(*Institut Francais du Cambodge*)

캄보디아 주재 프랑스 문화원은 90년간 캄보디아를 90년간 지배해왔다. 제국주의의 영향력 때문인지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은 도서와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로 묶었던 인근 지역의 문화권을 총망라하여 다양한 연구서적과 정치, 역사, 문화에 관련된 책을 발간해왔다. 하여 어린이 창작동화책도 5권이나 된다. 유네스코에서 자금을 받거나 유럽 각 지역의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질이 좋고 훈훈한 내용의 동화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양작가들이 만든 이야기와 삽화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이들이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 어린이용 창작물을 냈다는 것은 출중하지만 일회성에 그치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프랑스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창작 동화책들 중 몇권이다. 이책들은 불어판, 영어판, 캄보디아어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출판되어 있다.



Meta House – 영상아카이브 및 전시. 공연장소

200평방미터의 예술전시 공간이 있으며 세 개의 층에 갤러리, 아티스트와 방문객을 위한 레지던스가 있다. 이곳에서 지역 및 국제 전시회, 워크숍, 커뮤니티기반 프로젝트, 예술가 교환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메타하우스는 동남아시아와 대학이 아닌 미술단체, 미술관 큐레이터와 연결. 육성하여 캄보디아 현대 미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운영되어왔지만 최근 독일에서 받았던 자금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META HOUSE는 “community-based art”를 하는 캄보디아 및 국제 예술가를 장려한다. 이러한 장르의 작품은 대중의 접근 방식을 쉽게하고 그들과 대화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한다. 특별히 2006년에 캄보디아 아티스트인 Chan Pisey (31)가 캄보디아 NGO단체인 “New Future for Children” (NFC)과 함께 미술교육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Craft PEACE Cafe

카톨릭 수도회인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Jesuit Service Cambodia라는 NGO 산하의 장애인 직업학교 Banteay Prieb에서 운영하는 카페갤러리. 직업학교에서 직영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자립을 위한 판매경로 개척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2011년 11월 프놈펜 시내에 Craft PEACE Cafe를 개업해 운영 중에 있다. Craft PEACE Cafe는 장애우들이 만든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하는 장이자, 커피 한 잔 하며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한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 영역에서는 문화공간으로서도 기능을 한다. 지금까지 총 5회의 사진전과 1회의 자선콘서트, 1회의 영화상영회를 개최한 바 있다.



### Banteay Prieb

반띠에에 빼리업은 프놈펜 근교에 위치한 장애인 학교이다. 캄보디아는 세계지뢰의 70%가 매설되어 있는 곳이다. 지뢰로 인하여 다리를 잃은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자 설립되어 지금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학생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신발제조, 목공예, 퀼트로 된 소품, 제봉기술, 휠체어제작 등을 배우고 있다.

또 해마다 한차례씩 영국인 현대무용가가 이곳을 찾아와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몸으로 말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미술수업도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매우 즐거워 하였으며 그림으로 마음을 이야기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다음은 장애인 학생들이 교실에 벽화로 그린 그림인데 아카데믹하지 않아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 Java Art - 대안공간

카페 겸 갤러리로 사용하고 있는 Java Art는 캄보디아 유럽 주재원들과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1,2층으로 되어있는 공간에서의 전시는 캄보디아 작가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지며 작품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 캄보디아 왕립 예술학교

캄보디아의 부유층들만이 다닐 수 있다는 이 학교는 미술, 건축, 무용, 음악으로 전공이 나뉜다. 이중에 미술대학을 둘러보았는데 조각, 회화, 판화를 작업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아래의 이미지들을 보면 모든 과정이 전통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communi ty  
art  
gl obal  
network





\*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Research

বাংলাদেশ | Bangladesh

43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프로젝트 명:

<FLOATING PEERS 2013> International Social Practice Workshop

장소:      방글라데시 치타공 (포라파라 스페이스)

기간:      2013.11.5. ~ 2013.12.5.

리서처:      위창완+백용성, 오소영





# 사회적 예술의 새로운 실험에 대한 단상 – Floating peers 2013 International Art Workshop에 참여하고.

1.

내가 ‘떠도는 친구들’ (Floating peers 2013 international art workshop)이라는 아트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포라파라 스페이스(Porapara Space) 디렉터인 로비(Robi)와의 유대감 때문이었다. 우리는 2012년 국제 토지던시에서 한국에서 만났다. 그때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주제에 한참 머무르곤 했었다. 그리고 그러한 아트프로젝트를 한 번 만들자고 했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다행히 로비는 필란드의 작가연합 (Artists' Association MUU, Finland)인 MUU와 함께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나를 포함한 네 명의 한국 작가들 또한 경기문화재단이 기획한 ‘2013 커뮤니티 아트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방글라데시 남부에 위치한 치타공이라는 도시의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으로 참여적인’ 예술프로젝트였다. 그 마을은 조드넘이라는 작은 마을로 인근 국제공항이 건립되면서 거의 ‘추방’ 된 사람들이 임시로 거처를 만들며 형성된 삶의 터전이었다. 상당히 열악한 동네였다. 기초적인 상하수도도 없고, 교육, 공공의료, 노동, 가사일 등은 그야말로 부유하고 표류하는 흐름에 맡겨진 셈이었다. 혈병은 삶이다. 아이들 역시 일상의 잡일에 참여해야 했지만, 그러나 맑은 눈으로 아이들답게 시간의 흐름을 즐겼다.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쉽지 않은 듯 했다.

그때 나는 삶의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역으로 사람들의 공동체적 삶이 그들이 사는 공간을 어떻게 변형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고민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네덜란드, 필란드, 방글라데시 다른 도시 등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약 40여명에 달하는 작가들은 각자 해결책은 달랐지만 어느 정도 공통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통의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각자의 개성적인 해결방식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러니까 이번 워크숍은 토지던시 프로그램이 갖는 느슨하고, 좀 더 개인적인 방식과 달리 상당히 집단적이면서도 개인의 창발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집중력 있고, 박진감 넘치는 진행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공동의 문제의식으로 인한 동기부여에 그 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봉사단이 진행하는 사회봉헌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술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다.



## 2.

아마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예술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그 열린 특성으로 다른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미리 짜여 있어서, 누군가의 지시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방만함이나 방기라는 위험을 갖고 있다. 예술가 개인에 모든 게 맡겨진다면 그것은 개인 창작이지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기와 달리 최근 대부분의 한국에서 벌어지는 테지던시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 훌륭한 예술적 성과를 성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테지던시의 경우는 늘 ‘지역 연계’ 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특히 지역사회에 탐방이나 인터뷰, 리서치 등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예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다고 하겠다. 동기부여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그것은 의무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적 상황’에 대한 공유와 자발적인 동기화가 훌륭한 프로젝트의 기본 조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집단적인 프로젝트일 경우 더더욱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사적이거나 소규모의 경우는 이미 충분한 의기투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마 그 완성도 면에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조건을 두루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대상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했으며, 작가들은 1단계로 지역탐방과 간단한 조사, 미팅 등을 통해 ‘경험’ 적 사실들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단계로 공통의 문제들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이 시작됐다. 그것은 소규모 팀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한 후, 전체 모임에서 서로 공유하고 질의하고 토론하는 전형적인 팀 플레이 방식이었고, 민주적인 방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몇 개의 공통문제로 압축해 그 해결방안에 대한 창발적인



논의들이 열린 상태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광범위한 사적인 대화, 협업 가능성, 유연한 만남 등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공동의 문제의식과 우정 속에서 각자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서, 수평적인 소규모 미팅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다양한 예술적 실천들이 나왔다. 벽화그리기, 뮤직비디오 만들기, 건축적인 상징물 만들기, 아이들과의 여러 번의 공동 프로젝트들(함께 그림 만들기) 등. 그리고 20일이라는 짧은 일정으로 인해 상상된 모든 것이 실현되기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었다. 여기서 이에 대해 자세한 논의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마 문제가 있다면 이 짧은 기간이거나 혹은 이후의 지속가능성일 것이다. 시작부터 내가 강조한 게 이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술적으로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회적으로만 끝난다면 그 의미가 상당히 삭감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보여주기식 행사밖에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적어도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프로젝트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무엇보다 커뮤니티 센터 만들기라는 제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동의 공간(놀이), 교육, 쉼터, 작업장, 작은 축제, 무엇보다 공동의 창조경험)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먼저 그 방향을 언급하면, 첫째 마을 사람들의 참여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마을사람들의 자발성이다. 예술가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의 자연스러운 이행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째보면 역설이다. 예술가는 거기에서 사라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주 중대한 변형이 존재한다. 그것이 아마 예술의 효과이며 예술 자체의 수행성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 자발성으로의 변형, 그 자체 자기감응인 ‘사이’의 창조는 그 자체로 예술적이며 정치적이다.



## 3.

일찍이 1960년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선 헬리오 오이트리시카(Helio Oiticica)와 리지아 클락(Lygia Clark)등 많은 예술가들이 열대주의 예술운동(Tropicalismo movement of art)을 시작했다. 그들은 고정된 오브제로서의 예술전시를 거부했다. 오히려 관객과 주민과 함께 하면서 예술행위를 했고, 함께 정치적 상황에 저항했으며, 새로운 미학적 차원을 창조했다. 그들의 운동은 한국의 커뮤니티 아트와 유사해보이지만, 기존의 미학을 의식적으로 넘어서려는 차원, 정치적 상황 등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이번 치타공 예술 프로젝트는 일시적이었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아주 새롭게 고취시켰던 경험이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말이다. 즉 누구도 자신의 예술을 먼저 내세우려는, 그리고 자신의 예술 활동을 작품으로 고정시켜 그것으로 자신의 오브제를 만들어 항구화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없이 오직 그 마을의 현실, 사람들과의 연대 속에서 그 마을과 하나가 되어 삶이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가를 사유했던 것이다. 그것은 독특한 일치감이다. 즉 하나의 자연 대상으로서의 객체와 주체와의 ‘거리’를 없애고, 위와 아래의 ‘차이’를 없애는 가운데 나타나는 일체감, 상호 증여의 순간들이다. 왜냐하면 예술가들만 일방적으로 무엇을 증여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해질 무렵 아이들과 함께 했던 순간이 아직도 들리는 듯하다. 아래는 거기서 끄적였던 느낌이다.

하와유?

안녕하나고 일제히 묻는다.

방글라데시 치타공 조두넘이란 늙지 마을아이들이 인사한다.

티없이 맑은 눈과 미소는 사라진 문명처럼 느닷없이 심장에 육박하고,

하와유 하와유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소리는

지는 저녁놀을 가르며 퍼진다.

하와유, 하와유, 하와유… 그것은 “정말 우리는 안녕한 것일까?”라는 최근 한국에서의 질문과도 공명을 이루지만, 나는 또한 그 ‘하와유’가 어떤 언어로도 설명하기 힘든 아이들의 순수 생명의 외침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침은 하늘을 가르고 저 막막한 우주너머로 퍼져 나간다. 누군가는 그 소리에 퍼뜩 잡이 깨, 무엇인가를 명하니 생각하거나, 곧 무엇인가를 시작할 것이다.



## 'Floating Peers' 떠다니는 친구들..

이름처럼 핀란드, 네팔, 일본, 한국 그리고 방글라데시 곳곳의 지역작가들이 포라파라에 모였다.  
그들의 삶의 바다에서 떠다니다가 이곳 포라파라에서 근 한 달 여간 작가들 서로서로가 여러  
생각들을 공유하고 일들을 진해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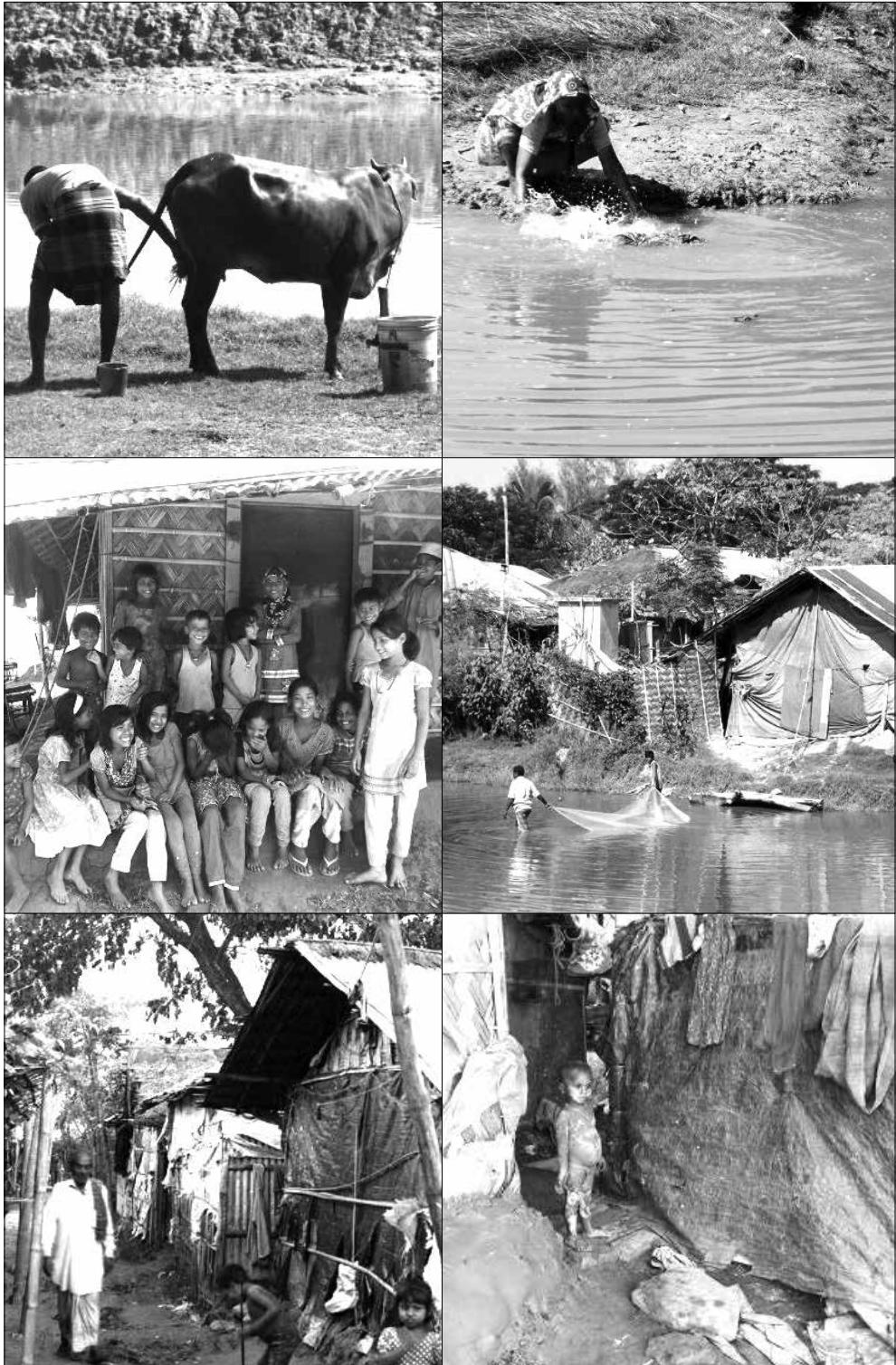
### 1. 구차람마을, 방글라데시 그리고 질문들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야는 것은 ‘구차람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구상하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치타공 포라파라내에 에어포스가 생기면서 강제 토거조치를 당한 이들-제대로 된 보상금 없이-이 갈 곳 없어 구차람 마을 강가로 모여든 것이다. ‘구차람 마을’에 이미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떠밀려온 이들이 썩 달갑지는 않다. 그나마 강가를 내어주어 그곳에 집들을 짓고 800여명의 사람들이 빽빽이 살고 있다.

말이 집을 짓는다는 것이지 시멘트 벽돌을 쌓아 올린 집이 아니라 대나무 가지와 대나무 잎으로 엮어 틀을 세우고 비닐-비료포대 혹은 포장용비닐 등-로 틈을 가린 형태의 집들이다. 우기 때마다 강둑이 무너져 수해 피해도 심각하다. 위생문제는 심각하고 높은 문맹률과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두 개가 전부이다. 이들의 주된 노동은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할 만한 플라스틱, 고철 혹은 쓸 만한 천들-이곳 방글라데시는 면직업으로 유명하다-을 주어다 파는 일이거나 일용직들이다.

전기가 들어오는 가구 수가 현저히 모자라 거의 대부분의 가구들은 이처럼 소동 그리고 인분을 띡처럼 빚어 말려 연료로 쓰고 있다. 남자는 보통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가고-앞서 얘기한 일용직의 일들-집에 남은 아이들과 여자들은 연료를 준비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등등의 집안일들을 한다. 집안일을 하고 난 뒤의 아이들은 주변에 널린 쓰레기들로 장난을 치거나 구정물에서 수영을 한다. 하지만 여자들-아이들의 엄마 혹은 아직 결혼 전인 처녀들-은 할 일 없이 하루를 멍하니 보내다 마무리한다.

하나의 샘물에 10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하나의 샘물에서 빨래, 목욕, 음식준비 심지어는 소변 까지 이루어(?)진다. 이러한 광경은 구차람 마을에서만 만나는 광경이 아니라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특히 농어촌 지역- 볼 수 있다. 내가 머물던 포라파라 레지던시에서도 요리사 아저씨가 샘물에서 음식준비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가끔 코도 푸시고 가래도 뱉으시고 그러셨다... 하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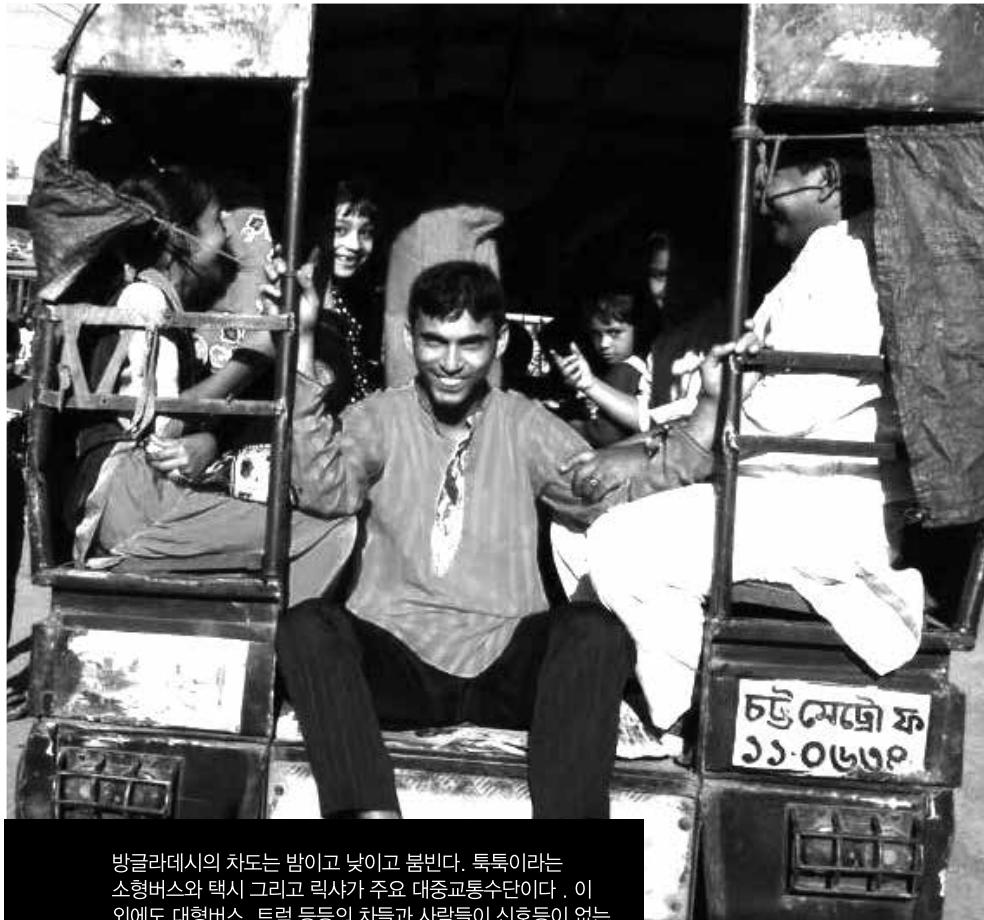
구차람 마을에서 원편에 있는 강둑이다. 그냥  
진흙더미라 말하는 것이 나을지도 . 우기 때마다  
강물이 넘쳐 마을은 수해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러한 쓰레기더미들이 포라파라 곳곳에 있다.  
이곳에서 특히 구차람 마을 사람들은 재활용가능한  
플라스틱, 천, 고철등을 수집 다시 내다 팔고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간다.



그녀의 나이 16살. 아이의 엄마이다.  
구차람마을에는 심대의 아이엄마들이 많았다.



방글라데시의 차도는 밤이고 낮이고 불된다. 톱툭이라는 소형버스와 택시 그리고 릭샤가 주요 대중교통수단이다. 이 외에도 대형버스, 트럭 등등의 차들과 사람들이 신호등이 없는 도로위를 자신들의 암묵적 신호들과 소음들과 함께 지나간다.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도로의 광경에 긴장할 수 밖에 없었고 길에서 이렇게 하루를 보낸 날은 온몸이 까만 매연을 뒤집어쓴다.



구차람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내가 여기에 왜 온 것인가?’ ‘커뮤니티 아트가 무엇이란 말인가?’ ‘잠시 방글라데시에 다녀왔다는 이력으로만 남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구차람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도모하고 진행하는 것이 나의 한 달간의 임무겠지만 나에게 보여진 방글라데시-구차람마을 외에도-는 ‘산다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 베텅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왜 이들은 풍부한 자연 자연들을 그렇게 거대 자본에 내어주게 된 것일까?’ 방글라데시를 보면 느끼며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의 삶은 무엇이 다른가? 살아내는 방식과 모습이 다를 뿐, 결국 한국이란 땅에 살고 있는 오아무개의 삶 역시 자본의 노예로 살아 베텅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 2. 플로팅 피어즈 프로젝트

이곳에 온 이후, 일주일여는 포라파라, 치타공을 둘러보았다.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도 생각해보고, 로비-이번 프로젝트의 방글라데시 대장(?)-이 만든 프레스 컨퍼런스도 참여해서 신문, 티비등의 미디어에도 우리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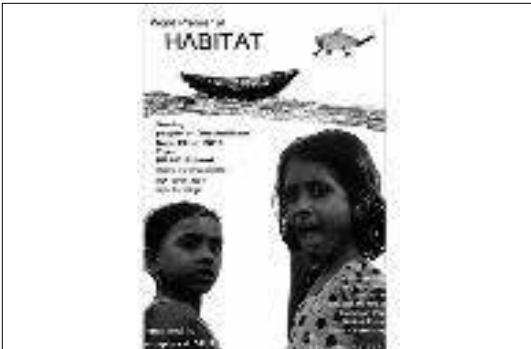
프레스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치타공 시티로 가는 길. 1월 선거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는 일주일에 3~4일은 스트라이크가 발생한다. 그들의 시위는 규모가 크고 폭력적이다. 자동차 폭탄테러, 집단 구타로 사람이 죽기도 했다. 이날 프레스컨퍼런스를 참여하는 날 역시 스트라이크가 있어서 우리는 폐리-우리나라 통통배 느낌이다.

석유엔진으로 시동을 걸고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는 배-를 타고 치타공 시티로 향했다. 포라파라에서 치타공 시티까지는 택시 혹은 소형 버스를 타고 가면 한 시간여가 걸린다. 하지만 배를 타고 가면 우회하고 가기때문에 배안에서 세 시간 정도를 보내야 한다. 모터 돌아가는 소리와 검은 매연 그리고 뜨거운 태양열로 다들 지쳐버렸다.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컨퍼런스를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에만 통하루를 내어준 힘든 날이었다.



플로팅 피어즈 프로젝트를 위한 토론토.  
프로젝트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주고 받는 시간들과 함께 작가들의 포트폴리오 프리젠테이션도 함께 진행되었다. 작가들 각자의 작업색깔, 느낌들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프로젝트에서 어떤 콜라보가 이뤄질 수 있는지도 기능해 볼 수 있는 자리들이었다.

여러 프로젝트가 구상되고 진행되었다. 11월 22일부터 진행될 오픈 스튜디오에서 작가들 각자의 프로젝트- 핀란드, 네팔, 일본, 한국에서 온 작가들은 방글라데시 지역작가들과 의무적으로 협업을 해야 함-를 발표했다.



위창완 작가와 방글라데시 몇몇 작가들이 만든 ‘구차람 마을사람들’의 상황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상영되었다.



রাজ বনলে | খেলোঁড়ের কম্প্যাক্ট  
nglanews24.com  
rgest News Agency From Bangladesh

거대 새를 대나무 줄기와 잎으로 만들고 종이를 붙여 만들었다. 만들고 난 후에 이 새를 끌고 다니며 포라파라 거리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워담다. 방글라데시는 구차람 마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리 곳곳에 버려지고 쌓여가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하다.



구차람 마을로 쫓겨난 이들의 원래 삶의 터전인 곳에는 에어포스가 생겼고, 이들은 공항을 통해 드나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차를 팔고 살아간다. 수통하나와 컵과 차를 넣은 가방을 양손에 들고 다닌다. 그들을 위한 아이디어이다. 자전거 뒷바퀴 양날개에 수통과 차, 컵을 넣어둘 수 있는 박스를 걸어둔다. 차를 파는 이가 자전거를 끌고 다니며 차를 팔 수 있게 한 아이디어.



학교를 가거나 혹은 못가는 아이들을 위한 드로잉 워크샵도 진행되었다. 6~7세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터로 나간다.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고철 등을 수집하거나 차를 팔거나 구걸을 하며 집밖으로 내몰린다. 가장 맘이 불편했던 것은 이 곳 치타공은 배의 무덤(?)으로 유명하다. 전국 심지어는 전세계에서 고장난 혹은 수명이 다한 배들이 치타공으로 모인다. 거대한 배들이 모여 있는 모습은 거대한 무덤이다. 이 배들에서 아직 쓸모 있는 부품들을 뜯어낸다. 그런데 이 부품들을 빼어내기 위해선 아이들이 제격이다. 왜냐하면 배의 작은 곳으로 들어가 조그마한 부품들을 빼어내 와야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물속으로 숨을 참고 들어가 부품을 빼어내고 물 밖으로 나오는 광경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영국의 굴뚝청소부가 아이들이였던 것처럼. 아이들이 돈을 벌기위해 세상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세계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드로잉워크샵을 하는 동안에는 잠시 길거리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갔던 아이들도 함께 했다.

구차람 마을에는 한 가구당 6명 혹은 많게는 10명의 식구들이 3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 모여 서는 집들이 많다. 몇몇 가구들을 위한 하우스 리모델링도 진행 되었다.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하얀종이로 벽을 덧대어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하고 걸어둘 수 있는 화분도 만들어 달기도 했다.

여러식구들이 모여서 한 공간에 모여살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공간이 절실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을 위한 시크릿박스를 제작해서 그안에 펜들과 연습장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간 그림들을 넣어주기도 했다.



생리대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이곳 여성들은 천을 오려 생리기간에는 줄로 대충 동여매어 버티고 있었다. 그녀들을 위해 하얀면천과 솜으로 생리대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강가에 면한 마을이고 대나무로 대충 만들어 세운 집들이기에 우기때마다 수해피해가 심각하다. 일본작가들이 그들을 위해 측량하고 레드드레곤 댐을 구상 .

60

### 3.오픈 스튜디오 이후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오픈 스튜디오가 끝나고 방글라데시에 머물 시간도 1주일 여가 남았다.

나는 이곳 방글라데시에 온 1주일 후부터 계속 장염과 설사 고열에 시달렸다. 틈틈이 종세가 좀 덜하다 싶을때는 벽화를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돌아오기 전 일주일은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방글라데시 작가들과 핀란드 작가들과 함께 수도 다카를 돌아보기도 했다.





구차람 마을로 향하는 길 목에-포라파라 지역내에 있는-벽화를 그리다. 구차람 마을에 사는 아이들의 얼굴을 그려넣어 구차람 마을에 이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또한 포라파라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와 오수로 악취가 심각하고 나무가 자라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무를 그려넣어 뿌리 부분에 '깨끗한 물이 필요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달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20일여를 장염과 설사로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이곳에서 만난 방글라데시 지역작가들과 핀란드, 네팔, 일본 작가들이 그립다. 아직도 ‘커뮤니티 아트’가 무언지 정확히 말하자는 못하겠다.

하지만 예술이 가지고 있는 마법성을 믿는다.

예술을 분명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묘성을 지녔다는 것을 그 예술을 하는 사람은 마법사와 같다.

방글라데시에서 나는 내가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었다는 생각보다, 그들이 그들의 있음이 나를 많이 변화시켜놨다는 생각이 든다.

고맙다. 그리고 그립다.

/ 오소영



NYC2

62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 프로젝트 진행 과정 & 내용

이번 프로젝트는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의 포라파라 Porapara Space for Artists 와 핀란드의 MUU Artists' Association의 공동 주최로 기획 되었고 핀란드 외교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참가 첫날부터 빈틈없는 일정으로 많은 작가들이 어려움을 경험했고 지역의 열악한 상하수도 시스템으로 거의 모든 국외 작가들이 풍토병에 시달려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약간의 결벽증이 있는 본인은 다행히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다 왔다. 또한 지역작가들과의 협업과정 문화적, 예술적 견해 차이로 인한 적지 않은 오해와 마찰을 경험해야했다.

본인이 행사에 참가한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 까지였다. 21일 이후의 일정은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민중들의 대규모 시위로 거의 모든 계획이 취소되었다.

이번 Floating Peers는 처음부터 철저히 지역 밀착형 공공예술프로젝트로 기획되고 진행되었다. 구차그램Gucchagram이라는 빈민가의 주민과의 협업 그리고 지역작가와의 공동작업으로 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예술작업으로 구현한다는 유토피안적 의도를 실험하였다.

모두 알다시피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의 하나이고 특히 구차그램 Gucchagram 지역은 그중 최악의 슬럼가이다. 800가구가 좀 넘는 거주민이 생활하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어나 정확한 인구와 가구 수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그곳의 관료주의자들이 이곳의 현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활하수가 흘러나오는 연못에는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사람들은 그 물에서 빨래, 설거지를 하고 몸도 씻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물놀이를 한다. 단지 20% 정도의 가족만이 화장실, 상하수도를 가지고 있다. 학교를 가는 아이들은 30% 정도이고 문명율은 80%가 넘는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은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치타공 국제공항이 건설 될 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곳으로 쫓겨 온 사람들이이다. 치타공에 도착한 첫날 현지 자원봉사 가이드와 지역 답사를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TV에서나 봤지 이렇게 실제로 내가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한 가지 가장 이상한 것은 이 곳 사람들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로 보였다. 실제로 방글라데시는 행복만족도가 세계 1위라고 한다.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구상 없이 도착한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작업 방향을 설정해야할지 그 당시 몰랐으나 이제 생각하면 이미 그 곳에 첫발을 디디는 순간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구심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술작업의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해주는 것이었다.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을 접은 지는 오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5분 55초의 ‘Habitat 서식지’라는 뮤직 비디오 작업이었다. 작업의 시작은 현장답사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만남, 참여작가 프레젠테이션, 워크샵으로 이어 졌고 이러한 과정은 ‘Floating Peers 부유하는 동료들’라는 하나의 큰 주제의 흐름으로 이루어졌다.

열악한 생활환경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람들 대부분은 TV를 소유하고 있고 방글라데시 유흥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유일한 엔터테인먼트이다. 지역 답사중 방문한 초등학교의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거의 모든 학생들은 장래희망이 아이돌 Idol 이라고 하였다.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Habitat 서식지’이라는 영상작업은 이 지역 주민을 주인공으로 만든 뮤직비디오이다. 여기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영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카메라를 들이대면 다들 즐거워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업이 ‘Habitat 서식지’이다. 동영상에 익숙한 우리 또한 영상속의 자신을 또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고 ‘유명인 celebrity’이라는 감정이 입이 생긴다.



음악은 Beatles의 ‘Sgt. Pepper’s Lonely Heart Club Band’ 와 ‘With Little Help from My Friend’ 가 사용 되었다. 가사의 내용은 각상의 밴드 공연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Sgt. Pepper’s Lonely Heart Club Band’ 가 전반부에 사용되었고 어려울 때나 외로울 때 항상 친구의 도움으로 인생을 즐긴다는 내용의 ‘With Little Help from My Friend’ 가 후반부에 나오며 지역의 현실을 소개하는 자막이 영문으로 처리되었다. 영상의 내용은 객관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 지역의 풍경과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그 사람들이다. 아름답게도 추하게도 묘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영상에 담아내고 편집했다.

상영회 전날 포스터와 초대장이 만들어져 지역에 배포 되었다. 결과물의 영상작업은 1차로 야외에서 상영되었고 2차로 지역의 초등학교 실내에서 상영되었다. 1차 상영회장 전기 문제와 영상 음향장비의 문제로 2차 상영회는 예정시간 보다 한 시간 넘게 지체되어 진행 되었거나 교실을 꽉 막은 관람객은 먼 곳에서 온 예술가란 사람이 이 지역을 주제로 한 어떤 영상을 만들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관람객들은 자신이 아는 인물들이 혹은 자신이 영상 속에 등장할 때 환호했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의 생활을 담은 영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Habitat 서식지'는 YOUTUBE, VIMEO, FACEBOOK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 지역의 주민이 처한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분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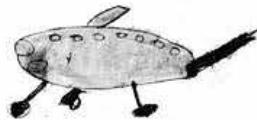
이 작업의 목적은 지역민들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영상속의 주인공이 바로 그 자신들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자막의 내용도 모른 채 그냥 열광했다. ‘한번 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 두 번을 상영하기도 했다. 많은 영상작업을 만들어왔고 발표도 했는데 관객의 호응으로 같은 영상을 두 번 연달아 상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훌륭한 주인공이자 최고의 관객이었다.

/ 위창완

World Premier of

# HABITAT



**Staring  
people of GucchaGram  
Nov. 22nd, 2013  
7 pm  
BRAC School**

অভিনয়ে শুচ্ছ গ্রামের অধিবাসীরা  
২২শে নভেম্বর, ২০১৩  
সল্ক্যা ৭ টো - ব্রাক স্কুল



**organized by  
porapara & MUU**



**Video work by**  
**Chang Wan Wee**  
**Zihan Karim**  
**Hossain Mahmood**  
**Suchayan Paul**  
**Mishuk Ehsan**  
**Sumit Chakraborty**

**info**

+880 1190 742 967

## Habitat 서식지 (치타공, 방글라데시 2013)

After the construction of new Chittagong airport, lots of people lost their land. Wealthy people manage to collect land from different sites. Most of poor people washed away from the airport area to Guchhagram. The area of the Guchhagram is not also their property. Their life is really uncertain because the land is owned by Chittagong port. They are living like floating peers.

치타공 국제공항의 건설 후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잃게 되었다.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차그람이라는 지역으로 쫓겨났다. 이 지역은 치타공 항구 소유의 땅이며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의 미래는 불투명 해졌다. 이들은 마치 부유하는 삶을 살고 있다.

Over 800 family habitants

Principle occupation – daily labor, garments worker

30% children attend elementary school

There are only 2 elementary schools

20% of people have sanitary facilities

Among 17 tubewells & only 1 is appropriate for drinking

No health care center

No maternity / family planning center

Literacy rate 20%

This is the way of Guchhagram people's life

800 이상의 가족 거주지

주 직업 – 일용직, 의류업체 근무

30% 만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등교

지역 내 2개의 초등학교

20%의 가정만이 위생시설(화장실, 상하수도 등..) 보유

17개의 샘물 중 단지 1개의 우물만이 식용으로 가능

보건소 혹은 의료시설 전무

가족계획센터 전무

20%의 식자율

이렇게 사는 것이 구차그람 사람들의 생활이다.



This video work is created by a group of artists from Bangladesh and South Korea to make worldwide awareness of this regional problem. The project(FLOATING PEERS) organized by Porapara Space for Artist of Chittagong, Bangladesh & MUU Artists' Association of Finland. Please give us hand - [www.porapara.org](http://www.porapara.org)

이 영상은 지역의 문제점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방글라데시와 한국의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치타공의 Porapara와 핀란드의 MUU에 의해서 기획되었다. 이 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Video work by

Chang Wan Wee, Zihan Karim, Suchayan Paul, Hossain Mahmood, Mishuk Ehsan, Sumit Chakrabarty

제작

위창완, 지한 카림, 슈차얀 파울, 후세인 마무드, 미숙 이산, 슈미트 채크라바티

## <프로젝트 일정>

2013.11.08	2013.11.15
해외작가 입국	오전 - 쇼핑, 현장답사
2013.11.09	2013.11.16~19
오전 - 현장답사 저녁 - 지역유지와의 만남	4일간 현장작업
2013.11.10	2013.11.20
오전 - 기자회견 준비 정오 - 기자회견 장 출발 오후 - 기자회견 저녁 - 치타공 실파카라 아카데미 방문	오픈 스튜디오, 피크닉
2013.11.11	2013.11.21
오전 - 개인발표 오후 - 현장답사 저녁 - 개인발표	치타공 대학 프레젠테이션
2013.11.12	2013.11.22
종일 - 오픈 디스커션	다카로 이동
2013.11.13	2013.11.23
오픈 디스커션 현장답사 저녁 - 오픈 디스커션	다카 실파카라 아카데미 프레젠테이션
2013.11.14	2013.11.24
오전 - 개인 프로젝트 발표, 협력작가 공동작업 방향 모색 오후 - 현장답사 저녁 - 프로젝트 세부 계획	관광, 다카 작가와의 만남
	2013.11.25
	출국



\*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Research

네||팔|| Nepal



73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프로젝트 명:

<CAFE IN ASIA: Contemporary Culture & Art For Everyone In Asia Community> Appointment sheet with Nepali Contemporary Art research

장소: 네팔 멜람치기옹

기간: 2013.09.23 ~ 2013.10.14

리서처: 김월식





## 멜람치가웅 지역 커뮤니티 센터 설립을 위한 네트워크

75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멜람치가웅 Melamchighyang은 히말라야의 3대 트레킹 지역 중 하나인 탕탕 헬럼부 지역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이다. 해발 26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략 100여가구 500명 정도의 커뮤니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멜람지가웅 학교는 탕탕지역에서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시설과 좋은 선생님들을 갖고 있다.

총 2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10학년까지 운영 중이다. 15명의 선생님과 기숙사를 갖추고 있는데, 학교의 시스템이 좋아 인근 지역의 학생들까지 이 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기숙사를 설립하였고 150명의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다. 특히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푸르나 비하두어 Purna Bihadur는 30년 동안 학교를 네팔 최고의 학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사진은 멜람지가웅 지역 커뮤니티센터 설립 부지로 10월 말 착공 예정 2014년 3월 완공 예정이다.



멜람지가옹 학교 교사 워크숍은 몸놀이를 통한 감성만들기로 시작되었다. 남자선생님이 대부분인 멜람지가옹 학교는 단체로 몸놀이를 하는 것에 어색해했으나 곧 적응하여 워크숍 자체를 즐기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조각의 개념을 접근하기 위한 조각가, 조각되기와 관찰과 사고의 속도를 바꾸기 위한 전기게임



사유과 관찰의 다양한 접근을 위한 촉각적으로 관찰 후 표현하기



다양한 속도로 드로잉하기, 종이 캐스팅을 통한 조각만들기, 워크숍 내용의 피드백과 공유



77

워크숍을 끝내고 카트만두로 떠나기 직전 멜람지가옹 교장 선생님 가족들과 함께 한 사진,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멜람지가옹 Melamchighyang 에 설립예정인 지역커뮤니티 센터는 총 20명의 NGO, 예술가, 학자등이 네팔과 한국의 문화예술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600평의 대지에 지어질 커뮤니티 공간은 한국과 네팔 지역의 문화를 연결하는 현지 허브로 사용될 계획이다. 이 모든 계획의 첫번째 관계형성이 멜람지가옹 학교선생님들의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으로 총 3 일 동안 진행되었고, 한국작가 4명, 활동가 2명, 현지 코디네이터 1명과 멜람지가옹 선생님 15명, 인근 학교 교사 6명이 참여하였다. 네팔 교사들은 대부분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의 작가들과 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역할, 삶과의 연계성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사례를 연구하는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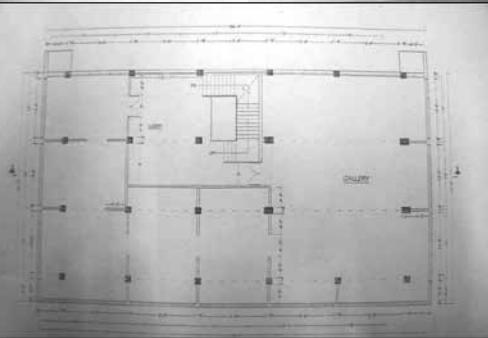
네팔에서는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하얀색 머플러인 가따를 둘러 준다. 멜람지가옹은 일 년에 2달을 제외하고는 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고산 지형으로 최근 잦은비 때문에 그나마 있던 도로가 유실되어 장장 10시간이 넘는 길을 도보로 차 있는 곳까지 이동해야 했다.



전시장 내부 풍경과 전시장 도면, 전기시설의 문제 때문에 미디어 작업을 전시할 경우 발전기를 대여하여 작가가 직접 기계장치에 전기를 연결해야 한다.

78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 Nepal Art Council-네팔 아트 콘실

네팔 아트 콘실은 네팔 내에서 가장 큰 전시공간으로 3개 층에 약 300평 정도의 전시실이 있다. 전기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벽과 지붕에 최대한 일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을 많이 만들어놓은 것이 특징이나 역광 때문에 오히려 그림을 관람하기 어렵기도 하다. 특이한 점은 100%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 멤버들이 50%의 예산을 함께 충당하고 있는 점이다. 그 때문에 설립 멤버들의 견해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공간 사용에 대한 질문에 Ministry of Culture 나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공문서를 한 달 전까지 전달하면 가능하다고 했지만 하루 사용료 100US 달러를 요구한다. 실제 네팔 작가들이 내는 대관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래 사진에서 맨 우측에 앉아 있는 인물이 네팔 아트 콘실의 최초 설립 보드멤버인 하리 카카드 Hari Khadka이다. 직위는 operator라고 하는데 직접 하는 일을 물어보니 실질적으로 큐레이팅의 역할과 전시 전반에 관한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예술가 출신으로 네팔 동시대 예술계의 1세대 작가 출신의 실무자이다. 한국 광주에 3개월 정도 체류한 적이 있으나 연결 통로는 문화교류전의 성격을 갖는 아시아문화교류재단, 한국에 대한 관심과 교류에도 적극 적인 반응이였으나 대관의 절차와 예산에 대한 절차는 매우 불투명하게 이야기 했다. 이 후에 알게된 사실은 아트 콘실을 관장하는 상위 기관이 NAFA이며 NAFA를 통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80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현재, 이탈리아 작가의 개인전 중이다.





상기타 타파 Sangita Thapa는 매우 친절하고 스마트한 느낌으로 영향력에 비해 매우 겸손한 태도를 갖추어서 파트너십을 맺으면 일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좋은 협력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다.

## Siddhartha Foundation

81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싯다르타 파운데이션 Siddhartha Foundation은 27년 역사의 네팔 유일의 ART Foundation으로 역시 네팔 유일의 국제전 규모의 전시를 기획운영한 적이 있는 기관이다. 2012년 40개국 98명이 참여한 KIAF (Kathmandu International Art Festival)가 개최 되었으며, 27년동안 400여회의 전시를 기획했다. 설립자인 상기타 타파 Sangita Thapa는 현재 가장 영향력있는 정당 대표의 며느리이며 왕족이다. 두 개의 지역에서 갤러리를 운영중이며 아트 콘서트의 맴버이기도 하고,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공부한 네팔 내부의 문화계 외교통이다. 네팔 작가들이 가장 전시하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하는 만큼 실제적으로 Sangita Thapa의 미술계 영향력은 NAFA 장관인 키란 마난다르 Kiran Manandhar와 함께 절대적으로 보인다. 세련된 감각으로 매우 사교적이며 한국과의 교류전시에도 관심이 많다.



82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 NAFA -Nepal Academy of Fine Arts

NAFA Nepal Academy of Fine Arts는 한국의 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부 사이 정도의 정부 기관이다.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각종 미술정책을 만들고 반영하는 일을 한다. 특이한 것은 미술 분야만 분리되어 있는데 산하에 6개의 미술 분과가 있다. 동시대 예술과 전통영역을 구분해서 회화와 조소, 건축, 전통공예, 전통회화 전통 조소의 수장이 따로 있다. 지원 예산 정도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산이랄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정도로 현재 네팔의 경제 상황을 짐작해보면 정부기관의 지원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이다. 현재 중국과의 정기 교류전을 NAFA에서 기획했으며 매년 몇 명의 작가들을 교환하여 웹지던서를 운영한다. 한국과도 정부 차원에서의 교류를 기대하는데 NAFA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진행하면 시니어 작가 위주의 교류전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NAFA Nepal Academy of Fine Arts 내부의 전시장으로 약 100여평 규모이다. 출입구가 매우 작아 큰 작업을 운반하는데 지장이 많아 보인다. 이곳에 네팔 원로 작가 30여 명의 스튜디오가 함께 운영 중인데, 실제 문을 열어둔 곳은 없고 모두 개인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어 공간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미술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젊은 작가들에게는 이 공간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NAFA Nepal Academy of Fine Arts의 Chancellor인 Kiran Manandhar를 그의 개인 스튜디오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미술계의 행정 수장인 만큼 정치적인 고려때문에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19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학하며 작업하였고 NAFA를 왕의 업무에서 분리시켜 독립적인 정부 기관으로 조직한 장본인이다. 네팔에서는 일반인들도 알아보는 미술인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다.

83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NAFA Nepal Academy of Fine Arts의 Chancellor인 Kiran Manandhar의 집무실과 스튜디오는 NAFA와 수암부나트(네팔 최고의 불교 사원) 근처의 UP Town에 자리잡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와 정부 간 미술교류 프로그램에 조약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중국 작가들의 전시가 NAFA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Lalit Kala Campus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트리뷴반국립대학 소속의 미술대학으로 8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네팔 유일의 국립미술대학이다.

우리의 남대문 시장에 해당되는 어싼 바자르의 끝에 학교가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음악학부와 미술학부로 나누어져 있고 미술학부는 전공 구분없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있고 3년 6학기를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대부분의 네팔 미술인들이 이 학교 출신으로 네팔 미술계 학맥의 중심에 있다. 커리큘럼은 기초적인 소묘와 유팽 소조 캐스팅 판화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전기 사정이 좋지 않고 시설이 낙후되어 학교에서 실습하기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불안전한 네팔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자주 수업이 없어지거나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학장 한 명 만이 정부에서 고용된 임기가 보장된 정년직 선생이고 나머지는 시간제 강사인데 몇십 년씩 강사로만 있는 선생들이 많다. 교수들은 대부분 너리꺼라대학 졸업 후 인근 국가인 인도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미술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온 경력들을 갖고 있다. 특이하게도 조소를 담당하는 강사 한 명이 러시아에서 수학했으며 대부분의 작업들이 모더니즘 시기를 넘어서지 못한 채로 네팔의 종교적인 철학관과 함께 표현되고 있어서 다양성의 측면이 부족해 보인다. 학비가 매우



2학년 인체소묘 수업시간 참관. 1학년과 2학년 때는 소묘위주의 모델링 수업이 대부분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누드 드로잉과 같은 수업은 진행하지 않지만, 모델의 태도에서는 전문성이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저렴해서 사립미술대학과의 학비 차이가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립미술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공통 실기실 외 학교 내부에는 따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진행할 만한 공간이 없다. 조그만 사무실에 테이블 없이 둘러앉아서 회의를 한다. 학교나 선생님들의 교육관에 대한 의욕이 부족해 보인다. 실제 학교 강의만으로는 카트만두에서 생활하는 것 조차 힘이 들어 선생들 대부분이 상업적인 상점같은 개인 갤러리를 운영하기도 한다. 학장이하 선생들은 외부와의 교류와 동시대 예술의 다양한 접근방식에 대한 정보가 없고 심지어 학생들의 외부 활동에 부정적인 편이다. 상업적인 작품과 그 판매 방식도 한국의 삼각지 상업화랑 방식과 유사한 편이며 아트 비즈니스 관련 경험도 거의 전무한 편이다. 허울좋게 이름만 국립미술대학이다.



트리뷰반국립대학 소속의 미술대학 – 교수 별 연구실은 없고 중고등학교처럼 교무실에 교수들이 모여있다.



## Bijeshwori Collage of Fine Art 비제수워리 예술고교

Bijeshwori Collage of Fine Art 비제수워리 예술고교는 네팔 유일의 예술고등학교이다. 설립 3년차인 이 학교는 대학수능검정 자격을 취득한 10학년 이후의 학생들이 2년간 수학하는 학교이다. 네팔은 10학년을 마치고 대학수능검정시험을 치른다. 그러고는 2학년을 더 다니고 12학년이 되면 대학에 지원할 자격을 갖는다. 특별히 사설학원이 없는 네팔은 미술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독학이나 개인레슨을 주로 받는데 대학입학을 위해 실기중심의 예술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Bijeshwori Collage of Fine Art가 유일하다. 설립자인 Bipin Shrestha는 현재 Program Coordinator라는 직위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원래 전공이 비즈니스 관련이었고 업무에 능통한 이유다. 학교에 대한 긍지심과 애착이 높고 학생들의 성취욕이 높은 전형적인 사립예술고등학교 분이기이다.



## Srijana collage of fine arts 시리자나 미술대학

시리자나 미술대학은 비교적 시설이 안정되어 있고 여유공간이 있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실기실을 활용해서 작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Bijeshwori Collage of Fine Art 비제수워리 예술고교는 일반 미술대학의 파운데이션 코스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네팔내의 여러 공모전에 많은 수상자를 내고 있다.





M CUBE의 프로그램인 CHAKTI GUFF에 참가중인 작가. CHAKTI GUFF는 네팔어로 방석위의 수다를 뜻한다. CHAKTI GUFF는 초청 예술가가 벽위에 마련된 방석에 싸인을 신호로 시작된다.

88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 M CUBE 대안공간 엠 큐브

89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M CUBE 대안공간 엠 큐브는 디렉터인 Manish Lal Shrestha가 호주 민간 파운데이션의 후원을 받아 설립한 네팔 동시대 예술의 가장 활발한 예술공간이다. 전시실과 세미나실, 게스트 하우스와 작업실등이 한 공간에 모두 위치해 있어서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Manish Lal Shrestha는 미국과 호주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M CUBE에 레지던시 프로그램, 전시 프로그램, 워크숍 및 작가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네팔 내에서 상업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평가를 받는 Manish Lal Shrestha는 젊은 작가 양성 프로그램도 관심을 갖고 네팔 내부의 청년 예술가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첫 방문 후 스크리닝에 초청받아서 작가들의 워크숍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자리

90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 Bindu Space 대안공간 빈두 스페이스

Bindu Space 대안공간 빈두 스페이스는 게스트 하우스와 디렉터의 작업실, 다용도 워크숍 품을 보유한 프로그램형 대안공간이다. 전시보다는 주로 작가들의 워크숍과 교육, 테지던시 프로그램에 치중한다. 청년 예술가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 중 하나이며 디렉터인 Prithivi Shrestha는 한국 테지던시 프로그램에도 참가했던 예술가이다. 대부분의 네팔 대안공간이 그렇듯이 열악한 시설에 비해 많은 작가들이 모여 네팔 예술계에 대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사랑방 같은 역할의 공간이다. 인근 아시아 대안공간과의 네트워크가 좋아 서로 작가들을 교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방문 당시 마침 한국에도 잘 알려진 방글라데시의 파타포라에서 작가들이 테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 중이었으며, 방글라데시 작가, 랍비가 미디어 아트에 취약한 네팔 예술가들에게 미디어 워크숍을 진행 중이었다.



디렉터인 히앙구릉은 불안한 네팔의 정치와 경제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 문제의식을 젊은 예술가들과 연대하여 삶에 대한 예술의 고민으로 확장시킨다.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성 또한 고민 중이다.

92

## Artree Nepal 대안공간 아트리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Artree Nepal 대안공간 아트리는 3인의 아티스트가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형 대안공간으로 히 구릉양 Hitman Gurung이 디렉터이다. 널리미라 미술대학 졸업 후 작업실과 지속적인 작업에 대하여 고민하는 후배들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가장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으며 네팔 내부의 사회적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공간이다. 두 개의 워크숍 룸에서 다양한 작가들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화와 벽화 등 스튜디오 밖에서의 작업을 편집하거나 디자인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네팔 기관 · 대안공간 DB>

	방문기관, 단체	담당자	소속 및 직함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1	<b>NAFA</b> Nepal Acasemy of Fine Arts 네팔의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	Kiran Manandhar	Chancellor	office 4421206 Mobile 9851061109	kirannafa2010@gmail.com
2	<b>Siddhartha Arts Foundation</b> 27년 역사, 네팔 유일의 국제전 기획 경험의 기관	Sangita Thapa	Founder Chairperson	4218048	sthapa@mos.com www.siddharthagallery.com
3	<b>Nepal Art Council</b> NAFA소속의 문화예술위원회	Hari Khadka	Bord Member,		nepalartcouncil@yahoo.com
4	<b>Lalit kala campus</b> 국립미술대학	Bipin Ghimire	campus chief	9818796460	
5	<b>Srijana collage of fine arts</b> 시리자나 미술대학	Krishna Manan dhar	campus chief	9851063958	Srijanaart@infoclub.np
6	<b>Kathmandu University</b> 카트만두 미술대학	Kriti Kausal Joshi	Program coordinator	9841858426	www.kuart.edu.np
7	<b>Kathmandu University</b> 카트만두 미술대학	Sagar Manandhar	lecturer	9841478945	sagar@kuart.edu.np
8	<b>Bijeshwori collage of fine arts</b> 비제수워리 예술고등학교	Bipin Shrestha	Program coordinator 설립자	9841368811	www.bhss-aic.np
9	<b>Kastamandap studio</b> 대안공간	Asha Dangol	Director	9841211297	Bipin4va@gmail.com
10	<b>Artree Nepal</b> 대안공간	Hitman Gurung	Director	9803983325	www.gurunghitman.com.np
11	<b>Bindu space</b> 대안공간 (레지던시 운영)	Prithivi Shrestha	founder	9841379338	earth2s@hotmail.com
12	<b>Space A</b> 대안공간 국립창동 아시아퍼시픽 입주작가2012	Jupiter Pradhan	Director	9813650735	jupy100@hotmail.com
13	<b>Saroj Baj</b>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과정 인턴 연구원 6개월	Saroj Baj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과정 인턴 연구원 6개월	비평가 독립큐레이터	9803187655	
14	<b>M CUBE</b>	Manish Lal Shrestha	Director	00977 15260110	www.gallerymcube.com
15	<b>Artudio</b>	Kaliash k Sherestha	Director		www.facebook.com/artudio.nepal





\*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Research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97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프로젝트 명:

<연접지점>

장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기간:      2013.11.29 ~ 2013.12.21

리서처:      한지혜+정재민



## 고래의 울음처럼...

여기서 지구 반대편의 울음을 들을 수 있는 고래처럼 한국에서, 중앙아시아에서의 우리의 울림을 서로의 마음이 알 수 있기를...

우린 먼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고 거리의 속도와 수치가 아닌 마음의 깊이로 지구의 소리를,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래와 같은 촉감을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 민족을 나누고 국가를 나눔으로써 공기를 진동시키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는 그 진동을 느낀다. 우리 안에 있는 서로의 감동을 안고 이 글을 써내려간다. 아픈 역사, 힘든 삶,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겪었을 그 격동의 시기, 그 시기의 흐름을 엮어보지 못하고 책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 굳이 아픈 역사를 초점으로 민족을 초점으로 보려하지 않는다. 반가운 친구를 만나는 느낌으로, 그들의 예술의 열정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지나온 역사를 서운한 마음으로 담담하게 나누길 바랐다. 우리가 함께 만나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우리는 처음 만나자마자 너무나 반가웠다. 우리의 리서치는 2013년 7월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화협회의 박박토르 회장과 박세르게이 부회장과의

전화통화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시작되었다. 우리는 3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문화협회를 통해 고려인 예술가와 FRIENDS ASIA를 통해 이크와 시온고의 고려인 마을, 또 조선문화전통 노인협회를 방문했다. 이 글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들을 통해 만난 타슈켄트의 고려인과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것이다. 하여 절대 다수의 고려인 실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염두 해 두길 바란다.

## 1. 고려인과의 만남

농사를 짓기 위해 탐관오리의 부패를 피해 연해주로 이주했다. 그들에게 그곳은 원래 그들의 땅이었다. 선조인 고려와 고구려인들의 땅 그리고 고조선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고려인’이라 칭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 그 곳에서, 그 땅의 주인으로써 또한 조선인으로써의 주체성을 갖고 일본 제국주의에 강력히 대항하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그들은 온 몸의 피를 다 뽑아내듯 그렇게 대륙의 벌판에 부는 바람을 온 몸으로 서서 견뎌낸 것이다. 1930년대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으로 인해 연해주에 거주하던 많은 조선인들은 전혀 연고도 없고, 기반도 없는 중앙아시아 한복판에 내팽겨져 버려진다. 조국으로부터는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던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현지에서 열심히 일했고, 소련의 정책에 의해 결국 모국어를 잊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금지된 채 살아가야만 했다. 두 달여 간을 달려 갈대만이 무성한 황량한 낯선 대륙에 도착해 그들은 굵은 갈대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벼농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첫 수확한 벼로 밥을 짜어 먹었고, 민족적 모국인 한국(조선)의 삶을 이어가며 ‘고려인’이 되었다. 그렇게 150년이 지났다. 시대에 저항하며 또는 순응도 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모른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은 ‘고려인’이란 단어조차 생소하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들은 ‘역사의 미아’가 되어버렸다.

100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시베리아의 광활한 대륙만큼이나 손에 잡히지 않는 우리의 지난 역사가 중앙아시아에 있다.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동포와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그들의 역사와 삶을 들여다보려 노력했다. 우리는 탐사를 통해 4~5세대에 걸쳐 변화된 동포들의 지난 세월과 현재의 모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삶’이란 종합적 경험을 포착하기를 바랐다. 또한 강력한 국가주의의 삶에서 이주형태의 삶의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150여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융합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FRIENDS ASIA를 통해서 김병화 꼴호즈(집단농장)과 이크, 시온고 마을을 방문했다. 고려인들이 이곳으로 강제 이주 당한 것은 1937년 9월부터 12월사이었다. 스탈린은 고려인들이 일본인들과 합세하여 러시아인들에게 대항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강제이주를 결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연해주를 옥토로 바꾸어 놓은 조선인들을 이동시켜 중앙아시아를 식량생산의 기지로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곳에 고려인들이 이주한 이후 쌀 생산이 시작되었고 목화 재배가 이루어졌다.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주 중치르치구역에 자리리를 잡은 <북극성>농장의 농업개척의 역사는 1940년 김병화가 농장 대표로 선출되며 시작되었다. 농지대를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한 <북극성>농장은 2차 대전기에는 밀 867톤과 목화 163톤을 수확해 내고, 전투기 생산에 221만 1천 투불을 기증하기도 했다. 1941~45년 기간에는 1,080헥타르의 토지를 개척해 내었고, 목화와 벼 파종 면적을 약 10배까지 증가시켰다. 1946~50년 시기에는 1헥타르당 4~5톤의 쌀을, 일부 작업반들은 8톤까지 생산해 내었다. 그 결과 1948년에는 <북극성>농장에 대한 소식이 중앙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1950년대 들어 <북극성>농장은 재정적으로 빙곤한 타민족 농장들과 통합되며 다민족 대형 복합농장으로 개편되었다.

김병화 꿀호즈를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고려인의 근면성과 구 소비에트 체제에 잘 적응해 나가는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비단 김병화 꿀호즈만의 이야기는 아니리라. 지금은 한국의 70년대와 비슷한 풍경을 지니고 있고 많은 이가 도시로 떠나 조금은 스산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김병화의 동상은 과거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

이크에 위치한 ‘이크 IT교육관 및 마을회관’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천지꽃 노인합창단’이 있다. 이 합창단은 20년 전 삼삼오오 모여 모국 노래를 부르던 것으로 시작해 지금은 한국에서 공연도 했고, 이 즐거운 공동체에 관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관심이 크다. 일주일에 두 번 학생들이 한국어 및 컴퓨터 공부하기 이전에 합창단원들은 무척이나 열심히 노래를 하고 또 한다. 시온고 마을은 이크처럼 활동적이지는 않지만 마작과 같은 놀이를 하며 고려인 공동체를 유지해가고 있다. 이크와 시온고의 고려인들은 꽤 즐겁게 살고 있는 듯하다. 옛 향수를 간직하며, 손님을 온몸으로 반갑게 맞이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옛 영광이 있었다. 옛 영광이 있는 자는 그 기억으로 사는 듯 했다. 그것이 그들에게 정체성의 끈을 이어주고 있는 느낌이다.

정체성. 그것은 무엇이기에 그리도 찾으려 하고 간직하려 애쓰는가?

1937년 강제이주 후 중앙아시아에는 고려인 8세대, 9세대까지 이어졌다. 1~2세대는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고, 3~4세대 그들도 이미 60대로 들어섰다. 3~4세대 고려인 일부(네)가 만난 고려인의 의견이 절대 다수의 의견인지는 겹증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구 소비에트시절 교육과 기초생활(의식주)의 혜택을 받았고, 그들의 부모는 교육을 시키려 열성적인 태도를 취했으리라. 그런 그들은 (3~4세대 고려인)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강제이주의 역사를 전해 들었을 것이다. 한국의 일제 강점기 이후, 6.25 전후의 실정 비교했을 때 구 소비에트의 경제적 상황은 훨씬 좋았음이 틀림없다. 이 체제에 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었다. 소비에트 사회에 잘 적응해 가며 살아온 이들에게는 88올림픽 이전까지 모국이라는 개념이 무의미 했다. 그들은 지금도 구 소비에트시절을 그리워하고 있고, 러시아 음악과 문화에 취해있다. 이런 환경에서 3~4세대 고려인들에게 구전으로 전해들은 강제이주의 역사는 어느 정도 왜곡될 수도 있겠다. 그들에게 강제이주는 그냥 이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강제이주가 아니었고, 이주 당시 한국에 알려진 것처럼 이주 열차에서 많이 죽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주 후에도 놓고 온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잘 살아왔다는 자존심을 내게 피력했다. 허나 그건 약간의 자본의 보상일 뿐, 사는 곳에서 떠나야만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강제이주리라. 많은 1~2세대의 뼈아픈 증언 또한 거짓이 아니리라. 강제이주는 1, 2세대에게는 아픈 사실의 역사로, 3~4세에게는 일부 왜곡된 역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삶이 만들어내는 정신과 가치, 체제, 이데올로기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정신(사고)을 얻었을까? 그 이후의 고려인들, 젊은 고려인들에게는 민족적 정체성은 더욱 희박하다. 그들은 이미 체제가 무너진 후에 태어났고, 그곳이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상관없이 처음부터 자본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들에게는 자본이 곧 정체성일 수도 있겠다. 한국말을 거의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국어 붐이 일었다. 타슈켄트 세종한글학교가 그것을 입증해주는데, 그것은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라기 보단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그것과 같은 이유이다. 고려인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젊은 사람 70%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번다. 그중 20% 정도만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 외는 돌아올 의지도 없다고 한다. 민족적 정체성은 자본에 의해 흔들리고 바뀐다. 자본이란 것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양성하고 그것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남과 북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사람들이 사는 나라, 아직도 여전한 구 소비에트의 그림자, 130여개의 민족,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기나긴 독재정부 학의 경찰국가, 고려인이라는 민족적 뿌리를 갖고 정신적인 균연은 러시아이며 지역적 모국은 우즈베키스탄의 국민인 우즈베키스탄어를 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속의 모국이 어디인지 혼돈스러운 그들은 어디로 갈까? 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영광을 가슴에 품을까?

102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150년의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기 충분했다. 몇 세대를 걸쳐 언어구조가 달라지며 서로의 말을 배우지 못하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러시아어로 형성된 사고를 진행시키는 것은 한국어로 생각을 이끄는 우리와 분명 다를 것이다. 민족의 혼혈과 정체성의 혼란, 가치체계의 다름 등 요즘 그 어느 세상도 같겠지만 정체성보단 경제적 요건에 몸과 마음을 더 소비하고 있다. 미처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할 겨를 없이 그렇게 서로가 바쁜 시간 속에 훌륭훌륭 살아왔다. 우리사이에는 넓은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다. 우린 우리의 시간대로, 그들은 그들의 시간대로 고통을 견뎌왔다. 플라타너스 나뭇잎이 말라, 바닥으로 떨어진다. 사람이 볼지 않으면 제 영역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커다란 잎은 땅이 보이지 않게 층을 이루고, 비로소 나뭇가지는 제 몸통을 여실히 드러낸다. 타슈켄트의 거울 풍경 하나가 드러나면 하나는 가려진다. 풍경이다. 역사의 풍경, 멀리서 감상한다. 얘기를 나누며 다가간다.

## 2. 고려인, 한국인, 남한과 북한

고려인에게 모국은 남한과 북한의 나뉘진 국가가 아니라 통일된 국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남한, 북한 모두 그들에게 모국이란 뜻이다. 하여 이들은 남한도 북한도 선택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다. 이런 이들의 부러운 특별한 상황을 보려 우즈베키스탄까지 날라 왔건만 일정 4일째 통일안보강연(

교육)을 타슈켄트에서 들었다. 한국 대사관 주체로 열린 자리인 것 같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박근혜 정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우즈베키스탄 지회–’, 비싸 보이는 회관을 빌리고 외교부에 근무하시는 듯한 분들이 입구에서부터 인사를 한다. 애국가를 제창하고 국가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연평도, NLL영상으로 안보교육의 물고를 텸다. 몇몇 주요인사로 보이는 사람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사마르칸트지구 고려인 문화협회 회장이 단상에 나와서 축사를 건넨다. “불쌍한 북조선 동포를 위해 견배를 듭시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분위기에 맞지 않게 북조선 얘기를 한다고 조소에 가까운 웃음을 보냈다.

신뢰프로세스 검증을 통해 벽돌을 쌓듯이 만들어가는 것이 신뢰라고 강연자는 말한다. 신뢰(信賴)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타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가 나의 존재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나 자신의 확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편에 서서 검증을 하고 걸려낸다는 것이 신뢰란 한다면, 그것은 신뢰라는 말로 포장된 거대하고 강력한 경계가 아닐까? 합일(合一)될 수 없는 경계. 정치는 우리의 동포의 한쪽 눈을 가리고 우경화로 만들 수도 있겠다. 남한, 북한이 갈라져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한 우리들에게 남북한 정부는 정치인들은 또다시 이들에게 우리에게 편 가르기를 시도하며 마음의 이주를 강요한다.

빡빡한 일정으로 ‘조선문화전통 노인협회’에 일정 막바지에 방문했다. 젊은이들은 돈 벌러 타국에 많이 나가있어 주로 60대 이상 노인이 그 주를 이루고 있으나, 어린 아이부터 젊은이까지 500명 이상 회원이 있는 큰 단체이다. 이 단체는 매년 4월 평양에서 열리는 봄축전에 참가한다. 한국에서는 공연하지 않느냐는 우문에 “한국에서는 불러주지 않는다.” 라는 현답을 전한다.

들어서는 입구 위 간판에 조선(朝鮮)이라는 글자가 꽤나 낯설다.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이 걸려있는 복도를 지나 사무실로 들어갔다. 조선 노동당 글자가 눈에 띈다. 의식적으로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순간 왜 조선(朝鮮)이라는 단어, 한국(韓國)이라는 단어가 낯설어야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우리의 흘러간 시간은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가? 조선문화전통 노인협회의 주영일 선생이 말한다. “우리 민족이 참 어지러워 서운하다.” 라고

마침 2014년 축전에 참가하고자 열심히 춤 연습이신 60대 이상 노인들의 발 동작이 가볍고 활기차다. 그 움직임은 절대 노인이락 할 수 없으리라. 이들의 발 동작으로 우리는 함께 함박웃음을 지었다. 그중 한국말을 꽤 잘하는 사람이 3년 전 모스크바에서 한국인과 같이 일했는데 그때 즐겁게 일해서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다고 얘기한다. 이들에게는 남쪽도 북쪽도 고향은 아니지만 남쪽도 북쪽도 반가운 동포이다.

남측과 가까운 고려인문화예술협회와 북측과 가까운 조선문화전통 노인협회는 서로 왕래하며 지내지만 가깝지 않은 서먹한 느낌이 든다. 이들에게는 하나의 모국이지만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의 권력이 이들을 서먹하게 만든 것 같다. 나는 바란다! 국가와 정치가 서로 반가운 우리들을 갈라놓지 말기를. 또한 정치적 장벽 없이 우리의 가슴의 울림만을 듣기를 말이다.

### 3. 고려인 예술가

‘고려인문화협회’ 협회장 박빅토르를 통해 예술가를 만났다. 15명의 예술가가 참여했고 우리는 간단한 워크숍을 가졌다. 모인 사람들의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높았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타국에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 즉 고려인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통해 고려인 역사와 그 삶의 모습을 봄과 동시에 여러 가지 고류할 수 있는 꼭지를 찾아보려 함을 알리며, 그들의 작품활동 전반을 알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집을 전해주며 부산하지만 일괄적으로 방문일정을 잡았다. 이후 매일 그들의 작업실을 방문해가며 그들의 작품활동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김블라디미르 소설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우리와 매일 동행하며 통역 역할까지 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난 예술가들은 대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이었다. 몇 장에 걸쳐져 있는 그들의 이력과 수상경력이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 이들 대부분은 아뜰리에를 갖고 있었고 각각의 아뜰리에는 작가의 성향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아뜰리에를 가득채운 작품의 양에 놀랐고, 그들의 열정에 또 한 번 놀랐다. 그들은 약간의 설렘을 갖고 작품을 보여줬고, 음식을 만들며 매번 우리를 환대했다.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상당히 친해질 수 있었는데 그것은 우선 예술이라는 매개체와 민족적 동질성 때문이리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보드카이다.

우리의 만남은 매번 비슷한 주제로 이어졌다. 그 중 하나는 이들의 작품활동이 매우 열정적이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나의 게으름을 책망하게 해 주었다. 또 하나는 대부분 유화로 작업을 하고 정물과 풍경위주의 그림을 그리는 대체적으로 작품성향이 상당히 아카데믹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작품의 다양성이 풍부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술학교 시스템이 아카데믹한 도제식 수업이 전반을 이루고, 폐쇄적인 사회주의 안에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세계 여러 작품들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평론가와 이론가가 없고 그런 얘기를 나눌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안빅토르는 사실위주의 사진을 찍다가 얼마 전부터 약간 개념적인 사진을 만들어 내는 것에 흥미를 불였다고 한다. 그 사진들을 전시했을 때 일각에서는 ‘저것은 사진이 아니다!’, ‘이단이다!’ 라며 반색을 표했다고 한다. 이 일화가 우즈베키스탄의 예술실정을 잘 말해주는 듯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예술가들은 타국의 작가와 작품들 그리고 많은 다양한 현대미술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예술적 교류에 대한 갈망이 컸다. 우리가 그들의 갈망을 채워줄 메신저라고 했고, 이 말은 나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주었다. 하지만 차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속고하고 노력한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4. 에필로그 – 우즈베키스탄이란 나라는

2013년 11월 29일 저녁에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했다. 우리는 고려인 친구 김 나타샤의 집에 기거하기로 했고, 마침 나타샤도 같은 날 다른 비행기로 도착한다.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가 한 시간 가량 먼저 도착했기에 우리는 나타샤를 기다려야 했다. 8시 45분 비행기로 도착한 나타샤를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2시간 10분이나 기다려서 밤 10시 55분에 만났다. 김 나타샤 집으로 향하는 길은 매캐한 공기,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쌍인 메마른 플라타너스 나뭇잎으로 가득했다. 가로등이 거의 없는 험험한 주위를 걷기 위해 포장된지 오래되어 거의 흙길과 매 한가지인 길은 낯선 이의 걸음걸이를 한층 어렵게 했다. 하지만 이 낯선 곳이 가져다 줄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은 이 조차도 정겨워보였다. 나타샤가 한 아름 옷, 신발, 화장품, 약, 과자 등을 펼쳐놓았다. 보부상이 갖고 다니는 그것만큼이나 여러 종류의 물건과 그 양에 놀랐다. 현지인(이루시아, 네르기사, 이락우락 할머니)은 뛸 듯이 좋아했고 연신 나타샤의 볼에 키스를 하며 스바씨바(고맙습니다)를 말했다. 흥분에 싹여 정신없이 물건을 구경하던 중 예고도 없이 정전이 됐다. 언제 켜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촛불 두 개를 켜 놓고 물건 구경하기에 여념이 없다.

아침 7시 전부터 사람들은 먼지를 풀풀 날리며 낙엽을 긁어모은다.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도시 곳곳의 사람들은 나뭇잎을 긁어모으고 곳곳에서 태운다. 도로 한복판에서도 낙엽을 태우는 광경이 이채롭다. 매캐한 공기로 인해 기침은 멈추지가 않는다.

환전을 하러 BOZORI(시장)에 들렀다. 여행자가 그렇듯 모든 것이 특별해보여 비디오카메라를 돌린다. 큰 덩치의 시장 상인들이 저지를 한다. 비디오 촬영 금지다.

곳곳에 은행이 많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계좌가 없다. 한국에 일 하러 온 고려인 동포는 western union으로 계좌 없이 송금한다. 평균 소득은 150~200달러 정도이고 400 달러가 넘으면 국가에서 가져간다. 외국 기업의 상황도 비슷하다. 소득의 반은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환전은 은행보다 시장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 이 곳이 처음인 이 이방인도 그것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많은 은행은 어떤 필요에 의해 세워져 있는 것일까?

지하철역이 화려하다. 역마다 각각의 주제로 아름다운 타일과 그림들로 꾸며져 있다. 지하철 역 들어서는 곳에서부터 출입하기까지 가방과 여권 검사가 시행된다. 물론 아름다운 역사 안 사진촬영도 금지다.

갑자기 도로에 차와 사람들이 정지해 있다. 복면을 쓰고 장총을 창밖으로 겨냥한 차가 달린다. 대통령이 이 길을 지나가고 있다. 선부른 행동은 큰일을 발생시킬 수 있다.

Friends Asia의 박강윤 회장을 만났다. 그는 순수 자신의 자본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단 하나의 NGO활동을 20년간 해오고 있다. 시간은 흘러 벌써 그의 나이 80세이다. 국가는 이 노인 자신의 돈을 써가며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대통령과 어느 정도 친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전히 스파이가 붙어 다니고 직원들의 집의 컴퓨터는 수색당하기

일수이다. 그가 다른 자본, 특히 종교적 자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한 자신의 자본으로만 활동하기를 고집해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요즘은 삼성에서 약간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여행객은 꼭 호텔에 거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거주등록이 되어 있는 종이가 없다면 언제 강제추방 당할지 모를 일이다.

굴러갈까 의심스러운 차들이 울퉁불퉁한 길을 잘도 달린다. 건널목은 사거리 고차점에만 있어 사람들은 그냥 도로를 횡단한다. 내 불쌍한 동료는 이 길의 피해자가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130여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인(71.4%), 러시아인(8.35%), 타지크인(4.7%), 티타르인(2.4%), 고려인(0.9%) 등이다. 사람들의 모습에서 민족적 특성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몇 세대를 거친 혼혈과 구 소비에트 시절로 인해 모든 면에서 러시아화 된 이곳에서 민족적 특징을 구별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인은 상당히 순수하고 마음이 좋다고 한다. 한 고려인 동포의 말에 의하면 고려인의 강제이주 당시 고려인들은 낯선 땅 타슈켄트에 도착했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받아들임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를 일이었다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만약 입장을 바꿔 우즈베키스탄인이 강제이주열차를 타고 한국에 왔다면 한국인은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작금의 한국의 다문화에 대해 생각해 본다.

106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짐을 풀고 다시 싸고, 옷을 벗고 입기를 다섯 번을 해야 출국심사가 끝난다. 이 과정에서 온갖 이유로 개인 물건을 뺏기기도 한다. 진이 빠진다. 육이 나올 만큼 괴롭히고서야 출국을 허해준다.

세 명 이상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싫어하고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우즈베키스탄은 상당히 폐쇄적인 나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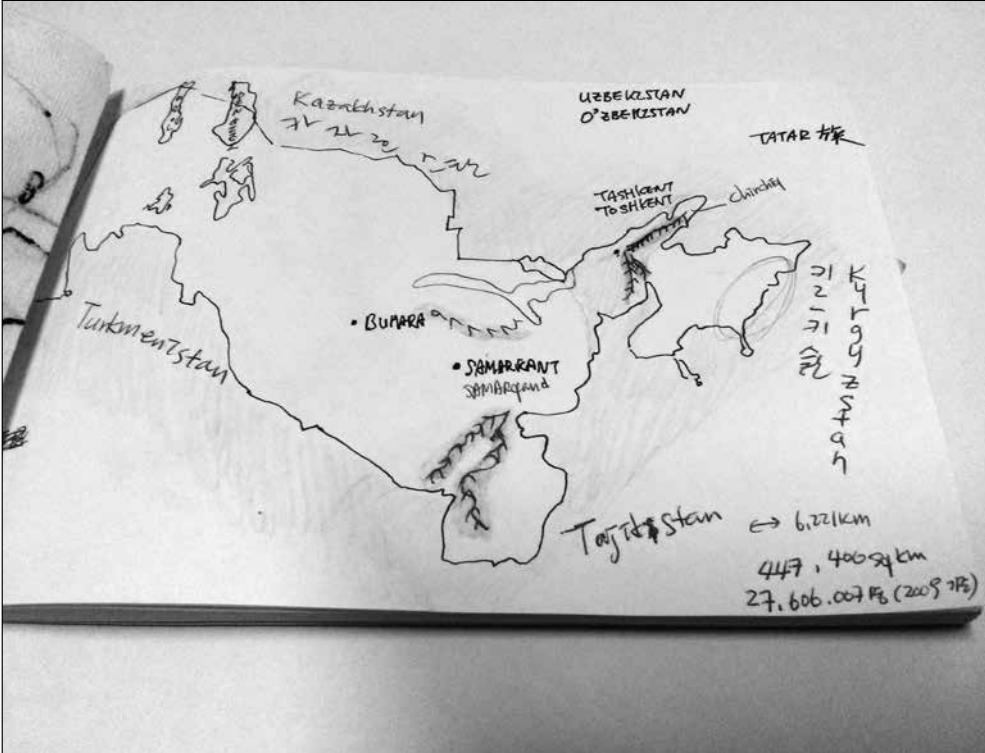
잊고 있었다. 언제나 익숙해짐은 그냥 삶이 되어버려 다른 형태의 삶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삶의 형태와 시스템은 다 다르다.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편한 세상. 이것만이 삶이었다고 또 착각했다. 부드럽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스스로를 위로하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상에 적응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시스템으로 잘 정리된 만들어진 삶 말고, 삶. 그것은 많은 형태를 갖고 있다.

/ 한지혜



107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108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109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111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커뮤니티 생성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려하는 한국을 뒤로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였다. ‘커뮤니티’ 아트 글로벌 리서치’의 일환으로 도착한 이곳은 늦가을의 공기를 내뿜고 있어 상쾌한 첫 느낌을 선사 하였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의 흔적이 느껴지는 지루하고 까다로운 입국절차는 예외였지만 말이다.

이곳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리서치 목적은 고려인! 고려인 동포라 부르고 디아스포라의 흔적으로 불리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1937년 스탈린 시대에 강제이주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흘어져 있는 고려인종 가장 많은 고려인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현재 2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경제활동으로 한국 등으로 진출하여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들은, 또 예술인들은 어떻게 역사를 이루었고 또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출발 전의 궁금증이 밭을 내딛은 도착과 동시에 봇물처럼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다.

도착한 첫날부터 고려인 마을이라 불리는 안산 선부2동 땃골 삼거리에서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는 스무살 꽃띠의 김 나타샤 와의 시간차를 둔 동반 입국으로 거주부터 체류기간동안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나타샤로 인해 현재 젊은 고려인 동포들의 의식과 친구들과의 교류 과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점은 무척 감사한 일이었다.

도착한 다음날부터 체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기분 지형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첫 리서치에서 나타샤와 그녀의 친구인 트ات르민족인 나르기사의 도움으로 지형 리서치와 체류 중 생활 과정에 대한 많은 지침을 얻을 수 있었다. 리서치에 도움을 준 나타샤의 친구인 나르기사는 모델 활동도 하고 있는 아주 활발한 친구였는데,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젊은 친구들은 낮은 취업률과 경제활동으로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고 좀 더 많은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하며 웃어보였다.

도착한 날 3일째 고려인문화협회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고려인문화협회는 수도 타슈켄트를 본부로 하고 사마르칸트, 부하라, 나만간 등 고려인들이 분포해 있는 지역에 책임자를 두는 형태로 설립돼 있는 문화단체로 고려인 동포 문화행사 및 예술전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고려인 문화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박토로 회장이 타슈켄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며 향후에도 좋은 교류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처음으로 소개받은 작가는 사진작가인 안빅토르이다. 고려인 동포와 우즈베키스탄의 풍경을 그만의 방식으로 담는 사진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최고로 평가 받는 작가이다. 안빅토르의 도움으로 많은 예술가들과의 만남과 작업실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협회에서 프랜드 아시아의 박강운 회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만남을 통하여 고려인 집단 거주마을인 이크와 시온고를 방문할 수 있었다.

안빅토르는 조금은 날카로운 인상을 가졌지만 이내 그것은 착각일 뿐이라고 금세 깨닫게 되었다. 고려말을 잊어버렸다며 떠듬떠듬 이야기를 하였지만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먼 곳에서 온 우리를 따뜻한 환대로 맞아주었다.

신이스크라 여류 작가와 함께 타슈켄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와 미술관을 리서치하기로 하고 길을 나섰다.

신이스크라, 안빅토르 작가와 함께 타슈켄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를 둘러보았다. 첫 방문지는 신스에베파의 전시가 한창 이었다. 신스에베파는 신이스크라의 팔인데 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고려인 가족들은 대대로 같은 길을 걷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젊은 작가들이 배출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함께 리서치를 진행하며 흥미로운 전시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장애를 가진 작가의 전시이다. 이 전시에서 흥미로운 점은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예술가로 길러내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시스템으로 예술가로 조련되는 과정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설불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작가에게 자신의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이날 저녁 고려인문화협회측은 저녁식사에 초대해 주었다. 고마운 마음으로 협회 분들과 도착한

그 곳은 대사관과 민족평통이 주최한 한반도 신로 프로세스 통일 안보 강연 장소였다. 멀리 떠나온 곳에서 안보 강연을 듣게 된 것에는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많은 고령인 동포들이 한국의 안보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분단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아쉬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물론 후반행사에서 고령인 4~5세대 동포들의 K-POP 장기자랑으로 다 같이 흥겨운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었다.

고령인문화협회의 연락으로 티쉬켄트에서 활동하는 시인, 소설가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독립운동가의 유공자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예술가들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koryosaram이란 사이트를 개설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인과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소개되었던 적이 있는 김용택(김블락디미르) 소설가와의 만남은 그야말로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 특히 김용택 소설가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고령인 이주의 역사와 여러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김용택 소설가는 우리에게 우즈베키스탄 이주 역사박물관 관람을 제안하였다. 130민족중의 하나로 우즈베키스탄 역사의 한편에 있는 고령인의 역사는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서글픔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한 역사로 가득 차 있었다.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진 고령인들은 분노와 좌절로 끊이지 않고 우즈베키스탄 130여 민족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근면하고 성실하여 현재까지 인정받고 존중받는 민족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묻어나는 김용택 소설가의 말이 계속 귓전을 맴돌았다.

계속해서 고령인 이주의 역사와 부모세대에서부터 어떠한 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하였는지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얘기로는 이주 초기에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이 특히 온화하게 이주 반입 정책을 받아들였고, 몸 하나로 이주해온 고령인들에게 따뜻한 환대와 많은 도움을 받았던 일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고령인 분들이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후 소비에트 시절 집단 농장체제에서 뛰어난 지도력과 노력으로 수 백명의 영웅이 배출되어 우즈베키스탄에서 주력세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어렵잖이 알고 있었던 고령인의 강제 이주의 역사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픔너머에 있는, 치열함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을 조금씩 깨우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 있었다.

프랜드 아시아의 박강운 회장은 한국에서 사업 중 1988년 서울올림픽때 우즈베키스탄 레슬링 코치를 도와주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곳에서 그는 그 전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고령인들을 처음 만났고, 어렵게 생활하는 그들의 삶을 본 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프랜드 아시아라는 NGO 단체를 설립하여 20년째 우즈베키스탄에서 생활하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고령인 집단 거주 마을인 이크와 시온고에 마을회관 건립하여 언어, IT 프로그램 등 교육사업과, '천지꽃 노인 학창단' 지원 등 다방면으로 지원 및 후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자연봉사자들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이 두 마을은 소비에트 시절인 집단농장 체제에서 고려인 특유의 균면성과 성실함으로 부촌을 이루며 명성을 날렸지만, 91년 소비에트 연방 붕괴와 독립 과정을 거치며 서서히 몰락한 마을이라고 했다. 이후 이곳의 젊은 고려인들은 경제활동의 이유로 도시나 타국으로 떠나고 노인들이 떠난 자식들의 자녀를 돌보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곳이었다고 하였다.

이크에서 만난 천지꽃 합창단원분들은 작년 11월에 프랜드 아시아와 한국 정부의 후원으로 한국에서 공연무대를 갖았다고 한다. 모국을 방문했던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며 한국에서 왔다는 우리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한국인들은 생애 처음으로 모국에 방문한 자신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줘서 고마운 마음과 함께 발전된 한국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고 한다. 자신들에게 흐르는 같은 피를 처음으로 확인한 것 같다며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천지꽃 합창단’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서 밝게 웃으시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또한 같은 피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면 너무 진부한 표현일까?

올해 강제 이주 15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를 기점으로 작은 이어짐 하나하나가 더욱 더 큰 결실을 맺고 이어줄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래본다.

타쉬켄트의 예술대학에 방문했다. 학생들과 간단한 자기소개로 인사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예비 예술가로써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하였다. 대체적으로 이곳 학생들은 예술성의 지향 보다는 기술습득을 통해 이윤창출이 되는 활동(디자인과 전통공예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느껴졌다. 학생들의 질문으로는 한국의 갤러리와 미술관 수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생들은 이후로도 자신의 작업들을 내 보일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바람을 내 비쳤다. 우리는 우리의 작업들을 보여주며 얘기를 계속 이어나갔는데 학생들은 특히 한지에 작가의 사회 비판적인 작업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미술교육은 전통적인 페인팅 작업과 도제식 관습이 많이 남아있어 조금 더 신기해하는 반응을 보여줬을 것이다.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예비 예술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곳 젊은 예술가들과의 어떠한 교류의 방식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이 생기는 날이기도 했다.

안락토르 작가의 도움으로 타쉬켄트에서 활동하는 고려인 예술가들과의 만남이 수월히 진행되었다. 15명 정도의 예술가가 모였고, 그들의 예술활동과 생각들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고려인 예술가들 한분한분 자신의 신념과 생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작업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로인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정을 받는 작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 작가와의 교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교류를 통해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꿈망들이 총만했다. 한명 한명에게서 느껴지는 열정은, 얘기를 듣고 있는 본인의 게으름을 질책하게 되는 부끄러운 상황을 연출하였다.

남은 체류기간동안 각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할 때마다 반갑게 동료로 맞이해주었다. 얘기와 밥을 같이 나누는 행위를 통해 고려인 예술가로써 살아가는 자부심과 작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시간들은 신뢰로써 서로에게 새로운 밭걸음을 내딛은 것이라 생각한다.

15명의 작가들과의 열띤 논의 후 작가 박마리아의 초청으로 첫 작업실 방문이 이루어졌다.

박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작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가업처럼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는 작가 중 한 명이었는데, 푸근한 몸짓과 인상을 가진 그녀는 초대된 다른 동료 작가들과 함께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어 내며 자신의 작품에 대한 소개를 이어나갔다. 다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작가들처럼 풍경화 위주의 작품들이 많았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숨은 보물이라 일컬어지는 히바니, 부하라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 특히 인상에 많이 남았다. 음식과 빠지지 않는 보드카와 와인을 들이키며 나누는 얘기들로 처음 만나는 자리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보드카를 들이키며 나오는 취기 때문이다. 아니면 즐거움을 주는 만남 때문이다.

이후 작가들의 작업실을 방문하며 작업과 고려인 예술가로 살아가는 얘기들을 나누는 자리가 매일 이어졌는데, 작가 박니콜라이와 작가 안빅토르의 작업실 방문은 내게 인상적이었다. 박니콜라이는 고려인 아버지와 독일계 어머니에서 태어난 혼혈 고려인인데 세라믹 작업과 석판화 위주의 작업하고 있다. 특히 그가 만들어내는 추상 이미지의 석판화 작업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드문 작업인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손을 움직여 만들어 내는 지금 작업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 웃음을 지었다. 작업실 방문 시, 내놓은 음식과 함께 또 하나의 자신을 표현한다며 기타연주와 함께 멋진 목소리로 읊조리며 들려주는 터시아 음악을 들으니 노래와 함께 작가의 작품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멎을 앓는 예술가란 생각이 들었다. 또 한명의 작가 안빅토르의 작업실에 방문하였을 때, 열정적으로 자신의 작업을 소개하는 와중에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현재 자신의 새로운 작업방향에 관한 것이었는데, 눈빛을 빛내며 자신이 새롭게 작업하고 싶은 방법에 대하여 거침없이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모습에서 끊임없는 작업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의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껏 받은 환대에 보답하고자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였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의 만남의 즐거움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았다. 만남을 통해 각자 느꼈던 소감과 함께 교류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낸 즐거운 기약을 하며 건배 재창을 하였다. 고려인 예술가들은 노란 실크 스카프에 그들의 이름을 적으며 우리에게 건네 주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적힌 노란 스카프를 그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

일정을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출발전에 막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체류기간 동안 고려인, 고려인 예술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너무나 많은 무형적 가치를 얻었고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 서로간의 무형적 가치를 유형적 가치로 변환시켜 지속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이런 고민이 깊어짐을 느꼈지만 그 너머에는 반드시 도착점이 보일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118

community  
and  
global  
work

519

## 서로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며.

벌써 수년간 저는 한국에서 온 동료들을 만나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돋고 가끔은 동행하며 통역 일도 많이 했습니다. 보통 내가 만난 이들은 나이 들고 성숙한 학자이거나, 작가, 드물게는 예술비평가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지금의 새 친구들이 제 마음에 바로 와닿았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해외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적으니까요. 또 한 가지 제 주의를 끌었던 것은 정재민 군과 한지혜 양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의 창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방문 목적을 바로 표현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창조적 개인이란 조형미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뜻하겠지요. 도처의 최근 한국의 이 예술 유파의 현대적인 지향을 보여주고, 그러한 예술과 퍼포먼스, 설치미술, 유사한 분야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단지 관계의 설정이 아닌 폭넓은 교환전시를 가능케 합니다. 이 역시 이 예술 분야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공동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두 회화 유파, 조각, 응용미술이 상호 침투하며 어떤 새로운 방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목적으로 라면 타슈켄트 사회의 한인 핵심 미술 그룹을 빠르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화가, 그래픽아티스트, 조각가, 도예가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술 유파의 학문적 방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지만 해외에 방문하는 폭넓은 기회와 외국 동료들과의 긴밀한 접촉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며칠 동안 한인미술 전문가 손님들과 동행했습니다.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나의 동료들의 조형공정이 어떤 방향인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테마에 관심 있는지 언제 또 볼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예술가들이 종종 사회의 조음기로써 나타내려는 것은, 그것이 간접적이긴 하지만, 대중의 취향을 구분하고, 문화수준과 영혼의 가치에 대한 협신이란 점이며 이것은 비밀이 아니겠지요. 우즈베키스탄 한인 작가들이 자신을 위해 짚은 손님들과의 진정성 있는 만남을 갖는 것은 항상 문화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정재민군과 한지혜양과 나눈 여러 나라에 사는 우즈베키스탄의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담화와 언급은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공화국으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프게 강제 이주되기 전 역사 속에 나타나는 러시아 대륙으로의 첫 번째 한인 이주로부터 (내년이 150주년 되는 해이고 큰 행사를 치를 것입니다.) 처녀지에서 한인들은 지칠 줄 모르는 노동과 교육에 대한 갈망으로 낯선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얻어내었습니다. 고된 운명 <고려사람>, 물론 예술가와 작가들이 자신을 구현해내고 찾았지만 이 테마는 세대를 넘어서도 다할 수 없고, 마음을 끌 것입니다.

120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동료들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술 프로젝트를 선도하는 것, 그것은 이웃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비교하고, 더 좋은 것을 채용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완고함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것은 모든 나라 민중들의 소원이기도 하겠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웃 나라에 존재하는 첫 번째 조력자이자 맹우는 디아스포라 동포입니다. 특별히 이 디아스포라의 엘리트들 – 화가 그리고 문화예술인이겠지요.

/ 김용택 (소설가)

---

김 용 택 (김 블라디미르)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으로 살면서 공훈기자의 칭호를 받은 언론인 출신의 작가로 1939년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 동포2세로 태어나 소련의 해체와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등 질풍노도의 격변기를 기자활동으로 보냈으며 현재 소설 등 활성화된 집필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어 번역본으로 ‘멀리 떠나온 사람들’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가 있으며 현재 작가 자신의 뿌리를 추적하는 논픽션 5부작 역사소설 ‘김가네’를 집필중이다.



\*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Research

흑룡강성 Heilongjiang

121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프로젝트 명: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 거주지역 리서치>

장소: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오상, 해림, 영안)

기간: 2013.11.14. – 2013.11.24.

리서처: 대부분 오래된집 프로젝트팀 (조전환+이윤기+손민아)

中央大街

ZHONG YANG STREET

中央大街  
建筑艺术博物馆

Architectural Arts Museum  
of Central Avenue

## 흑룡강성 리서치를 마치며

토인비에 의하면 유목민 연쇄폭발의 제 1지구로 흥안령과 한반도 사이의 만주지역을 꼽고 있다. 만주지역은 동북아시아 문명의 용광로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의 주요국가의 발상지이다.

흥안령을 넘어온 유목문화와 수렵문화가 만나는 지점으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해, 금나라가 이지역에서 생겨났으며 지금 중국의 국경선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청나라의 강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나라는 왕조의 발상지를 한족 등 타민족이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봉금정책을 취하여 19세기 중반까지 유지하였다. 러시아의 남하가 가속화되어 동청철도가 만들어지고 20세기 초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만주철도를 경영하면서 경제적인 지배가 시작되고 1931년 만주사면 이후에는 괴뢰정권인 만주국을 세워 실질적인 식민지 지배가 시작된다. 이후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동북항일연군이 조직되어 중국과 조선의 한일 연합전선이 만들어진다.

이 지역에 조선족의 이주는 세가지 시기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는 19세기 중반부터 한일 합방까지

시기로 주로 생계를 위한 이주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시기는 한일합방 이후 만주사변까지의 시기로 항일 투쟁을 위하여 조선의 뜻있는 사람들이 대거 이주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 시기는 만주사변 이후 일본항복까지의 시기로 일본에 의한 강제이주의 시기로 일본이 한반도로 조선은 만주로 이주하게 된다.

항일투쟁의 연합군으로 조선족은 동북지역을 지켜냈으며 이후 천하제일미로 평가 받는 향수입쌀이나 민락입쌀등 쌀농사로 입지를 다졌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많은 지식인을 배출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펼쳐지면서 한국이나 대도시로 대거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동북의 조선족 사회는 인구감소와 조선어학교의 존립의 문제 등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내가 만나본 한국에서 만나본 조선족은 언제나 당당한 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흑룡강성의 조선족의 눈빛도 당당했다. 만주로 떠나기전에 선배가 찾아와 만주에 가거든 “이 나라가 변변치 못하여 나라를 잃었을때 만주로 떠나가 국혼을 지킨 이의 자제들이 돌아와 일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접을 못하고 있어 송구스럽다. 조금 더 지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였다. 그 선배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며 살다가 간암선고를 받아 투병 중이다. “조목수를 마지막으로 보는 걸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며 돌아갔다. 나는 그 말을 70이 넘은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 전했고 그분들의 눈빛이 변하는것을 느꼈다.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얼마 되지 않는 비용으로 10일간의 흑룡강성 여행을 계획해주고 안배해주신 흑룡강신문사 한광천 사장과 방송 일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늘 웃음지으며 통역, 예약, 이동 등 궂은 일을 전 일정 동안 척척 진행해주신 한동석선생께 감사 드린다.

## <프로젝트 일정>

2013.11.14

하얼빈시-중앙대가, 송화강변

22:00 하얼빈 공항도착 / 흑룡강신문사 한동석 기자(현지 코디네이터 및 통역) 만남

22:30 숙소도착

23:00 하얼빈시 중앙대가 산책

-중앙대가: 1898년~1924년 송화강에서 도심으로 이어진 무역길, 세로형 돌로 만든 길

-흑룡강성은 자원이 풍부하여 중국 중공업의 시작과 발전이 이뤄진 곳

-하얼빈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발달하였고 철도의 연결로 무역이 활발히 진행

2013.11.15

오상시-민락촌

07:30 하얼빈에서 오상시로 이동

11:00 오상시 민락 조선족향 인민정부 도착

-당서기: 송덕욱, 부향성: 이명봉 면담

-민락촌 어르신: 리상룡, 김원경 외 2명과 대화

\*일제 시대 정착 조선족인구 1만 명,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1개씩 있었음.

\*리상룡 어르신 조선족 이주 및 정착, 민락촌 농업 역사 소개

\*조선족을 중심으로 민락지 제작 중

젊은 세대는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전형적인 농촌,

노인들 중심의 민족문화 놀이 모임 존재

12:30 점심

13:30 민락촌 마을 방문 (조선족 집성촌)

조선족 가옥과 주변시설을 조사

15:00 민락촌에서 하얼빈으로 이동

15:30 하얼빈 킹팡지역 731부대 관람

17:00 저녁

2013.11.16

하얼빈-흑룡강 신문사, 하얼빈 미술공간 방문

08:30 흑룡강 신문사 방문

-신문사 한광천 사장, 흑룡강 미술대학 권오송 교수(조선족) 면담

-방문목적 설명

-1898년경 정착 조선족 3만명,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2개씩 있음.

-레지던시 활동과 기관협력 가능성 논의

: 흑룡강 신문사를 기반으로 하얼빈 내 유류공간을 활용한 레지던시 교류 사업

-현재 예술가 교류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협력사항 논의



- 12:00 점심
- 14:00 하얼빈 사범대 부분 갤러리 방문  
-젊은 작가들 대부분 북경이나 상하이로 이동  
-미술관 및 화랑거리 축소  
-2004~12년 까지 100여개의 화랑이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정부고속도로 건축기업이 은행과의 문제로 화랑가 거리 건물들을 팔아버리면서 축소, 현재 3~4개의 모작을 판매하는 화랑만 현존(사진촬영금지)
- 17:00 저녁

2013.11.17

- 하얼빈-성소피아성당, 흑룡강성미술관, 러시아미술관, 개인화랑, 하얼빈 조선족미술인 면담
- 11:00 하얼빈시 성소피아성당 관람
- 12:30 점심
- 14:00 하얼빈시 태양도 공원 내 러시아 미술관 관람
- 16:00 신도시 내의 개인화랑 방문
- 17:00 하얼빈 내 조선족 미술가 모임(저녁)  
-권오송 교수의 소개로 고건, 주광호, 함택수, 이경호 작가와 만남  
-조선족 작가들의 다양한 전시활동과 작가 간 교류네트워크에 관련 현지사항 공유  
-하얼빈내에 예술현장은 존재하지 않고 '하얼빈과 흑룡강성은 문화예술의 사막'이라  
현지 작가들은 인식, 대부분 북경에서 활동

127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2013.11.18

- 하얼빈-조선민족예술관, 안중근기념관 방문
- 08:00 흑룡강 예술관방문/강월화관장님과 면담  
-방문목적을 설명, 하얼빈 조선민족 예술관 소개받음
- 09:00 안중근 기념관 및 조선족 생활사 전시관 관람
- 12:00 점심  
-이후 자유시간

2013.11.19

- 하얼빈-조선민족예술관 재방문, 정율성기념관 등 방문
- 08:00 폭설로 인한 일정변경-고속도로 이동불가, 열차표 예매
- 09:00 안중근 기념관 재방문하여 비디오 관람- 기념관 시설 관람
- 11:00 정율성 기념관 관람
- 12:20 하얼빈 박물관 흑룡강성 군력분관 관람



13:40 점심  
이후 자유시간

2013.11.20

하얼빈 → 목단강시 이동  
09:00 날씨와 교통상황 점검  
09:30 기차표 예매  
10:00 하얼빈 거리 관람  
12:00 점심  
13:00 하얼빈역 - 목단강출발 (기차로 6시간30분 소요)  
19:30 목단강역 도착  
20:30 해림역 도착  
21:00 저녁

2013.11.21

해림시-민족종교사무국, 조선족민속원, 보은사, 조선족문화촌, 김좌진장군기념관

09:00 해림시 민족종교 사무국 방문  
-서봉철국장, 김춘양부국장, 강호암부국장, 문화관장 최녕 면담  
-1932년 정착 조선족 2만8천여명, 조선족 교육기관: -유치원2, 소학교1, 중학교 2, 고등학교1 있음  
10:30 해림시 조선족 민족원 방문(현재 조성중)  
-한국 전통문화 행사에 관심 표명  
-한국의 여러 지방 도시와 교류 중  
12:00 해림시 보은사 관람  
12:30 조선민족문화촌 답사  
13:30 점심  
14:30 김좌진장군 기념관 관람 -한국 새누리당 김을동씨의 자비로 기념관 건립  
15:30 작가협회 (문학작가중심)와 대화  
-조선족 작가협회 면담: 회화작가 최근남 (사실적 묘사가 뛰어남),  
인물화가 함성호 (박근혜 대통령 그림), 문학가 백정순, 박금희, 진금옥 외 1명 (중학교 조선어 교사)  
17:00 저녁

129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2013.11.22

영안시- 민족종교사무국  
08:00 해림 출발  
10:00 영안도착 / 시청방문



- 10:10 영안시 민족종교 사무국 정만교 국장 면담  
-간략한 인사와 방문목적 소개  
-약 110년전 조선족 정착 현재 조선족 3만4천명.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1개 있음.  
-젊은 조선족 세대는 서울이나 북경으로 이동
- 10:30 숙소 이동
- 11:00 민족종교 사무국 정만교 국장 면담  
-영안시 민족 종교 사무국의 조선족 유두절 전통문화 행사 지속적으로 추진, 홍보 중  
-유두절을 국가급 문화제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 중  
-유두문화 발원지 영안시 상서촌, 강서촌 개발 계획 소개받음
- 12:00 점심
- 14:00 영안시 작가협회 면담  
-영안시 문학원관장(무용), 최화길(문학)작가협회대표, 남영선(문학)부대표  
-방문목적과 설명  
-영안시 10명 정도 문학 활동 (조선어 선생님 겸직)  
-문학작품교류 및 지원에 관심(시집 발간과 문학작품 지원사항 정보등)  
: 조선어 출판을 할 경우, 자비 부담과 함께 출판물의 판로가 거의 없는 상황.
- 16:00 저녁

2013.11.23

영안시-상수촌, 강서촌 → 목단강시

- 10:00 정만교 국장과 함께 상수촌, 강서촌 방문  
-조창남 상수촌장, 오철수 강서촌장, 황도석 마을주민과 답사  
-조선족 전통 가옥 답사
- 11:50 점심
- 13:00 목단강시로 출발
- 14:00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연착
- 15:00 숙소예약
- 17:00 저녁
- 18:00 회의

131

communi ty  
art  
gl obal  
network

2013.11.24

목단강 → 인천공항

- 08:00 아침
- 12:00 공항대기
- 21:30 출항
- 24:00 인천공항도착

전민주  
舞 藝 术 馆

## 흑룡강성 리서치 평가 및 한계점

- 작성자: 손민아

### 1) 커뮤니티를 도구화하는 태도

#### ① 리서치 기간 동안 교류 대상은 조선족 공산당원

- 흑룡강 신문사 사장, 오상시 민락촌장, 해림시 민족 종교사무국 국장, 영안시 민족종교 사무국 국장 등 정부 권력자들

- 민족 공동체를 자신의 출세 및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태: 중국 동북 공정의 역사관을 가지고 '발해 역사'와 관련, 강압적 역사관 주장

-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정부 정책 이행 : 다민족 국가의 소수 민족 정책 수용

#### ② 한 지역에 장기간(7일) 체류할 경우 중국 공안의 감시 (영안시 민족종교사무국장 언급)

- 자유로운 조사와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 자유로운 행동보다 처신을 조심하게 되는 분위기

### ③ 흑룡강 신문사의 매체 변환으로 인한 열악한 상황의 한계

-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중국 내 소수민족어-조선어 언론매체
-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정책과 수용, 언론 통제 및 자발적 검열의 가능성 높음
- 종이 신문체제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방송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으로 방송 콘텐츠 및 인력 현저히 부족, 한국과 문화 교류를 통한 방송 콘텐츠 개발 희망 ⇒ 방송 콘텐츠를 목적으로 한 문화예술(가) 교류의 도구화 가능성
- 세계적 문화 예술 현장에 대한 관심, 인식, 정보 부재

### ④ 전통문화를 고수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높은 조선족의 한계

- 조선 전통문화의 전승 및 확산의 비용은 모두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정책 지원으로 운영 ⇒ 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및 역사관을 적극적으로 수용 시 가능 (예. 영안시 유두절)
- 시대정신과 교류하는 전통문화가 아닌 박제된 그들만의 전통문화를 고수

## 2) 교류 방식의 문제

### ① 공·사를 구분하지 않는 교류 방식 : 술자리에서 일을 도모하는 음주문화가 일반적

- 134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 대접하는 사람(높은 직급의 공산당원)이 술을 권하며 술을 마시는지의 여부로 교류 여부를 정하는 등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권주 문화

### ② 젠더 의미의 성역할에 대한 고찰과 반성 부재 : 성역할을 구분하는 강압적인 분위

- 특히 조선족과 같은 중국 내 소수민족의 경우 그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명분아래 위계질서가 견고한 남성 권력 중심의 문화

### ③ 리서치 주체 - 대부분 오래된집 프로젝트팀의 안일한 방식

- 공공기관 간의 공적 연결이 아닌, (조전환씨의) 개인적인 인맥에 의지한 교류 ⇒ 기관 대 기관의 연결이 아닌 개인이 중심이 될 경우 사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되며 이는 공적 지원을 받아서 교류해야 될 타당성 부재

## 3) 하얼빈의 문화예술 현장의 빈곤

- 미술기획, 레지던스 등에 대한 정보와 인식 부재 (흑룡강대 미술학과 권오송교수)

- 중국내 북경, 상하이 등의 미술 현장에 대한 정보 또한 부족
- 현지 전업 예술가의 주요 활동지는 대부분 북경이나 상하이로 중국 내에서도 흑룡강성은 '문화 예술의 사막'이라고 인식되고 있음 (하얼빈 이경호 작가 언급)
-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아트에 대한 인식 부재 ⇒ '문화'를 이용한 식민주의적 태도의 위험성 : 흑룡강성의 미술작가 전반적이 세계적 미술현장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 스스로 반성 없이 문화 교류, 레지던시 등을 목적으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문화식민지를 만들 위험성이 있음. 또한 우리 스스로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경험이 부족

#### 4) 동일 언어권의 한계

##### ① 소통 용이하다는 이유로 타민족을 배제할 위험성

- 교류하는 자리에서 쉽게 '우리민족끼리 원기를 해보자, 쪽빠리는 빼고' 등의 표현을 하는 행태에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태도를 읽을 수 있음.

##### ② 민족 공동체를 이용할 위험성

- '같은 민족끼리 서로 돋자' : 중국 정부 정책 -특히 영안시 민족 종교 사무국의 문화 행사 및 미술 정비 사업에 한국 작가의 참여 요청이 있었으나 동기와 명분 부재

135

communi ty  
art  
gl obal  
network

#### 5) 리서치 전 정보 부족

- 흑룡강성의 문화 예술 기관이나 활동에 대한 기본 정보 부재
- 한국어나 영어로 리서치가 불가, 영어로 된 정보 부재, 중국어로만 가능 ⇒ 사적 인맥(아는 사람)에 의지하게 되는 한계점 발생



\*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Resherch

홍콩 Hong-Kong

마카오 Macau

광저우 Guangzhou, China

심천 Shenzhen, China



137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프로젝트 명:

<마카오, 홍콩, 중국 심천 & 광저우 지역의 비상업적, 로컬 미술계 리서치>

장소: 마카오, 홍콩, 중국 심천 & 광저우 지역

기간: 2013.11.26. – 2013.12.26.

리서처: 김나영+그레고리마스

EXHIBITION

# GREAT CRESCENT: ART AND AGITATION IN THE 1960S—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22 NOV 2013 – 9 FEB 2014

138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 마카오, 홍콩, 중국 심천 & 광저우 리서치

중국 변방 지역이었다가 서구 열강에 의해 개항된 중국의 근대사에 현재까지 뮤여있는 역사적 특수성, 그리고 홍콩아트페어, 미술 경매로 대변되는 미술 상업주의의 지역인 마카오, 홍콩, 중국 심천과 광저우 이 3지역의 리서치 결론은 가능성을 지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비상업적 로컬 자생적인 미술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보여졌는데, 경제적인 빈곤이라기 보다는 작가, 미술 공간, 관객들의 문화에 대한 요구가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이며 주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중국 정부주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막강한 중국의 경제성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2013년 말에 방문, 리서치한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것은 날로 발전하는 중국의 경제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과도하게 정부주도적인 인공적인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고 경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연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서구 열강에 100년, 450년간 지배하에 있다가 1990년 대 말의 중국 반환 후에, 중국안의 자치 지역으로 분류되어있는 홍콩, 마카오, 심천은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특수성, 그리고 중국안에서 경제특구로 지정, 각기 다른 길을 가며 부단한 경제건설과 발전 중에 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기관들은 나름 발전과 성공의 길을 모색하는 중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한꺼번에 몰아친 상업주의 미술시장의 인정사정없는 분위기 안에서 소외된 것으로 보이며, 중국 정부와 상업주의라는 거대 괴물에게 길들여지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면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에게 있을 가능성은 1990년대 홍콩 필름 노아르가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기억을 투사하는 노스탈지어가 이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제목:** 홍콩 크리스티 경매

**장소:** 홍콩 컨벤션 센터

**전시:** Asian Contemporary Art (Day Sale)

[http://www.christies.com/Results/  
?month=11&year=2013&locations=  
HGK&scids=&initialpageload=false](http://www.christies.com/Results/?month=11&year=2013&locations=HGK&scids=&initialpageload=false)

**내용:** 크리스티 주최로 열린 아시아 미술 경매는 주로 중국 작가들의 회화 작품 위주로 선정되었으며, 동남아시아,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였다. 미술품 경매 뿐 아니라 같은 일정에 골동품 도자기, 시계 등과 같은 물품의 경매도 이루어졌다.

미술에 대한 관심, 홍콩의 특수한 지역사의 반영, 중국 전통 미술의 현대적인 수용 등 홍콩 젊은 작가들의 현재하는 고민과 관심을 조명하고 있다.



**전시:** 상설전

**장소:** Hong Kong Museum of History 홍콩 역사 박물관

<http://hk.history.museum>

부터 400만년전 선사시대부터 1997년 홍콩 중국 반환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고 있다.

홍콩에서 가장 잘 된 박물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평이하고 권위적인 유물 전시가 아니고 현대적이고 입체적인 관점과 기술로 전시를 하고 있다.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홍콩인, 중국의 변방에서 아편전쟁을 거쳐 영국령, 2차 대전시에는 일본 지배하에도, 그리고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과정을 거치는 역사와 정치상 뿐 아니라, 이런 배경에서 다양하게 구성된 문화,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온 산업화, 금융에 이르는 종합적인 모습의 홍콩을 재현하고 있다.



**제목:** Hong Kong Contemporary Art Awards 2012

**장소:** 홍콩 아트센터 Hong Kong Museum of Art

연례로 열리는 홍콩 젊은 작가들의 현대미술 수상전, 서양화, 동양화, 조각, 설치, 미디어 미술 세션으로 나누어 다양한 기법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특별한 주제나 이슈가 있는 전시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미술 시장으로 떠오른 지역의 젊은 작가들답게 상업적



**제목:** Introducing Polish Poetry in Macao

**장소:** 마카오 구 시청사

[http://www.icm.gov.mo/deippub/events/  
Polish2013/en](http://www.icm.gov.mo/deippub/events/Polish2013/en)

마카오는 450년간 포루투갈 영이었던 지역이며, 홍콩이 영국령이 되기 전에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동서간의 교역이 활발하던 지역이다. 폴란드 현대시를 소개하는 일환으로 조성된 전시에는, 폴란드 출신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Wisława Szymborska, 그리고 유럽 문학상 수상자인 Tadeusz Różewicz, 두 시인의 작품과 관련 자료,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된 Wisława Szymborska의 콜라쥬 작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소개되었으며, 개막식에는 이들의 시를 원어인 폴란드어로 낭독하고, 중국어로 통역하는 시낭송, 이들 시에 영향을 받은 현지 마카오 음악가의 작곡으로 탄생한 실내악 연주회, 그리고 패션, 디자인, 미술 분야 등의 다양한 마카오 작가들의 전시회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제목:** 폴란드 작가 퍼포먼스

**장소:** OX Warehouse, 마카오

**내용:** Introducing Polish Poetry in Macao 전시에 관련된 퍼포먼스

폴란드의 역사에 관련된 퍼포먼스를 폴란드 전통 인형극에 영향을 받은 기법으로 구현하였다. 폴란드어로 진행되었고, 중국어로 동시 통역이 이루어졌다.

141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퍼포먼스 제목:** Siting Cinema

**장소:** Ox Warehouse, 마카오

**퍼포먼스** : A typist (류한길, 이행준, 김태용) 3명의 작가 퍼포먼스:

김태용의 음성 퍼포먼스로 시작된 퍼포먼스는 필름 푸티지의 표면의 이멀전을 산화시키는 방식의 캐미컬 작업과 기존의 필름을 빈 필름에 다시 복사하는 과정에서 이미지를 변형/왜곡시키는 컨택트 프린팅 작업에 여러 대의 영상기를 사용하는 멀티 프로젝션과 이를 통한 영상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영상 퍼포먼스는 음악가인 류한길이 타자기, 시계태엽, 전화기와 같은 전시대 사물들 고유의 진동음을 통해 또 다른 음악적 가능성을 찾는 협업 프로젝트이다.

같은 시기에 열린 EXiM 2013은 한국의 영상 작가 이행준이 큐레이팅한 한국 실험 영화제이다.



**장소:** Vitamin Creative Space, 중국 광저우

<http://www.vitamincreativespace.com/en/>

Vitamin Creative Space는 중국 광저우에서 시작된 대안공간이자 갤러리, 미술 전문 출판사이다.

몇년전부터는 북경에도 사무실을 두었고, 아트 바젤 등 국내외 아트 페어에도 활발히 참여하는 등 주요한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시:** “Does Europe Matter?”

**작가:** 준 양

중국 출신이면서 현재 비엔나에 거주 활동중인 작가 Jun Yang의 프로젝트로서 작가가 자신에게 자주 하는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 문장이다. 이런 질문은 지역-정치적인 레벨에서 유럽, 중국, 대만, 홍콩을



일선상에 놓아보고 개인적,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가늠해 보는 작품이 되었다. 중국 광저우의 Vitamin Creative Space, the Taipei Contemporary Art Center, the magazine Artco 미술지와 유럽의 여러 큐레이터들이 공동으로 참여, 제작한 준양의 “Does Europe Matter?” 프로젝트는 세계의 중심 “The Centre of the World”이라는 작가의 비디오 작품으로 대답을 하며 종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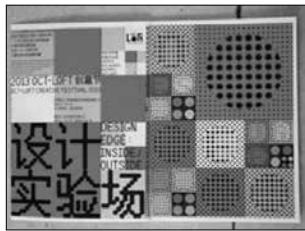


**장소:** OCT-Loft, 중국 심천

[www.octloft.cn](http://www.octloft.cn)

심천은 홍콩과 인접한 지역의 도시이다. 홍콩이나 마카오와 같이 중국의 경제 특구에 들어가는 지역으로 2013년 현재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되어있다. 홍콩, 마카오와는 기차와 폐리로 연결되어있고, 인접한 광저우와도 1시간 걸리는 총알 기차로 교통이 편리하게 연결된다. 심천이 근래 경제 부흥과 더불어 재미있는 문화도시로 자리 잡는 이유로는 OCT-Loft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 공장지역이었던 곳을 문화적인 허브로 만들어서 전시장, 공연장 뿐 아니라 건축, 디자인 사무실, 작가 작업실 등이 자리잡고, 문화를

향유하려는 시민, 관객들이 즐길수 있는 서점, 가게, 카페, 식당등이 골고루 있다.



행사 제목: OCT-LOFT Creative Festival 2013

기간: 2013. 08.12. - 2014. 08.03

장소: OCT-LOFT, 중국 심천

The OCT-LOFT Creative Festival은 다른 디자인 전시회와 달리 리서치와 실험에 중점을 두었다. 전시에서는 총 9개의 국제적인 디자인 연구소에서 진행한 작업을 보이는데, 그래픽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미디어 아트, 웹 디자인, 미래형 미술관 구동과 제품 디자인등을 총괄하였다.

The OCT-LOFT Creative Festival 은 Geneva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Berlin Public Art Lab,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Design Academy Eindhove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그리고 Lucerne School of Art and Design 등이 참여하였다.



#### "URBAN BORDER"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발전되는 도시들과 도시화는 현재 각 도시들의 다양성과 특이성을 반영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렇다면 “border”에 속하는 변두리 지역에서의 도시화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가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이다. 변두리적인 도시의 공간, 주변적인 생활 양식, 여러 커뮤니티 그룹 등이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자연적, 환경적인 문제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제목: Urban Border: Bi-City, Biennale of Urbanism/Architecture

Urban Border: Bi-City, 도시기획, 건축 비엔날레

장소: 중국 심천 페리 항구

<http://en.szhkbiennale.org>



제목: 유민준 개인전 “Neo-Idolatry”

장소: 마카오 현대미술관

<http://www.mam.gov.mo/main.asp?language=3>

흰 치아를 드러내 웃는 인물로 유명한 유민준은 가장 잘 알려진 중국 현대화가 중 한명이다.

그가 그리는 ‘Idol 아이돌’은 다채롭고 기괴하기도 한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웃음을 짓는 그의 인물들은 유머스러움 뿐 아니라 여러가지 터부를 깨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와 시대정신을 묘사한다고 할 대표적 중국 작가의 작품은 마카오의 중국으로의 반환 시기인 1996년에 지어진, 마카오의 규모에 비해 다소 과장된 규모로 중국 정부에 의해 지어진 이 미술관 건물안 밖(바깥에는 대형 조각의 형태로)에서 전시되면 다소 아이러니한 정치적인 페이소스를 보여준다.

에세이이다. 세계 전쟁 후 사회, 정치적으로 비판적인 성격이 강했던 시기에 서로 이웃하고 있는 이 세 나라의 문화적, 예술적인 사조는 작가의 신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시적인 해프닝, 퍼포먼스로 표출된다.

2차대전 종전까지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은 전쟁 이후로는 미국의 막강한 정치, 문화적인 영향력을 받게 됨과 동시에 대만은 중국 인민공화국에 남한은 북한의 공산주의의 반대편에 놓이는 격돌적인 동아시아의 역사를 반영하는 60년대 동아시아 3국의 미술은 각 나라의 각기 다른 콘텍스트에 따른 반응, 그리고 국제적인 양상을 동시에 띠고 있다.

전시는 여여 사진 및 영상 다큐멘터리, 인쇄물, 글 등의 자료들로 구성되었고, 액션미술로 유명한 오노 요코, Zero Dimension를 비롯해서 한국 작가는 정광자, 강국진, 최봉현 등이 소개되었다.



제목: Great Crescent –Art and Agitation in the 1960's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장소: Para-site, 홍콩

기획: Para-site, 홍콩

일시: 2013. 11.22 – 2014.2.9

<http://www.para-site.org.hk>

홍콩의 주요 미술 공간인 파라사이트에서 기획한 전시 Great Crescent: Art and Agitation in the 1960s –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는 한국, 일본, 대만 1960년대 미술사에서 반미술 “anti-art” 운동, 특히 퍼포먼스 관련된 미술운동에 관한



제목: Etudes for the 21st Century

장소: Osage Gallery, Hong Kong

일시: 2013. 11. 28 – 2013. 12. 28

<http://www.osagegallery.com>

작가: Robert Cahen, John Conomos, Kingsley Ng

<http://www.osagegallery.com/image/Kingsley%20etudes%201024px.jpg>

홍콩이 보세 의류, 짹퉁이의 천국이었을 당시에 같은 업종인 의류제품 판매로 자산가가 된 인물이 세운 오사쥬 화랑은 홍콩에서 지역 작가와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Osage 갤러리는 홍콩 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도 분점을 두고, 비보수적이고 비상업적인 미술을 하는 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적극 홍보, 지원하고 있으며, 갤러리 뿐 아니라 렘, 미술 재단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Osage Art Foundation은 2004년에 창의적인 커뮤니티, 문화적인 협력, 창의적인 능력의 조성을 위해 창립되었다.

특히 젊은이의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발전과 교류, 작가들의 문화적인 비판의식과 국제적인 문화 교류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선구적인 미술 프로젝트로 인정을 받고 있다.

홍콩의 다른 미술공간이 주로 있는 센트럴, 승완 지역이 아닌 홍콩 페리 피어가 있는 Kwun Tong 지역에서 2013년 말에 새로 개관한 오사쥬 갤러리에서는 ‘21 세기를 위한 Study’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전시가 열렸다.



제목: 2013 Bi-City Biennale of Urbanism \ Architecture (홍콩)

장소: Kwun Tong Ferry Pier, Fly the Flyover 01(Energizing Kowloon East Office)

<http://en.szhkbiennale.org/News/newsDe.aspx?id=10000526>

중국 심천에서 열린 2013 Bi-City Biennale of Urbanism \ Architecture도 시기획, 건축 비엔날레의 일부는 홍콩 Kwun Tong에서도 열렸다. 하버 지역의 고속도로 밑의 야외공간에 설정된 비엔날레 관에는 지역 및 국제적인 건축 작품이 쇼케이스로 보여졌다.



전시의 주제는 “Beyond the Urban Edge: The Ideal City?”이며, 주로 건축, 집과적인 도시, 환경주의, Fringe Urbanism 등이다. 페리는 중국 심천과 홍콩을 잇는 중요 교통수단이며, 항구는 홍콩을 대표하는 렌드마크이기도 하지만, 홍콩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런 중요한 이미지를 잊고 외면시 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도시적인 감각을 미처 못가진 지역인 홍콩 Kwun Tong에 전시를 유치하면서 ‘이상적인 도시’라는 비엔날레의 주제를 90명의 지역적, 국제적 건축가, 디자이너, 작가들이 3개월 동안 실험하는 플랫폼이 된다. 특히 홍콩의 지역적 특성, 비좁은 생활 공간, 홍콩의 영국령 시절의 건축물과 빌딩들, 중국 본토 건축과의 비교 등으로 비판적이고 실험적인 연구소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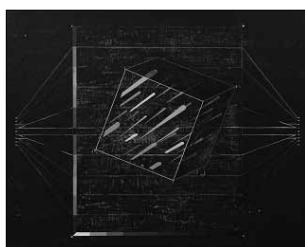


제목: Cross-Boundary - Macao-Meets-Taiwan:  
Artistic Exchange Exhibition

장소: Ox Warehouse, 마카오

일시: 2013. 12.15 – 2014. 1. 31

16세기에 대만과 마카오가 서구에 소개되고, 각자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놓였던 긴 시간이 지난 후인 20세기 말에 들어와서야 처음으로 문화적인 교류가 이 두 지역 사이에 시작되었는데, 이 전시는 cross-media 와 cross-boundary creativity 를 주제로 열린 교류전이다. 전시는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방면에 전문가인 큐레이터를 선정,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팀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과거를 지나 현재의 마카오와 대만의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강연 제목: A Sharing: Unconventional Marketing  
- The Business Concept Behind The Success of  
Kim Kim Gallery

일시: 2013.12.15

강연: 킴김 갤러리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장소: 옥스웨어 하우스, 마카오

듀오 작가 김나영과 그레고리마스Gregory Maass 가2008년 창립한 갤러리이자 미술작업인 Kim Kim Gallery를 현지인들에게 소개하는 강연이다. 킴김 갤러리는 일정한 공간없이, 기획의도에 따라 작품이 이상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전시장소와 형식을 연쇄적으로 시도하며 현대미술의 구조에 개입한다. 오늘날 미술과 사회의 관계변화에 대한 실용주의적인 접근으로, 기존의 전시 방법과 미술의 경제 구조에 질문을 던지고 “비정규 마켓팅 Unconventional Marketing” 전략으로 그 해결점을 찾고자 하며, 이에 따른 독립성과 효율성을 지향한다. 킴김 갤러리는 미술작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2008년 부터의 킴김 갤러리의 활동을 소개, 토론하는 장이 되었다.





# Information

2013 프로젝트

&

협력기관 및 참여자

149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2013 Project

## 2013 프로젝트 소개

151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2013년 프로젝트 명:

<플로팅 피어스(Floating Peers) 프로젝트 2013>

장소: 포라파라 아트 스페이스

기간: 2013.11.08. – 2013.11.25.

<트랜스 아츠 토쿄(Trans Arts Tokyo)프로젝트>

장소: 일본 3331 아츠 치요다 / 도쿄 칸다 지구 댄키 기술대학 빌딩

기간: 2013. 10.19. – 2013.11.10.

Democracy

## 플로팅 피어스(Floating Peers) 프로젝트 2013

포라파라 스페이스는 2005년에 세 개의 마을과 예술가들이 협력하는 사회참여적인 실험 작업을 시작했다. 당시 프로젝트의 목표는 참여자의 상당수인 예술가들과 가난한 지역주민들과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예술은 삶을 바꿀 수 있다.”로 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포라파라 예술가들의 첫 번째 경험이었는데 비조이 나고르(Bijoy Nager), 차르바스티 (Charbasti), 닥킨 파라(Dakhin Para) 지역의 주민들과 예술가들의 관계에서 즐거운 에피소드들이 많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예술가들의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이런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시각예술과 퍼포먼스 등을 활용하여 실험적이고 사회참여적인 활동을 활력 있게 펼치는 아주 흥미로운 작가들을 만나게 되었다. 포라파라 스페이스는 수많은 협력프로젝트들을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2013년에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확대할 수 있었다. 올해의 주제는 “부유하는 친구들 2013”으로 정하였다.

# FLOATING PEERS

আত্ম পরিষেবক চর্চা কর্মশালা-২০১৩



154

## 떠도는 친구들: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실험적인 사회참여 예술 프로젝트로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많은 방식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는 흥미롭기도 하면서 실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여러 관점에서 보면 카르나풀(Karnaphull)강의 끝자락에 위치하면서 벵갈 해의 연안을 따라 펼쳐진 해변지형에서 작업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했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주요 참여자들은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특별히 규정되지 않았다. 우리는 엄청난 연구와 참여활동 이후에 우리 활동의 목표에 대해서 검토할 기회가 많았다. 이 모든 영역들은 이 프로젝트를 “떠도는 친구들”이라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11월 8일에서 25일까지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를 보다 더 낫게 만들려는 꿈과 야망을 갖고 출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핀란드 출신의 예술가 JP 칼조네네(Kaljonene)와 방글라데시 예술가 아브 나사르 로비(Abu Naser robii)에 의해서 기획되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의 비슷한 유형의 워크숍을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떠도는 친구들 2013”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아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MUU Association과 방글라데시의 포라파라 스페이스가 기획한 것이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의미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전 세계 서로 다른 곳에서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프로젝트는 특별히 핀란드, 방글라데시, 인도, 일본, 네팔, 중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그리고 한국의 참여자들이 초청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포라파라 스페이스와 남 방글라데시의 도시인 치타공에서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포라파라 지역의 길거리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참여 예술가들이 커뮤니티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양한 워크숍 시리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도시의 외곽지역에 살고 있어 들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중의 몇은 영국의 인도 식민지배 시기에 치타공 공항 개발계획으로 땅과 집을 잃어버렸다. 이들은 방글라데시에서 대부분 주소도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속하게 자라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영구적인 거처나 기본적인 필수품도 없이 행상이나 릭샤를 끌거나 쓰레기를 주우면서 사회의 언저리에서 연명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정성은 어린이들의 학교교육이나 젊은이들을 노동력 착취와 같은 상황에 내몰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역의 예술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이슈들을 주민들에게 드러내며, 주민들의 삶에 동참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방글라데시의 교육시스템의 전통적인 방식 뒷에 사회적인 공동체 기반의 예술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여러 나라에서 참여한 예술가들이 방글라데시 문화 안에서 사회 참여적인 활동들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6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3331  
arts trio

# TRANS ARTS 翻

## 트랜스 아츠 토쿄(Trans Arts Tokyo)프로젝트

칸다(Kanda) 지역에 있는 한 때 도쿄 덴키(Denkī) 대학의 한 파트로 있었던 17층 자리 건물에서 트랜스 아츠 도쿄 프로젝트가 열렸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전시, 토크쇼와 워크숍들 그리고 오픈 실험실과 예술가 테이퍼터 프로그램이 2013년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엄청난 일시적 예술 공간은 최근 복합문화공간인 3331 아츠 치요다의 디렉터로 있는 나카무라 마사토 씨에 의해서 기획된 것이다. 트랜스 아츠 토쿄의 모든 층에는 전자기술 전문대학이었던 과거를 연상시키는 전자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많은 예술작품들이 독특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과 오랜 거주자나 또 방문자들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300 여명의 예술가들이 동참해서 공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하고 지역에 활력을 만들어 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급격하게 외국인의 방문이 줄고 구도심으로부터 공동화가 확대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아픈 과거의 상흔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적 상상을 만들어 내기위한 예술가들의 사회적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Partnership

## 협력기관 소개

159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 협력기관 명:

<방글라데시 포라파라>

장소:      방글라데시 다카

홈페이지: <http://sites.google.com/a/nam.am/porapara>

<일본 3331 아츠 치요다>

장소: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지역

홈페이지: [www.3331.jp](http://www.3331.jp)

# 5th Porapara PUBLIC ART WORKSHOP

5th Feb - 14th Feb



160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ART CHANGES LIVES

## 방글라데시 포라파라 아티스트 트러스트

2004년에 설립된 포라파라 아티스트 트러스트(Porapara Artist Trust)는 방글라데시 치타공야아마낫 공항에 인접한 병갈 만과 칼나풀리 강 부근에 자리한 찰바스띠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포라파라 스페이스는 기획과 운영 매개 그리고 프로덕션 영역에서 신진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가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지난 5년 동안 국내 전역과 세계 각국에서 온다수의 작가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워크숍과 템지던시 프로그램 그리고 전시와 공공예술 프로젝트,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포라파라 스페이스는 예술적 활동을 통한 공공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가능하며, 방글라데시에서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예술적 실천을 위한 중요 대안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s://sites.google.com/a/nam.am/porapara>



162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 일본 3331 아츠 치요다

3331 아츠 치요다(3331 Arts Chiyoda)는 2010년 6월 도쿄의 렌센 종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였다.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도쿄에 위치한 예술 공간으로 약 1000평방미터의 메인 갤러리(1층)와 6개의 독립 갤러리 공간(2층), 창작자 공간(3층)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전자상가 및 게임·애니메이션의 메카로 불리는 아키하바라와 전통 문화가 깃든 다운타운이 가까이 있어 예술인들에게 독특한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331 아츠 치요다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고 있는 예술가, 기획자들이 각자의 표현을 자유롭게 발산하고, 교류하는 장소. 가장 실험적인 예술의 경계에서부터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적인 예술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테마를 다루고 있다. 전통적인 미술관에서 느껴지던 난해한 문턱의 높이는 과감히 걷어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아트 스페이스를 구축하였다.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시각예술인 뿐만 아니라 음악, 디자인, 건축, 무용 등 다양한 분야 예술인들이 체류하며 작업하는 테이블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331 측은 테이블 참가 예술인에게 따로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창작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 등, 참가비와 여행경비, 생활비 부담이 가능한 경우에만 테이블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센터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나카무라 마사토(中村政人)씨는 동경예술대학 회화과 준 교수이자 “미술과 사회”, “미술과 교육”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인 예술가이다. 그는 2001년 49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일본 국가관 대표작가로 참여한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이기도 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그는 일본의 지역 곳곳을 돌며 커뮤니티 아트,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아키하바라 TV 스테이션>, <코만도 N>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참여자 소개

165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참여자 :

김월식 (KIM, Wolsik)

백용성 (Dragon BEHCK)

손민아 (SON, Minah)

오소영 (OH, Soyoung)

위창완 (WEE, Changwan)

이윤기 (LEE, Yungi)

자우녕 (JA, Woonyung)

정재민 (JUNG, Jaemin)

조전환 (JO, Junhwan)

한지혜 (HAN, Jeehea)



## 김월식 (KIM, Wolsik)

### 학력

계원조형 예술 대학 조형학과 회화전공 졸업  
추계 예술대학 미술학부 판화전공 졸업 (조형예술 학사)  
한국 예술 종합 학교 대학원 졸업 (예술전문사.)

### 개인전

2009      제 3회 개인전 로멘틱 커뮤니티,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  
2005      제 2회 개인전 내 생애 두 번째 개인전, 가 갤러리  
2002      제 1회 개인전 서사의 이면展, 갤러리 라메르

### 단체전

2014      43미술제 '제주의 바다는 갑오년이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제4회 APAP, 안양파빌리온, 안양  
2013      총체적난 극, 경기도 미술관, 안산  
              러닝머신,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  
              해인아트 프로젝트, 해인사, 합천  
              소셜아트,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아방과후르드 아카이브 展, 경기문화재단, 수원  
2012      금천예술공장 오픈 스튜디오, 금천예술공장, 서울  
              동네미술, 경기도 미술관, 안산  
              신 소장품전,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미술의 생기, 대구 예술 발전소, 대구

167

communi ty  
art  
gl obal  
network

### 레지던시

2012      서울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1      경기창작센터, 안산  
2009      에이블 아트, 하나아트센터, 일본 나라시  
              로띠위에 카레밥,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마스, 경기도 안산  
2008      토리데 아트 프로젝트, 이노창작센터, 일본 토리데시

### 수상

2011 일맥아트프라이즈 일맥문화재단

### 현재

계원 디자인 예술 대학 아트앤플레이군 겸임교수,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추계예술대학교 외래교수,  
무느만커뮤니티 디렉터

## 백용성 (Dragon BEHCK)

### **학력**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입학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Visual Culture(미학전공) 석사입학  
동교동과 졸업  
경희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입학  
경희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경력**

2013 ~ 복합문화공간 아트포러스 예술협동조합추진위원회 대표  
2012 ~ (사)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아트 디렉터  
- 국제레지던시, 신진작가 플랫폼, 아트 페스티벌, 문화예술 교육  
2012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2012 ~ 새로운 세계문학잡지 “바리마 Barima” 편집위원  
2013 ~ (재)안산문화재단 이사  
2008 ~ 2011(사)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이사 (평론, 강의)  
2011 경희대학교 인류재건사회연구소 청소년인문강좌 ‘삶은 달걀’ 교수진 참여  
2010 제13회 국제 미학자대회 발표자 참여, 북경대학교  
계원예술대학 현대미술 강의

## 손민아 (SON, Minah)

### 학력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 조형미술(개념미술)학과(Prof. Dieter Appelt) 마이스터쉴러(최고수제자)과정 졸업

### 개인전

- 2013 친구와 함께... 선반프로젝트, 대남, 대동초등학교, 안산
- 2012 Steel Construction by Mullae, 문래-LAB39, 서울  
친구와 함께... 선반프로젝트, 대부초등학교, 안산  
이웃과 함께... 선반프로젝트, 경기창작센터, 안산  
이웃과 함께... 선반프로젝트, 한가람미술관, 서울  
이웃과 함께... 선반프로젝트,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안산  
이웃과 함께... 선반프로젝트, 초지동 풍림 아파트, 안산
- 2009 between see and read, TOLL Gallery, 몬테비데오, 우루과이
- 2008 '기호의 이면" 갤러리 쿤스트독, 서울 (3. 개인전)

### 단체전

- 2013 Residency, Now, 송원아트센터, 서울
- 2012 123 프로젝트\_큰 언덕섬으로의 초대, 경기창작센터, 안산  
소비의 진화: Trading relations,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10 After 347 years, New Hamel Project, project space LAB39-문래, 서울  
시대정신, 류화랑, 서울  
A4-DEMO, project space LAB39-문래, 서울
- 2009 사이: 드러난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일현미술관, 양양, 강원도  
제 10회 OPEN 국제 퍼포먼스 아트 페스티벌, 798 Art Zone, 북경  
옥상미술관프로젝트\_도시는 우리의 것이다, project space LAB39-문래, 서울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수원시미술전시관 기획전, 수원시미술전시관  
선의 확장 Beyond the line, 가인갤러리, 서울  
Latin America Action Tour Project\_ A.G.I.S, project space LAB 39, 서

169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 그 외 경력

- 2011 ~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경기문화재단, 안산
- 2013 경기문화재단 문화바우처기획사업 공모 선정  
경기문화재단 커뮤니티 아트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 공모 선정
- 2012 서울시창작공간 창작지원프로그램 선정
- 20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미술관 신진작가 비평워크숍' 선정
- 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신진예술가 뉴스타트' 지원' 프로그램 선정
- 2007 ~ 08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4기 입주 작가,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 오소영 (OH, Soyoung)

### 레지던시

- 2014 성미산학교 예술가 수위 아저씨 아줌마 되기 프로젝트(레지던시)
- 2014 제주 올레재단과 함께 하는 제주 한달살기 프로젝트 (레지던시)
- 2013 글로벌 네트워크 아티스트 “플로팅 피어스” 방글라데시 (레지던시)
- 2013 경기창작레지던시
- 2013 가시리레지던시
- 2012 이탈리아레지던시

### 퍼포먼스

- 2013 하이서울 페스티벌 퍼포먼스, 서울
- 2013 워크샵 ‘동천의 집’친구들과 함께, 서울
- 2013 허멩이 프로젝트, 제주

2011 ~ 13 핸드메이드 코리아페어 라이브페인팅, 서울

### 전시

- 2013 서울 시민청 갤러리
- 2013 독거노인전 충무아트홀
- 2013 3인 초대기획전 충무아트홀

170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 벽화

- 2014 제주 시흥리
- 2013 제주 조랑말 박물관
- 2013 제주 봄날
- 2013 이탈리아 베네치아
- 2013 서울 과학고
- 2012 충무아트홀

## 위창완 (WEE, Changwan)

### 학력

콩코디아대학교 예술대학원 시각미술과 석사, 캐나다 몬트리올

콩코디아대학교 예술대학 시각미술과 학사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학사

### 경력

2013 ~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디렉터

2012 안양 광주 작가교류 국제행위예술제 예술감독, 안양 광주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전시기획팀장, 한국 안양

2011 인천여성비엔날레, 전시팀장, 한국 인천

2010 부산비엔날레 설치, 통역, 편집스텝, 요트경기장 특별전시실 현장감독 한국 부산

1999 ~ 2010 콩코디아대학교 예술대학 조각실기실 강사, 캐나다 몬트리올

### 전시경력

2013 EPAT 실험사진행위예술단, 통일촌 브랜드마을 개장 및 마을 40주년 기념행사 초대작가, 파주

EPAT 실험사진행위예술단, 춘천마임축제, 춘천

EPAT 실험사진행위예술단,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안산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토크쇼, 말을 넘어서' 기획, 서울

2012 광주국제미디어퍼포먼스아트페스티벌, 광주

안양국제행위예술제 -EPAT 예술감독,

Money Count, 삼천포 국제행위예술제, 삼천포대교공원

Used but Never Filled, 삼각케이스, 스톤앤워터 안양

꿈틀거리다 Wiggle, 솔로 행위, 삼각케이스, 스톤앤워터 안양

## 이윤기 (LEE, Yungi)

### **학력**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개인전**

- 2010 숲의 끝에 멈춰다. 봉담 시립도서관, 화성, 경기도  
화가의 방, 유엔아이센터, 화성, 경기도
- 2009 그대로 멈춰라. 갈라 갤러리, 서울 / 수원 미술관, 경기도
- 2008 生命의 그루코, 영아트 갤러리, 서울 / 한데우물GALLERY, 수원
- 2007 목리에서 마주친 얼굴. 눈 갤러리, 서울 / 수원 미술관, 경기도
- 2002 일상, 수원 미술관, 수원, 경기도
- 2000 소를 닮은 나, 그림 시 갤러리, 수원, 경기도
- 1999 도전하는 사람들, 그림 시 갤러리, 수원, 경기도

### **단체전**

- 2014 작업장, 문화공장오산, 오산, 경기도  
화화화프로젝트 결과보고전, 화성문화재단, 화성시, 경기도
- 2013 대부도 오래된집 답사 아카이브, 경기창작센터, 안산, 경기도  
172 DMZ 평화의 길을 걷다. 수원미술전시관, 경기도
- 2012 웃초온, 경기창작센터, 안산, 경기도  
동네야놀자, 수원미술전시관, 경기도
- 2012 동네야 놀자, 수원미술전시관, 경기도  
수원화성 창작깃발, 장안문 수원성곽 연무대, 경기도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 **프로젝트**

- 2013 커뮤니티 아트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사업-북만주지역리서치, 중국 흑룡강성
- 2013 화성공공미술조각공모전-화화화프로젝트:삼삼오오아트평상, 기천1리 화성 경기도
- 2013 경기창작센터 지역협력사업-대부도 오래된집 답사 프로젝트, 경기창작센터
- 2012 경기도 농어촌 건축디자인DIO 공모사업-선감어촌체험마을 '마을안길' 조성사업프로젝트, 선감도 안산 경기도

### **레지던시**

- 2012 ~ 13 경기창작센터 기획레지던시, 안산 경기도
- 2003 ~ 11 목리창작촌, 화성 경기도

## 자우녕 (JA, Woonyung)

### 학력

마르세이유 조형예술학교 학사 DNAP취득  
 마르세이유 조형예술학교 석사 DNSEP국가디플롬 취득  
 미디액트 영상센터, 다큐멘타리제작과정 이수

### 개인전

- 2013 훈적, 경기창작센터 전시관, 안산  
 진흔, 소금을 뿌리다,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혼.숲, Cafe Cammello, 서울
- 2012 후인마이의 편지, 아트센타 Nabi, 서울
- 2011 졸업개인전, 마르세이유 조형예술학교 제2전시관, Marseille
- 2009 유랑하다, boda GALLERY Contemporary, 서울

### 단체전

- 2013 Gold Black, 수원시미술전시관, 수원  
 한국미술의 흐름IV(여성주의), 김해문화의전당, 김해  
 What's on, 경기창작센터 전시실, 안산  
 기억과 기억하기,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서울  
 새로운 천사, Cafe Cammello, 서울
- 2012 인사미술공간 전시, 한 시방향의 저글링떼, 서울  
 작용과 반작용전, Kimi Art 갤러리, 서울  
 Deconpace전, 수성SK Leaders'VIEW, 대구
- 2011 Vue sur la mer, La promesse de l'architecture HEAD GENEVE, Geneva  
 후인마이의 편지, 상상마당 갤러리, 서울

### 경력

- 2013 ~ 14 경기창작센타 기획레지던시 입주작가, 안산
- 2014 [옥희에게] 독립다큐멘타리 연출,제작
- 2013 [옥희에게] 독립영화제작지원 선정, 영화진흥위원회  
 [희미한 국경]다큐멘타리 DVD제작지원 선정, 서울영상위원회  
 [여교역자] 다큐멘타리 장편, 연출,제작  
 Alltagaswochen Fest, 스크리닝, 발제,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 2012 아트센타Nabi 작가 아카이브등록  
 올해의 작가, Kimi Art 갤러리 선정
- 2011 ARKO미술관 전문가성장프로그램 선정 및 수료
- 2010 [이주의 시대]피칭선정,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정재민 (JUNG, Jaemin)

### 학력

목원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과 졸업

### 개인전

- 2010 '팀 캐미스트리' 展, 스페이스 A, 청주

### 단체전

- 2013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올라뽕따이 페스티벌’기획, 안산문화재단  
아트포러스 레지던시-‘실험은 계속된다’, 아트포러스 예술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시화생태예술프로젝트-시화 ‘여기서 저기를 잇다’, 수자원공사  
좋은마을 만들기 ‘키득키득-워따꼬이’ 기획, 안산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수요맞춤 예술 프로젝트 기획-‘예술’-주워담고흘리는 방법에 대한고찰, 예술인 복지재단  
커뮤니티 아트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젝트 ‘연접지점-결국우리’ 기획, 경기문화재단  
2012 ‘어스 콜링’ 레지던시,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올라뽕따이 페스티벌’기획, 안산문화재단  
경기아트 프로젝트 ‘동네미술’, 경기도 미술관  
2011 듀얼게임 레지던스,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교육연극 매개재 과정 수료, 경기과학기술대  
2010 르파비용 국제교류展 outdoor program 참여작가, 경기창작센터  
'따수한 초대'展,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원곡동레시피 '다국적 요리퍼포먼스',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아시안 게임'展,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국제 아시아 레지던시-‘사랑방 프로젝트’, 하이브캠프  
안산 대부 초등학교 ‘창작 미술’ 예술강사, 경기 창작센터  
안산 문화 예술의 전당 ‘상상 플랫폼’ 예술강사, 안산예술의전당  
2009 다문화프로젝트 ‘올라뽕따이’ 페스티벌 프로그램 매니저,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Club Day '프로젝트 매니저,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방과후 학교 예술강사, 광명 대안학교 법씨  
방과후 학교 ‘오감미술’ 예술강사, 광명 청소년 문화원  
광주 대인시장 교류프로그램 참여작가, 광주  
교육프로그램 ‘창작미술’ 예술강사, 경기 창작센터

## 조전환 (JO, Junhwan)

### **한옥건축**

- 2012 거창천씨한옥살림집 설계및 시공 외 2건  
2011 상주 화서면 한옥살림집 설계 및 시공 외 3건  
2010 북한산 만석장(2층 한옥) 설계 및 시공  
2009 경주 남산 한옥설계 및 시공  
2007 경주호텔 '리궁' 기획, 한옥공사 시공  
2004 강화환경농업교육장 신축공사 (한옥3동 설계시공) 외 5건  
1999 예산한옥주택신축

### **경력**

- 2011 서울국제건축박람회 그린한옥 테마관 설계 및 설치  
도시계획및 조경  
가평군 공원시설계획설계 및 실시설계  
중국 요녕성 신빈현 한옥정원 기획 및 설계  
2010 문화체육관광부 한스타일 박람회 한옥테마관 기획, 설치  
중국 흑룡강성 닝안시 명성촌 한옥도시 -마스터플랜  
2009 문화체육관광부 한스타일 박람회 한옥테마관 기획, 설치  
경주시 전통문화체험단지 타당성 용역 -시설계획  
2008 문화체육관광부 한스타일 박람회 한옥테마관 기획, 설치  
백남준아트센터 개관전시 공간기획및 설치 감독  
2006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강진 전시회 설치감독  
2005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설치감독

### **예술활동**

- 2012 경기도 미술관 기획전 '생각여행-길 떠난 예술가 이야기'참여  
한국-몽골 Nomadic arts residency program 참여  
2010 페스티벌'봄' 퍼포먼스공연 [ ||| □ ] -아르코대극장

### **저서 및 논문**

- 2012 「한옥 설계에서 시공까지」, 한문화사  
2011 논문「한옥정보모델링」, 한국BIM학회  
2008 「한옥, 전통에서 현대로」, 주택문화사

## 한지혜 (HAN, Jeehea)

### 학력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학과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in Nürnberg, Freie Maleri in Eva von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in Nürnberg, Kunst und öffentlicher Raum

### 경력

2013 커뮤니티아트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 우즈베키스탄

우리의 실험은 계속된다.. 아트포러스

'예술, 주어 담고 흘리는 방법에 대한 고찰'

시화 '여기서 저기를 잇다', 시화호 T-Light

'평화를 열치다' – 국제 예술캠프 기획 및 감독, 강화군

'넘쳐나는 이야기-키득키득 워따꼬이'

2012 문래58번지를 아시나요?-MEET프로젝트

FLUXUS 12, 리트머스

경기아트프로젝트 동네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2011 Young&Upcoming, 아시아 문화마루

176

community  
art  
global  
network

### 수상

2010 Akademie Klassen Preis

2009 Laf Junge Kuenstler Preis, Bayern.







